



충북도립공원
충북도립공원

길과
친구길



충북발전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녹색생태관광사업단



Contents

인사말	03
01 삶의 이야기와 자연이 화문석처럼 짜여진 걷기 좋은 길	04
02 사계절이 아름다운 괴산 산막이옛길	41
03 남해바래길은 삶의 길이다	57
04 소백산 아래 구비 도는 열 두 자락, 시백 리 길	75
05 소통의 미학 '여강길'	101
06 느리고 행복하게 바다에서 솔향 가득한 숲까지 제주 올레	123
07 생명평화 지리산 둘레길	151
08 예술의 본향 통영 토영 이야~길	173
09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 <토지>길	197
10 여유로운 사람·산·물이 만나는 청정로드	223
책을 마치며	264



인사말

최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을 추구하면서, 건강한 여가생활로 걷기여행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점에 걷기여행과 관련된 책들이 진열돼 있고, 여행자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길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길을 통해 자연과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다양한 테나로 이루어진 도보길을 걸으며 걷기의 즐거움에 대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걷는 여행이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원주를 목표로 걷다보면 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놓치기 쉽습니다. 각자 길의 특성에 따라 이 길에선 실개천의 징검다리를 건너도 보고 커다란 나무가 나타나면 그늘아래 쉬어가기도 하며 길이 걸어오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대중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은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람과 산과 물이 만나는 대한민국 대표 녹색생태관광지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대청호오백리길을 자연경관과 자원을 보존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명품 도보길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른 유명 도보길을 그대로 따라하는 획일적인 코스개발이 아닌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도보여행객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체험 거리를 조성하고 조성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도보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녹색생태관광사업을 통해 대청호오백리길의 청정 자연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해 소외되었던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전기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드릴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



화문석처럼 짜여진 걷기 좋은 길



사단법인 강화나들길 김 은 미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참성단이 자리한 마리산이 중심을 잡고 두 개의 다리(강화대교, 초지대교)로 드나드는 섬 강화도.

여름, 겨울로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생태의 섬이며 청동기 문화, 39년간의 고려 천도, 조선의 보장지처 그리고 구한말의 소용돌이와 6.25전쟁..... 고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통사와 나란히 함께 가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기도 하다.

나들길을 걷다보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고인돌을 비롯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수련수련 얘기를 걸고, 철새들 찾아와 부지런히 먹이활동을 하는 건강한 갯벌이 지구와 통신하도록 한다. 이야기와 볼거리가 많아 야기자기하고 걸을수록 자꾸 자꾸 걷고 싶은 길이 강화나들길이다.

나들길과 '심도기행'

1904년 강화군 불은면 두두미 마을의 선비 화남 고재형 선생은 행장을 꾸려 강화기행에 나섰다. 자신을 넣고 길러준 땅과 그 땅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256수의 7언 절구의 시와 산문에 담아 '심도기행'으로 묶었다.

100여년의 시간이 흐른 뒤 '심도기행'은 세상에 나왔고 화남의 시를 읽으며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길로 찾아내고 이어낸 길이 강화나들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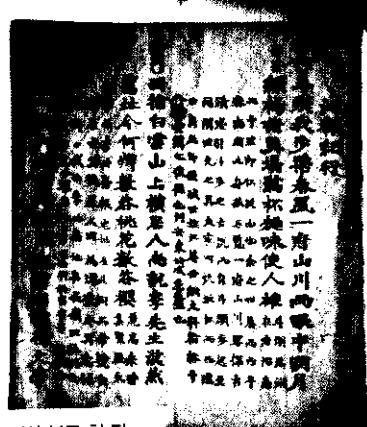
2009년 아래 문광부의 '이야기가 있는 생태문화탐방로'에 선정되었고 민·관이 소통하고 협조하며 관리하고 정비해나가는 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로 추천되기도 했다.

8

韓桂 沁都紀行



2008년 원역된 국역 심도기행



심도기행이 실린 화남집 필사본 표지와 본문 첫 장

04
05

14코스 15구간 246.8km의 트레일 코스가 화나들길

강회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며 유인도 9개, 무인도 17개로 이뤄진다.

2009년 문광부의 '이야기가 있는 생태문화탐방'로 선정된 아래로 강화나들길은 본도에 9개 코스 10구간 174.9km, 교동도 2개 코스 31km, 석모도 16km, 주문도 11.3km, 볼음도 13.6km 등 14개 코스 15구간이 열려 도보여행들을 맞고 있다.



'나들길'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들길은 원래 산을 오르는 등산을 포함한다면 트레일은 시골길, 오솔길이라는 뜻처럼 산을 오르기 보다는 산자락을 따라 걷는 평탄한 길로 이어진다.

나들길 정비와 관리

나들길은 트레일 코스다. 트레일이 산을 오르는 등산을 포함한다면 트레일은 시골길, 오솔길이라는 뜻처럼 산을 오르기 보다는 산자락을 따라 걷는 평탄한 길로 이어진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마실가던 길, 나룻단을 지고 장에 가던 길, 갯벌을 어깨동무하며 가는 철새 보러가는 길들을 찾아서 이어낸 길이다.

전부터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고 고라니들이 다니던 길이어서 길을 내기 위해 인공적인 설치물을 되도록 하지 않고 나들이꾼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구간에만 작은 나무 다리나 계단 혹은 돌길을 놓았다.

요즈음에는 시골에서도 자동차가 생활화 되어 있고 농사도 기계화 되어 농로나 마을길까지 시멘트로 포장되어 비포장 길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흙을 밟고 걸으며 무릎과 발목의 피로를 풀며 갈 수 있도록 비포장길의 비율이 70% 정도로 높다.

각 코스마다 평균 15km가 넘어서 5~6시간이 소요되니 하루를 꼬박 걷게 되지만 체감 피로도가 적은 길이 강화나들길이다.



5코스 고비고개 길



4코스 해 자는 마을길



7-1코스 동막해변 가는길



6코스 화남생가 가는길



2코스 호국 돈대길

걷기 여행을 하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표식과 이정표는 중요하다.

표식과 이정표는 낯선 곳을 여행하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뿐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잘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편안한 여행을 도와준다.

나들길을 걷다보면 나뭇가지에 매달려 바람에 날리는 노랑과 초록색 두 갈래의 리본과 전봇대나 담벼락 혹은 길바닥의 분홍색 화살표들이 나들이꾼을 안내한다.

리본의 노랑과 초록은 벼가 익어가는 강화의 가을 턱들과 산들을 대표하는 색이다.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꽃분총 화살표는 봄이면 강화의 산 기슭 만발한 진달래 꽃들을 상징한다. 강화의 군조인 저어새도 나들이꾼들의 길 안내에 한 몫하고 있다. 저어새는 천연기념물 제205호이고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마리 남짓하다. 모내기 즈음 나들길을 걷다보면 물 댄 논에서 기다란 수풀 같은 넓적한 부리를 휘휘 저으며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저어새를 만날 수 있다. 여름에는 갯벌에서 밀풀과 썰풀의 가장자리 따라 다니며 먹이활동을 하는데 강화에서 신란을 하고 새끼를 키워 11월이 되면 월동지인 대만 등지로 이동한다.

그 밖에도 강화나들길을 알리는 노랑과 초록의 사각형 표지판과 방향 이정표들이 있어서 지도와 편의시설이 실린 리플렛만 있으면 특별히 안내자를 동행하지 않아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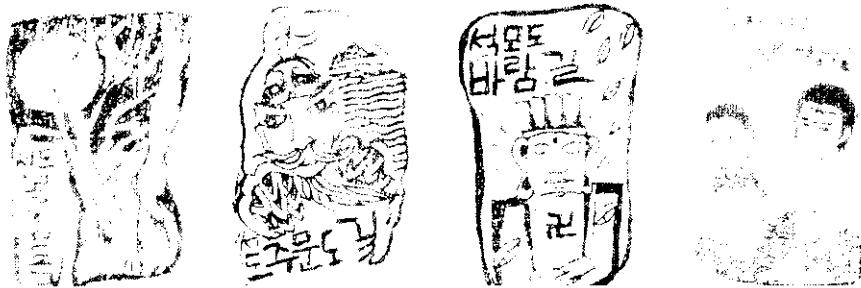
길동무와 나누는 즐거운 수다나 꽃들에게 흘려 험여 표식을 놓친다 해도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앞으로 혹은 뒤로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곧 나들길 표식을 만날 수 있다.

나들길 도보자 인증과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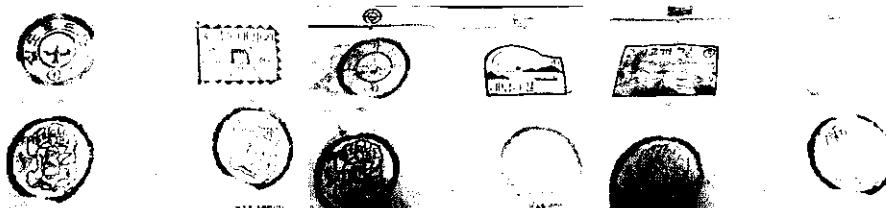
나들길을 걷는 나들이꾼들은 각 코스마다 출발과 완주를 확인하는 스템프를 찍는 인증제도가 있다. 각 코스별 출발지에서 받을 수 있는 나들길 도보자 여권에는 코스별 안내 지도와 강화도 전체 지도 그리고 나들길 정보가 정리되어 있고 스템프를 찍을 수 있도록 칸이 지어져 있다. 전체 코스를 완주한 나들이꾼에게는 강화군수가 인증하는 완주인증서와 기념품을 증정한다. 여권에 코스별 스템프를 채워 나가는 재미가 쏠쏠하고 칸을 다 채운 여권과 완주 인증서가 주는 성취감으로 다섯 번 이상 전 코스를 완주한 나들이꾼이 여럿이다.

도보자 여권을 받아 코스별 특징을 디자인한 스템프를 찍으면 나들길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찐하게 온다고들 한다.

“자 이제 출~발, 끝까지 잘 해 보는 거야..... 즐거운 나들길을 위해 파이팅!”



강화나들길 스템프(11~14코스)



출발 완주 스템프가 찍힌 도보자 여권

01
02
03
04
05
06
07
08
09

나들길을 안내표시는 꼭 필요한 자리에 두었다. 그러나 사람마다 궁금한 사항이 다르고 또 다양하므로 헷갈리기 쉬운 길에는 이중 장치를 했다. 안내표시가 보이지 않아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당황해 하지 말고 천천히 주위를 살펴보면 된다. 때로는 되돌아가고 때로는 앞으로 조금 전진하면서 느긋하게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강화 나들길 안내표시

이제와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강화읍

강화읍은 1232년(고려 고종19) 강화 천도 후 강도의 도읍지였고, 조선시대 아래로 강화부가 있어 부내(府內)면이라 하였다. 지금도 강화군청과 등기소등이 모여 있어 그 옛날에도 오늘에도 이런저런 행정업무들의 대부분이 강화읍에서 이루어진다.

강화읍 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여행 안내소에서 배포하는 나들길 리플렛과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분홍색 나들길 안내 표식을 따라 풍물시장과 우체국을 지나면 강화산성 동문에 닿고 잘 생긴 느티나무가 나들이꾼을 맞는다. 골목을 따라 오르면 1900년에 지어진 성공회 성당(사적 제424호)이다. 강화도는 기독교가 들어온 곳이어서 오래된 교회 건축이 많은데 강화읍 성당은 그 중 으뜸이다. 경복궁을 지은 대목수가 백두산의 금강송을 베어다 지은 집이고 한옥과 바실리카 양식이라는 동·서 양의 조화가 돋보이는 훌륭한 건축물이고 우리나라 건축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어서 성당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 곳이다. 전체적으로는 배 모양을 본 땡 머리 쪽으로 외삼문과 내삼문을 두어 입구로 삼고 중앙에는 성당을 배치했으며 후미는 사제관을 배치한 특이한 양식이다. 입구에 동종을 달고 성당 바깥 기둥에는 한자(漢字) 성경 글귀로 주련을 써 붙여 사찰 느낌이 난다.

성당 양 쪽으로 선비목으로 불리는 회화나무와 보리수나무를 심은 것까지 우리 전통문화와 외래종교를 조화시키려 했던 노력과 조선인의 정서를 배려한 성공회의 품이 넉넉하게 느껴진다.



용흥궁과 성공회 성당

원범이가 살았던 초가집은 철종으로 등극 후 기와집이 되었다. 임금이 나왔다 해서 용흥궁(龍興宮)이다. 바로 옆에 자리한 용흥궁과 성공회 성당을 둘러보고 북산자락에 자리한 고려 궁궐터를 지나면 700살의 은행나무가 나들이꾼을 맞아 준다. 나무 앞에서 좁다란 골목길로 이어지는 마을인 궁골에는 임진왜란 이후 들어온 관우신앙을 엿볼 수 있는 관제묘가 있다. 강화읍에는 이곳 북관제묘 외에 남관제묘, 동관제묘 등 3곳의 관우 사당이 있다.

700년된 은행나무와 관제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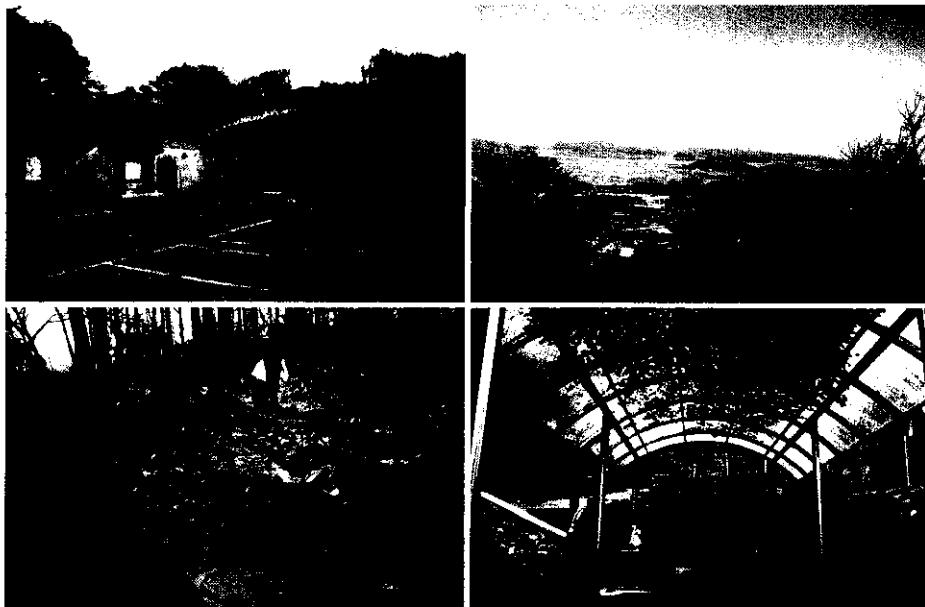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로울 때마다 그림 같은 경치를 만날 수 있다.



향교를 지나 은수물 빨래터에서는 시원한 약수도 마시고, 이 빨래터에서 30년 넘게 여기서 빨래를 한다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짧은 수리를 떨면서 밭도 담글 수 있다. 여기서 북문까지는 북산 오솔길을 따라 올라간다. 북장대로 오르는 성곽 길은 눈이 시원해지는 강화의 북쪽 풍경이 펼쳐진다. 날빛 좋은날 북장대에서는 개성의 송악산이 보인다. 다시 성밖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면 오읍약수터, 고려가 천도해와 동굴의 침입에 대비해 내성을 쌓을 때 가뭄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 임금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자 벼락이 떨어져 바위가 깨진 자리에서 샘물이 솟았단다. 강화 천도로 실향민이 되었던 백성들도 임금도 신하도 하늘도 땅도 함께 올었다고 해서 다섯 오(五), 율 읍(邑)자를 쓰는 오읍약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로 이어진다.

강화산성



고려시대에 축성된 산성을 걸어 연미정까지 가는 길은 고려와 조선에 이르는 생생한 역사, 문화의 현장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연미정에서 내려와 강화역사관까지 철조망이 쳐진 해안도로를 바라보며 걷다보면 한반도 역사와 함께 한 강화의 어제가 오버랩되어 오늘의 강화에 겹쳐진다.



1. 김꽃성지가 공사 종이라 강화대교 옆 인삼센터가 종
착지이다. 인삼센터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무인 스
탬프 상자에서 스템프를 꺼내 직접 원주 스템프를
찍고 횡단보도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귀기하면 되
는데 3000번 버스는 정차하지 않는다.
2. 서울 방면 88번 버스와 일산, 인천 지역으로 가는
80번, 70번 90번 버스들이 선다.
3. 용종궁 공원과 북문, 오읍 약수터, 연미정에 공중
화장실이 있고 인삼센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2.2 스트리트 돈대길

임진강과 예성강이 염해(강화해협)의 짭쪼롬한 바람을 맞으며 외성과 갯벌에 연한 제방을 밟으며 초지진까지 가는 동안 10곳이 넘는 돈대를 둘러날릭하며 간다. 서해 바다로 둘러싸인 섬 강화도는 오래전부터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터전이자 외국의 문화가 바닷길을 통해 육지로 들고 나는 관문이었다. 효종이 북벌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축성하기 시작한 53개의 돈대를 만날 수 있고 몽골과의 항쟁에서부터 조선조 말 병인양요, 신미양요에 이르는 민족의 자금심과 국난 극복의 의지가 서린 강화도의 전적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섬을 빙 둘러 만든 53개의 돈대는 5진 7보로 나누어 관할했다. 돈대는 지금의 해안 방어 초소가 있는 소대 정도의 규모이고 3~4개의 돈대가 진과 보에 소속된다. 진(鎮)은 보(堡)보다 다소 큰 규모이지만 상하 관계의 부대는 아니다.

돈대(墩臺)의 사전적 의미는 경사면을 자르거나 흙을 둑우어 높게 평탄지를 만들고 용벽을 구축한 곳을 말한다. 경복궁의 교태전 후정처럼 정원시설로서의 돈대도 있지만 강화의 돈대는 모두 곳곳에 총구멍과 포좌를 설치한 군사 방위시설이다.

염해(강화해협)의 짭쪼롬한 바람을 맞으며 외성길을 따라 초지진까지 가는 동안 10곳이 넘는 돈대를 만날 수 있다.

갑곶돈대에서 출발해 좌강 돈대가 있는 용진진을 지나면 용당돈대다. 한 가운데 서있는 참나무와 인사하고 돈대 위로 오르면 염해의 흐름이 한 눈에 들어온다. 바람도 시원하고 눈도 시원하다.

용당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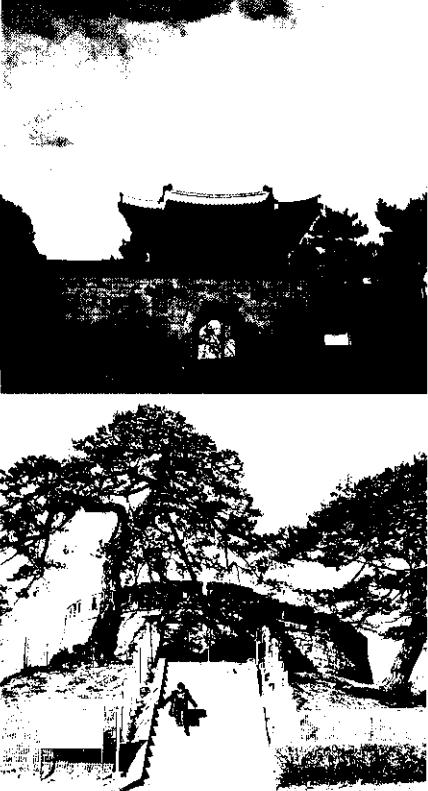
둑길을 따라 방형의 화도돈대를 지나면 염하 쪽으로 솟은 봉우리에 자리한 오두돈대가 나온다. 오두돈대 아래에는 성곽의 일부가 벽돌로 만든 전성(磚城)으로 되어 있다. 본래 고려때 흙으로 쌓은 강화 외성을 조선 영조 때 강화 유수 김시혁의 건의로 벽돌로 쌓았다.

그 당시로서는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비가와도 축이 흘러내리지 않는 신건축물인 셈이다. 다시 둑길을 따라 2km남짓 염하와 어깨동무하고 가면 신미양요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광성보에 다닌다.

어재연 장군과 선비였던 동생 어재순 두형제와 함께 끝까지 결사 항전한 350여명의 조선 병사들의 충절이 서린 곳이다. 충신 형제를 기리는 쌍총 비각과 54무명 용사의 무덤인 신미순 의총을 지나면 미군들이 신미양요 당시 처참한 현장사진을 찍었던 손돌목 돈대가 나온다. 돈대 위에서 염하 건너로 바라다보이는 묘는 손돌의 무덤이다. 목은 신수가 험하고 막힌 지형을 말하는데 용두돈대 앞 자연암초로 어울이 세어지는 곳이 손돌목이다. 손돌은 김포 사람으로 왕이 강화로 피난할 때 배를 몰았던 뱃사공인데 바닷물이 소용돌이 치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왕은 손돌이 자기 를 속여 험지로 끌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참수했다. 손돌은 자기가 죽은 뒤 바가지를 띄우고 따라 가라고 했고 덕분에 무사히 염하를 건널 수 있게 되었다. 동료 뱃사공들이 그의 시체를 강변에 매장한 뒤 이곳을 손돌목이라 하고 매년 제사를 지내 원훈을 위로했다. 일제시대까지 손돌목에는 손돌의 무덤과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손돌이 죽은 음력 10월 20일이 되면 세찬 바람이 불어 춥고 풍랑이 일어 손돌의 한숨, 손돌의 추위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김포에서는 지금의 위치에 손돌의 묘를 복원하고 해마다 손돌을 기리는 제사를 지낸다.

용머리처럼 염하로 쑥 나간 용두돈대와 광성 포대를 지나 오솔길로 제방으로 돈대로 들락날락하다보면 어느덧 초지진이다.





여행자를 위한 TI

1. 신촌에서 출발하는 3000번 버스를 타고 강화 대교를 건너자 마자 강화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하차 해 갑곶든대까지는 걸어서 5분 남짓.
2. 돈대 암마다 공중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사용 용이하고 음식점 이용과 도착지에서 나가는 교통편이 좋다.
3. 갑곶든대가 있는 구역사관 여행 안내소에서 스템프와 도보자 여권을 받을 수 있고 초진 안내소에 설치된 무인 스템프 함에서 직접 원주 스템프를 찍으면 된다.
4. 주로 제방길을 많이 걷기 때문에 헛빛을 피 할 수 있는 그늘이 적어서 한 여름은 피하는 것이 좋다.

3코스 능묘가는길

온수리 터미널에서 내려 편의점 패밀리 마트에서 출발 스템프를 받고 정류장 뒤편에 있는 농협 옆의 골목길로 들어서면 나들길 3코스 '능묘가는 길'이 시작된다.

길상초등학교와 천주교 온수리성당을 지나는 골목길 끝에서 오른쪽 오르막길을 오르면 삼랑성(정족 산성) 동문이자 전등사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강화도 하면 전등사와 석모도가 떠오를 만큼 전등사는 널리 알려진 천년 고찰이다.

전등사가 자리한 정족산을 빙 둘러 쌓은 정족산성은 단군의 세 아드님 부루, 부소, 부여가 쌓았다고 해서 삼랑성(三郎城—국가사적 130호)이라고 부르는데 병인양요 때 양현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승전한 곳이기도 하다.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 그리고 범종은 각각 보물178,179,393호이며 불상과 텅화, 불구들과 법화경 목판 등 유물들이 그득한 곳이다.

대웅전 처마를 받치고 있는 나부상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자 얘깃거리이다.

절을 짓던 대목수가 정을 통한 주막 아낙이 도망을 가버리자 그 여인을 조각해 절집 지붕을 떠받치는 천년의 형벌을 주었다는 설화는 유명하다.

그렇게 큰 절집을 짓는 대목수가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진 않았을 것도 같다. 어쩌면 자신의 방일에 대한 회한으로 스스로를 올려놓은 것은 아닐까?...

대웅전을 돌아 나와 삼성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 맑고 시원한 샘물이 기다린다.

물병을 가득 채우고 삼성각을 지나면 역대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정족산 사고인 '장사각'이다. 실록 등 국가의 귀중한 사서는 소실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분산하여 보관했는데 1660년 (현종) 강화 정족산에 사고를 마련하여 마니산 사고에 있던 전주본을 이곳에 비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본래의 정족산 사고는 주춧돌과 계단석만 남긴 채 없어지고 사고에 걸려있던 '장사각'과 '선원보각'이라는 현판만 전등사에 보존되어 오다 1999년 복원되었다.

복원된 텅 빈 건물만 있을 뿐이지만 적송 숲에 둘러싸인 전등사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염하와 초지대교가 펼쳐진 조망이 시원스럽다. 장사각 오른쪽으로 난 좁다란 산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정족산 성 복문이다. 좁다란 문을 나가 정족산 자락을 내려가면 온수리 시내에 들어선다. 시골 소읍 분위기가 여실하지만 강화 제2의 다운타운이어서 큰 마트가 3곳이고 오일장이 선다.

이름대로라면 온천이 있을 법 하지만 온수리는 성공회 평신도회의 교세가 큰 곳이어서 김성수 주교를 배출한 곳이고 1906년에 지어진 성 안드레아 성공회 성당이 있지만 온천은 없다. 마을길과 농로를 따라 해양대 마을을 지나면 길정 저수지에 둘는데, 저수지 뚝방과 저수지 기슭을 거쳐 곤릉으로 가는 길과 이규보 선생 묘를 들려 곤릉으로 가는 길로 길이 갈라진다. 저수지를 따라가는 길이 2km 남짓 짧다.

곤릉과 석릉 그리고 3코스의 종착인 가릉까지 가는 길은 진강산 자락을 둘러가는 숲길이다. 석릉 주변에는 석관묘로 보이는 무덤 자리들이 널려 있어 강도시절 귀족들의 공동묘지라고 추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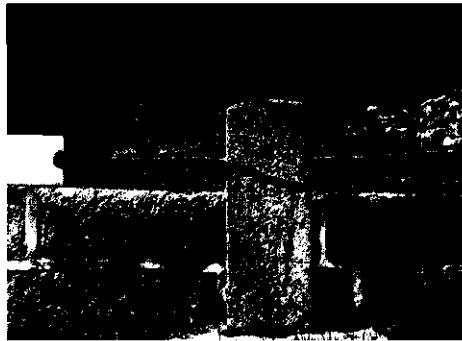
'生居 眞川 死後 龍仁'이 강화에서는 '……사후 진강산'이라고 할 만하다.

곤릉은 땅 곤(坤)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여성의 능이다. 최충헌에 의해 왕세자에서 쫓겨났다 다시 최충헌에 의해 왕위에 오른 비운의 왕인 22대 강종의 비이며 23대 고종의 모후인 원덕태후의 능이다. 최충헌이 회종을 폐하고 재위에 올린 강종의 재위 기간은 달랑 2년이니 비운의 왕의 비였던 원덕태후의 인생도 그리 순탄치는 못했을 것이다. 무신정권의 위세와 폭압에 눌린 고려왕실의 비애가 소박하다 못해 왕릉답지 못한 작은 규모의 능묘 위로 겹쳐진다.





곤릉과 석릉



석릉은 무신정권을 무너뜨리려 우두머리인 최충헌을 제거하려다 실패해 왕위에서 쫓겨난 21대 희종이 강화도 교동에 유배되었다 묻힌 곳이고, 24대 원종의 비인 순경태후가 묻힌 곳이 가릉이다. 곤릉과 석릉을 거쳐 진강산을 나오는 어귀에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어 가릉보다 먼저 만나는 능이 있다. 봉분을 두른 석축을 보아 귀족 이상의 고귀한 신분의 무덤이라고 추정되지만 밝힐만한 근거가 없어 그저 능내리 석실분이다.

가릉은 봉분아래 돌방을 드러내고 유리문을 달아 놓아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놓아 석관묘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곤릉에서 나와 길정리 마을을 지나 석릉을 거쳐 가릉 까지 가는 길은 산길이기는 하지만 오르막과 내리막이의 경사가 완만한 편이어서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숲길과 산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맛이 좋다. 그늘이 많아서 한 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를 살짝 피해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남한에 있는 총 5기의 고려 왕릉 중 고려산에 있는 고종의 능인 홍릉을 제외한 곤릉, 석릉, 가릉이 자리하고 고려의 대 문장가인 백운 이규보 선생의 묘가 자리하고 있어서 나들길 3코스 '능묘가는 길'은 '고려인을 만나는 길'이라 해도 될 것이다.



여행자를 위한 Tip

1. 3코스는 온수리를 지나면 중간에 음식점이나 가게가 없어서 미리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이미 전등사를 가봤던 이들은 동문(전등사 입구) 앞에서 (동문을 바라보고 오른쪽) 음식점을 했던 집 뒤쪽으로 난 길로 가면 북문에서 내려오는 길과 만난다. 그렇지 않으면 전등사를 빼고 벽화가 그려진 온수리 마을길로 진행해서 성공회 온수리 성당으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다.
3. 온수리 버스터미널과 이규보 묘소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곤릉이 있는 길정리 마을의 권능교회와 3코스 완주 도장을 찍어주는 허브향기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4. 허브향기 있는 탑재삼거리에서 온수리까지는 군내버스와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버스 시간을 잘 맞춰야 한다. 버스를 놓쳐 온수리 클택시를 이용하면 요금이 8,000원
5. 차편 : 신촌 출발 3100번 회도행 온수리 하차 (소요시간 2시간/배차간격 1시간) 7호선 송정역에서 60~2번 갈아타고 온수리 하차
(소요시간 1시간 10분/배차간격 20분)

나들길 4코스인 해지는 마을길은 점심을 먹고 천천히 시작해 강화의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걸으면 좋을 길이다.

강화학파의 비조 정제두 선생의 묘가 있는 하곡 노을을 하(饗) 골곡(谷)-마을의 이름 그대로 저녁놀이 곱게 내려앉은 마을길을 지나 해안 길을 따라 걸으면 탁 트인 외포리 앞바다와 만난다.

강화학파는 조선 후기 정제두를 비롯한 양명학자들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형성한 학파이다.

북학파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강화학파의 학맥은 한말 이건창과 일제강점기 국학연구가 정인보 등에 의해 계승 되었고 신채호, 박은식 등 민족주의 사학자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하곡 정제두 선생은 인간과 사회 문제를 실천적으로 연구하고 개방된 학문 풍토와 참된 정신세계를 심화시킨 강화학파를 열었고 200년 동안 그의 학맥이 이어졌다.



정제두 선생의 묘와 이건창 선생의 묘



하우 약수터에서 잠시 쉬었다 건평마을로 걸음을 옮기면 이건창 선생의 묘로 간다. 5살에 한시를 지어 신동 소리를 들었고, 15세에 대과에 급제하지만 너무 어려 등과하지 못하고 열이홉이 되어서 홍문관으로 들어갔다. 추상같이 엄정한 암행어사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 각 처에 선정비가 세워져 있지만 갑오개혁 이후로 관직에 나가지 않아 유배되기도 했다.

문학적으로는 여한9대가(麗韓九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힌 한말 선비 중의 선비이다.

한 때 새우젓과 꽃게잡이로 번성했던 건평나루는 지금은 몇 칙의 어선만이 남아 명맥을 이어가는 한적한 포구이다. 바다 건너편으로는 석모도가 보이고 남쪽으로 고개 돌리면 마니산과 선수 포구가 펼쳐져 저녁놀이 드리우면 한 폭의 산수화가 되는 강화 해넘이 명소 중의 한 곳이다.

건평나루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외포리 가는 길은 짭쪼롬한 새우젓 냄새와 환하게 빛나는 외포리 횟집의 불빛들이 나들이꾼의 시장기를 자극한다.



1. 기통 주차장 옆 허브항기에서 여권과 출발 스템프를 받고 외포리 여객터미널 옆 관광안내소에서 원주 스템프를 찍는다. 관광안내소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성안정 식당에서 스템프를 찍는다.
2. 허브항기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하우약수터와 외포리에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3. 기통 주차장이 있는 탑재 삼거리에 음식점이 있고 코스가 짧아 요전이든 오후든 약간의 간식만 준비하면 된다.
4. 차편 : 강화읍 버스터미널에서 양도시장 가는 48번 군내버스를 타고 탑재 삼거리 하차 (소요시간 20분 1일 10회 운행)
외포리 버스터미널에서 강화읍 행 31번 군내버스 이용
(소요시간 20분 1일 12회 운행)
5. 여행 전 사전 조사는 필수.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군내버스 시간표와 노선표를 꼭 확인해야 한다. 휴일에는 버스시간이 달라진다.

55 속고개길

동에서 서로 강화를 가로 지르는 길이다. 읍내 장날 장보러 가던 길이고 나무꾼이 나뭇단을 지고 돈 사러 가던 정다운 길이다.

고려 적 축성되었던 강화산성의 남문과 서문을 지나면 국화저수지가 나들이꾼을 반긴다.

수변 공원으로 말끔히 단장한 저수지는 왜가리와 민물 가마우지들이 낚시를 하고 겨울에는 흰뺨검둥 오리와 청둥오리들이 한가로이 떠 있다.



고려산 자락으로 들어 굽이굽이 산길을 도는 숲 속 오솔길을 나와 고천리를 지나면 유네스코가 문화 유산으로 지정한 오상리 고인돌 군을 만난다. 크고 작은 고인돌이 무리지어 있는 선사시대 고인돌 사이에서 방금 지나온 고려산을 바라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하다.

내가면으로 들어가 덕산 삼림욕장으로 오르면 낙엽송이 열병하듯 서있는 널따란 숲길을 따라 국수산 자락을 끼고 외포리 곶창 굿당에 닿는다.

인천시 무형문화제 제 8호로 지정된 곶창 굿은 고창굿이라고도 하는데 세습무권이지만 서울식 굿을 하는 강신무들에 의해 굿이 전승되고 있다.

주로 어업을 하는 정포(井浦)마을과 농사짓는 대정(大井)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득제장군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함과 생업의 번창을 위하여 하는 굿이다.

굿이 벌어지는 상산당(上山堂)에는 득제장군과 장군마누라를 가운데에 두고 양옆으로 성주·제석·별상·산신·군웅·도당할머니·대감·창부의 화분을 그려 모시고 있다. 곶창굿은 대개 2~3년마다 음력 2월에 한다.

① 수살굿 ② 돌돌이 ③ 초부정, 초가망거리 ④ 제석거리 ⑤ 성주대내림 ⑥ 장군거리 ⑦ 별상거리 ⑧ 성주왕신거리 ⑨ 대감거리 ⑩ 창부거리 ⑪ 선주굿 ⑫ 군웅굿 ⑬ 뒷전으로 굿을 마친 뒤 제관들이 모여 다시 감사의 고사를 지내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틀간의 곶창 굿판이 벌어지는 해는 구경꾼들로 외포항이 북적인다.



여객선을 따라 춤추는 갈매기들을 바라보며 외포리 젖갈 시장을 지나면 커다란 제주 돌하르방과 진돗개 상이 불쑥 나타나 나들이꾼의 발길을 잡는다.

몽고와의 화진에 대항해 제주도로 떠난 삼별초의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강화군민들이 세운 삼별초항 몽유허비가 있는 곳이다. 1270년 6월 1일 강화를 떠난 삼별초는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거점을 옮겨 4년간 항전을 지속하였다. 진도의 명물인 진돗개와 제주의 상징 돌하르방은 강화, 진도, 제주도가 삼별초 대동항쟁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준다.

1. 원주 스탬프는 망양둔대에서 내려와 젖갈시장을 지나 여객선 대합실 옆에 위치한 외포 관광안내소에서 받는다.
2. 강화 버스터미널과 서문 근처 강화고등학교 맞은편과 덕산 삼림욕장, 오상리 고인돌군, 외포항에 공중화장실이 있다.
3. 음식점이 내가면에 가야 있으니 미리 간식을 준비하고 늦은 점심을 먹던지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
4. 차편 : 신촌에서 출발하는 3000번 버스 타고 강화읍 버스터미널 하차
(1시간30분 소요, 배차간격 15분)
7호선 송정역에서는 88번과 3000번을 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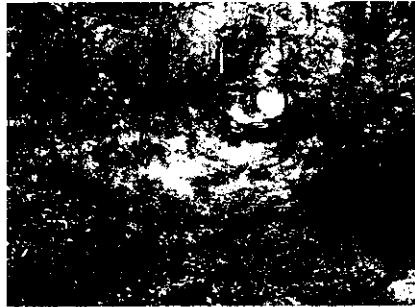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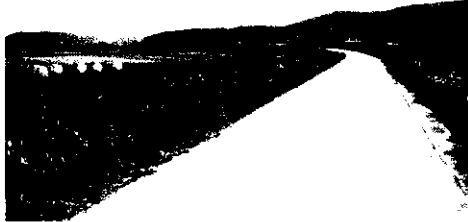


6코스 화남 생가 가는 길

암울했던 1906년 강화군 불은면 두두미 마을에 살던 구한말의 선비 화남 고재형은 환갑을 맞아 자신을 낳고 길러준 강화를 여행한다.

화남은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100여개의 마을과 산천을 돌아보며 강화의 아름다운 풍광과 풍습과 강화가 낳은 의인, 지사들을 256수의 7언절 구 시와 산문에 담아 '심도 기행'이라는 문집을 남겼다. 나들길 6코스는 화남이 살았고 '심도 기행'을 쓴 화남의 집과 묘소가 있는 두두미 마을로 화남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강화 버스터미널 밖으로 나와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버스들이 나가는 출구 쪽으로 향하면 풍물 시장으로 가는 길이다. 고식이 들판(조산평)을 가로 흐르는 동락천을 따라 가다 수중보로 건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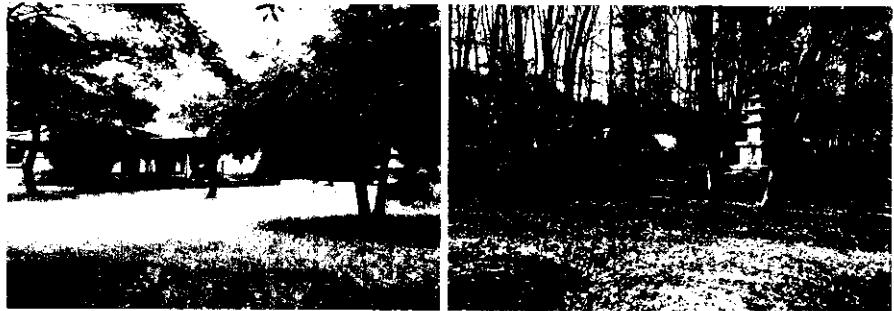


농로를 지나 창리 불 한증막 스파랜드가 있는 숲으로 들어서면 곧바로 약수터가 반긴다. 마늘을 쫓던 절구처럼 자그마하지만 사시사철 물이 찰랑찰랑 한 예쁜 샘물이다. 시원하게 목을 죽이고 산길을 오르면 토끼가 물을 먹으려 올 것만 같은 자그마한 자연 습지(연못)를 지나고 고려 시대에 쌓았다는 중성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토성을 밟으며 선원사지로 향한다.

산을 내려와 숲에서 나오면 확 트인 선원사 옛 터로 발걸음이 톡 떨어지고 덩달아 마음도 시원스럽다. 바로 아래에 자리한 지금의 선원사에서는 8월이면 세계연꽃음식축제가 열려 연꽃도 보고 맛난 먹거리로 입도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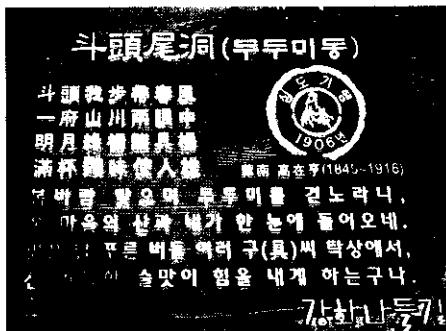
연밭을 지나면 남산대 마을의 정월하 선생 댁으로 들어간다. 나들이꾼에게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게 해주시고 차가 준비된 쉼터까지 내주신 마음 품이 넓은 분이시다. 연못과 석등이 있는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연리로 가자. 워가 급하랴 느적느적 놀면서 나들이 가는 길이 나들길인데.....



연리 고개에서 야트막한 산자락에 들어섰다 나가면 삼동암천에 기댄 너른 들판이다. 가을 이면 황금빛으로 여물어가는 알곡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다. 하얗게 빛나는 역사와 황금 들판에서는 누구라도 부자가 된 듯 마음이 넉넉해질 것이다.

들판을 지나면 두두미 마을(불은면 두운리)이다. 마을 뒷산이 호랑이 머리, 꼬리를 닮았다는 두두미 마을은 지금도 고씨, 구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고, 사시사철 꽃들이 피어나고, 아직 돌담이 있는 정겨운 마을이다. 4대 종부가 지키고 있는 화남선생의 옛집은 수리를 해서 모습이 달라졌지만 '심도 기행'을 집필하던 방도 말 매던 향나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화남을 만나고 능내촌을 지나 다시 야트막한 산 자락으로 들어선다. 호젓한 숲길을 지나 오두리 마을에 내려서면 다시 황금빛 들판이 염하의 짭 쪼롬한 바람에 흔들리며 영글어 가고 외성이 지나던 해안도로와 광성보가 멀리 보인다.

여행자를 위한
TIP!

1. 6코스 출발 스템프는 터미널 관광 안내소에서 찍을 수 있다. 관광안내소가 문을 열지 않는 아침 9시 이전에는 바로 앞의 준석상회에서 찍으면 되고 완주 스템프는 광성보 매표소나 광성보 한식전문식당에서 받는다.
2. 6코스도 중간에 음식점이 없어서 도시락을 미리 준비하거나 터미널, 강화읍, 풍물시장에서 미리 점심을 준비해야 한다.
3. 터미널과 두두미 마을, 광성보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선원사와 두두미 마을의 환경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4. 차편 : 신촌 출발 3000번 강화 버스터미널 하차 (소요시간 1시간40분/배차간격15분)
인천 터미널에서 오는 700번과 700-1번, 70번과 부평에서 오는 90번

7코스는 나들길에서 유일한 원점 회귀 코스다.

화도공영주차장에서 미을길을 따라 100년 역사의 내리성당을 지나면 상봉산 일만보길로 들어선다. 봄이면 달콤한 찔레 꽃향기가 코를 친다. 천남성, 애기았은부체, 죽도리풀 같은 야생화도 지천이다. 여름이 다가 올수록 계곡 아래에서 위로 나무를 타고 자라 오른 으름 덩굴이 온통 뒤덮어 진초록 잎들의 터널이 되고, 큼지막한 초록 커튼이 되어 하늘을 가린다.



물이 빠지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무인도 대섬에서 도시락을 펼쳐 놓고 소풍을 즐기는 것도 재미나다. 상봉산 자락 숲을 나오면 저 아래로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드넓은 갯벌이 기다린다.

제방을 따라 갯벌과 어깨동무하며 걷다보면 갯벌은 그저 물이 빠진 진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발자국 소리와 기척에 삽시간에 구멍 속으로 도망가는 수많은 게들과 둘째 가 맞으면 물 가장자리를 따라 다니며 부지런히 먹이 활동을 하는 철새들을 볼 수 있는 곳이고 갯벌을 뛰어 돌아다니는 말뚝망 등어들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갯벌을 헤집으며 다니는 갯지렁이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10평방킬로미터의 갯벌은 인구 10만명의 도시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하수종 말처리시설에 상당하는 정화 능력이 있다. 칠면초, 나문재 등의 염생식물과 기수역의 갈대, 모새달 등 수많은 식물들과 미세 규조류들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한 산소 배출 능력으로 갯벌에서 바닷가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은 열대우림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소의 양보다 많다고 한다. 갯벌을 지구의 허파이며 콩팥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다가 자연의 건강성을 알려주는 '지표 생물'인 새들이 번식과 월동을 위해 찾아오는 휴식처이고, 연안 어류의 산란장이며 자연재해의 완충지이기도 하다. 삶의 현장이며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자연원인 셈이다.

북일곶 돈대를 지나면 곧 갯벌 센터이다. 처음 나들길에 든 분들은 스쳐 지나가지 말고 꼭 센터에 들려 갯벌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권한다.



여차리 제방길에서 동막 해변으로 가는 7-1코스와 작은 매너미 고개를 넘어 화도로 회귀하는 7코스로 길이 갈린다.

초지진에서 시작하는 8코스와 만나는 7-1코스는 제방길로 이어진다. 제방길을 걸어 미루 선착장과 술숲 우거진 동막 해변을 지나 돈대 중에서도 풍광이 뛰어난 분오리 돈대에 서면 바다로 떨어지는 붉은 태양과 마주한다. 아름다운 노을은 보너스다.



제방길에서 농로를 따라 나오면 마니산 자락을 넘어가는 작은 매너미 고개다. 산을 넘어가는 뵈 넘이가 발음하기 쉬운 대로 굳어진 이름인데 흥왕리에서 넘어가는 고개가 더 높아 큰매너미 고개로 불린다. 여차리와 흥왕리에서 오르지만 산을 넘으면서 합쳐진다. 그래서 큰 흑은 작은 매너미 고개다. 자동차와 도로가 귀하던 시절 읍으로 흑은 화도 장님에 장보러 가던 길이고 학교 다니던 추억의 길이다. 지금은 포장이 되어 자동차가 다니고 늘어나는 팬선들로 마니산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지만 펼쳐진 조망과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다.

1. 화도 공영 주차장 옆 현성전기에서 출발과 도착 스템프와 여권을 받을 수 있고 7-1코스는 분오 어판장 내에 있는 대련횟집에서 원주 스템프를 찍어준다.
2. 화도 초등학교 옆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 갯벌센터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3. 분오 어판장 버스 정류장에서 빨간색 순환버스를 타고 온수리나 읍으로 가서 귀가한다. 순환버스와 군내버스 시간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4. 식사할 곳이 없어서 미리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장화리 해양환경탐구 수련원 방향으로 나가면 음식점(갯벌식당)이 있고 여차리 매너미 고개를 오르기 전 도로 옆에 가게가 있어 음료를 살 수 있다.
5. 신촌에서 마니산 가는 3000번 버스(배차간격 1시간)를 타거나 강화읍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42번 군내 버스를 타고 화도에서 하차. (하루 6회운행)

7코스 철새보러가는길

강화 남부지역과 석모도, 볼음도 등 주변의 섬 사이에 자리한 강화의 갯벌은 우리나라에서도 보존 상태가 양호한 몇 남지 않은 갯벌로 세계 5대 갯벌에 들고 정화능력은 가장 우수한 건강한 갯벌이다. 천연기념물 제 205호로 지정된 저어새들이 번식을 하고 시베리아, 알래스카 지역에서 번식하는 철새들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중 먹이를 먹고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신미양요의 격전지인 초지진에서 출발하면 서해바다와 만나는 염하와 드넓은 갯벌을 바라보며 간다. 겨울에는 두루미와 알락꼬리마도요 등의 겨울 철새들이 여름이면 저어새와 도요물새류의 여름 철새들이 부지런히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갯벌 보존과 저어새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하였다.

황산도에는 물길이 들고 나는 갯벌에 1km정도 왕복하는 테크가 깔려 있어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느릿느릿 걷고 싶은 나들이꾼을 유혹한다. 나들길은 데크를 살짝 비켜 야트막한 산길로 이어진다. 소황산 주차장에 난전을 벌인 아주머니들이 팔고 있는 이런저런 강화 농산물을 구경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면 동검도 갯벌을 길동무하여 분오리 돈대를 향해 가는 강화도 남단의 해안코스다.



1. 초지진 관광안내소에서 출발 스텁프와 여권을 받을 수 있다.
2. 황산도에는 초입과 어판장 근처에 두 곳의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3. 초지진과 황산도, 분도리 어판장, 선두어시장에 공중 화장실이 있고 초지대교 옆 인삼센터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소황산주차장에는 이동식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4. 신촌에서 출발하는 3100번 버스를 타거나 송정역에서 60~2번을 타고 초지진에 하차.(3100번 배차 간격 1시간 30분 소요, 60~2번 배차 간격 20분 50분 소요)





14코스 강화도령 첫사랑

강화도령 원범(철종의 아명)이 귀양살이 중 만난 강화처녀 봉이와 나누었던 뜻뜻한 사랑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이다.

원범이 5년간 살던 초가집을 왕이 된 후 기와집으로 지은 용흥궁(龍興宮)은 원범이 왕이 되던 1849년 봄부터 한줄기 밝은 빛이 비추어 용(龍)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더니 원범을 모셔갈 봉영단 일행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야 그 빛이 사라졌다고 해서 용(龍)이 일어난 집이라 했다고 한다.

봉이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청하동 약수터 위의 거북바위와 두 청춘 남녀의 데이트장소였던 남산 자락과 찬우물 약수터를 거쳐 철종 외가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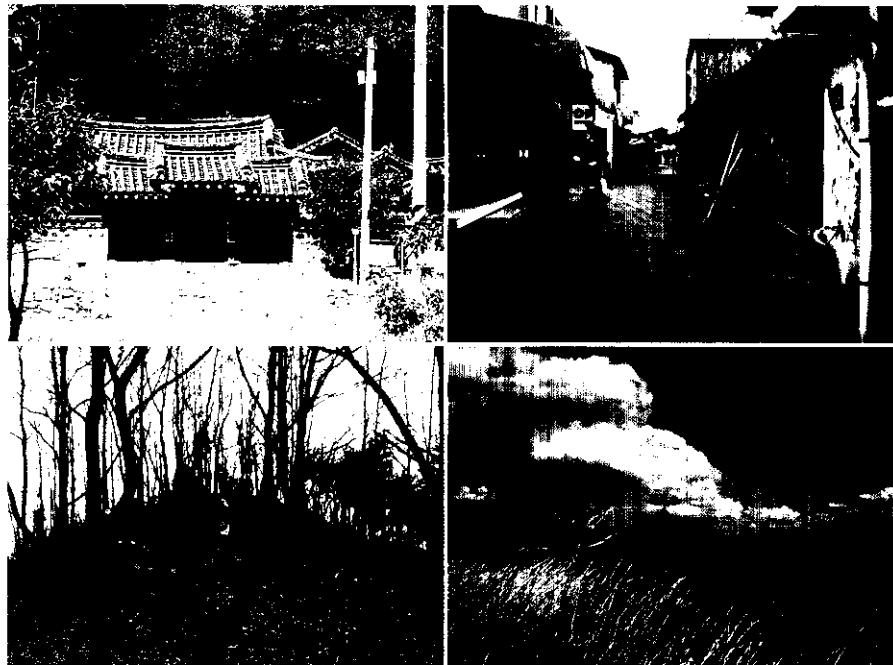
열아홉살에 왕이 된 원범은 외가 5대에 걸쳐 벼슬을 추증하고 전답을 하사하였다.

철종 4년에 지어 외삼촌인 염보길이 살던 집이다. 원래 H형 배치였다고 하나 일부만 남아 있는 행랑채와 안채, 사랑채, 누마루가 있는 △ 자 형의 구조이다.



9코스는 월선포에서 출발 스탬프를 찍는다. 숲 사이 오솔길을 따라 가면 안향이 원나라에 갔다 올 때 들어온 공자상이 봉안되었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동향교 솟을삼문이 맞이준다. 목은 이색이 머물렀던 화개사에 들렀다 정상에 오르면 교동섬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고 북녀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70년대로 시계를 돌려놓은 듯한 대룡시장의 풍경을 기웃거리면 1박2일에서 강호동이 머리를 깎았던 교동이발관 아저씨도 만나고 한 평 남짓한 점빵의 삼면이 시계와 부품으로 빼곡히 들어찬 시계방을 구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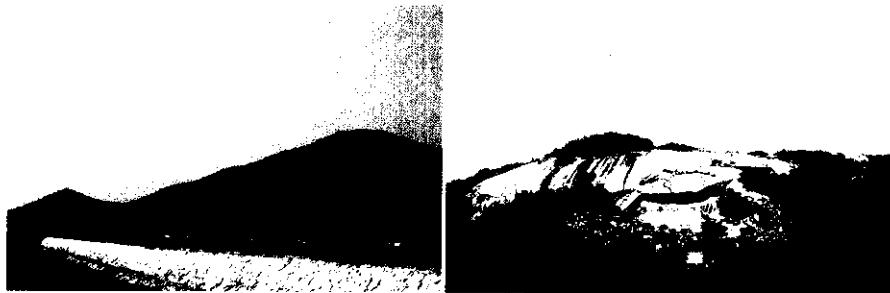
6.25때 활주로로 사용하였던 쪽 뻣은 도로를 따라 교동 벌판을 가로지르면 10코스 난정저수지다. 본도인 강화섬 보다 넓은 교동 들판에 물을 대는 고구 저수지와 난정 저수지는 거대한 호수를 연상시킨다. 나즈막하고 기다란 수정산의 편안한 능선과 마을, 바다가 어우러진 길을 걷다 보면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 시간이 천천히 간다.



11코스 석모도는 외포항에서 배로 10분이면 닿는 섬, 보문사가 위낙 유명해 강화도 하면 석모도와 여객선을 따라오는 수많은 갈매기가 연상되는 사람들도 많다.

긴 제방길을 가야하니까 무작정 걷기에만 열중하지 않고 가다가 멈춰 서서 주변의 풍광을 즐기면서 지루함을 덜어내자. 그렇게 내가 풍경이 되는 것이 걷기 여행의 묘미가 아니던가!

민머루해변을 지나 산길에 오르면 맛있하게 가던 기분을 단번에 씻어줄 바다 풍광이 펼쳐진다. 보문사 눈썹바위 부처님과 해수관음보살님께 인사하고 버스를 이용해 선착장으로 간다.



12코스 주문도는 지금은 외포항에서 2시간 넘짓 뱃길을 가야하는 한적한 섬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중국으로 가는 전진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섬이다. 대빈창이라는 이름이 그 옛날 번성했던 흔적이 있다. 해당화가 많아서 해당화 피고지는 섬이라고도 한다. 주문도리의 앞쪽 해변은 앞장술, 뒷쪽 해변은 뒷장술이다. 장술은 백사장이 길어 파도를 막아주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1923년 지어진 팔각지붕의 한옥 건축양식의 서도중앙교회도 주문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다.



13코스는 볼음도이다. 면적 6.3km²의 작은 섬이지만 백사장과 8백 살의 은행나무, 철새 등 풍경이 다채롭다. 외포항에서 한시간을 넘게 배를 타고 가는 볼음도는 임경업 장군이 중국 사신으로 갈 때 풍랑을 만나 보름동안 있으면 둥근 보름달을 봐서 그렇다고도 하고 들어가면 보름이 걸린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밀물 때는 섬 안으로 썰물 때는 해안으로 간다. 자연 해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아름답다. 무거운 등산화를 벗고 시원한 맨발로 백사장을 걸어보자.



여행자를 위한 TIP

1. 석모도와 주문도, 볼음도는 강화읍 버스터미널에서 외포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교동도는 창후리 선착장에서 배를 탄다.
2. 승선권 구입시 매표소에서 주는 출입신고서를 작성해 개찰구 검문 사병에게 제출해야하는데 교동도는 민복지역이어서 단체 출입시 5일전 관할부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1명이라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병대 제2사단 보안과 032-454-3220)
3. 석모도는 수시 운항, 교동도와 주문도, 볼음도는 하루 2번 운항한다.

• 가는 방법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은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두 가지 이므로 출발지와 더 가까운 대교를 건너면 된다. 버스는 서울방면 88번 버스와 일산, 인천 방면 80, 70, 90번 버스들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코스 정보

제1코스 삼도역사문화길 18km/ 6시간

강화버스터미널 ~ 동문 ~ 성공회강화성당 ~ 용흥궁 ~ 고려궁지 ~ 북관제묘 ~ 강화향교 ~ 은수물 ~ 북문 ~ 북장대 ~ 오읍약수 ~ 연미정 ~ 옥개방죽 ~ 갑곶 돈대

제2코스 호국돈대길 17km 5시간50분

갑곶돈대 ~ 용진진 ~ 용당돈대 ~ 화도돈대 ~ 오두돈대 ~ 광성보 ~ 용두돈대 ~ 덕진진 ~ 초지진 ~ 온수리

제3코스 능묘가는길 16.2km/ 5시간30분

온수리 버스터미널 ~ 전동사 ~ 온수리 성공회 성당 ~ 길정 저수지 ~ 이규보 묘 ~ 곤릉 ~ 석릉 ~ 가릉

제4코스 해가지는 마을길 11.5km/ 3시간 30분

가릉 ~ 정제두묘 ~ 하우약수터 ~ 건평나루 ~ 건평돈대 ~ 외포여객터미널 ~ 외포어시장 ~ 망양돈대

제5코스 고비고개길 20.2km/ 6시간 40분

강화버스터미널 ~ 남문 ~ 서문 ~ 국화저수지 ~ 흥릉 ~ 오상리고인돌군 ~ 내가시장 ~ 덕산산림욕장 ~ 곶창 굿당 ~ 망양돈대 ~ 외포여객터미널

제6코스 화남생가 가는길 18.8km/ 6시간

강화 버스터미널 ~ 약수터 ~ 선원사지 ~ 삼동암전 ~ 밝은마을 학교 ~ 두두미마을 ~ 화남생가 ~ 능내촌 입구 ~ 오두마을 ~ 광성보

제7코스 갯벌보러 가는길 20.8km/ 6시간40분

화도공영주차장 ~ 내리성당 ~ 일만보길 입구 ~ 일몰조망지 ~ 북일곶돈대 ~ 갯벌센터 ~ 마니산청소년수련원 ~ 화도공영주차장

제7-1코스 새마대면 가는길 20.5km/ 6시간40분

화도공영주차장 ~ 내리성당 ~ 일만보길 입구 ~ 일몰조망지 ~ 북일곶돈대 ~ 갯벌센터 ~ 미루돈대 ~ 문오리돈대

제8코스 절새부리 가는길 17.2km/ 7시간 30분

초지진 ~ 황산도선착장 ~ 소황산주차장 ~ 섬암교 ~ 동검도입구 ~ 선두어시장 ~ 후애돈대 ~ 분오리돈대

제9코스 교동 대을세 길 16km/ 6시간

월선포선착장 ~ 교동향교 ~ 화개사 ~ 화개산 정상 ~ 석천당 ~ 대룡시장 ~ 남산포 ~ 교동읍성 ~ 동진포 ~ 월선포선착장

대룡리 ~ 난정저수지 ~ 수정산 ~ 금정굴 ~ 애기봉 ~ 죽산포 ~ 머르메 ~ 양갑리마을회관 ~ 미곡처리장 ~ 대룡리

석모도 선착장 ~ 매음리선착장 ~ 어류정향 ~ 민머루해변 ~ 어류정수문 ~ 보문사

주문도선착장 ~ 배너고개 ~ 주문저수지 ~ 서도초.중.고입구 ~ 주문진 ~ 서도중앙교회 ~ 해당화군락지 ~ 살구지 ~ 뒷장술 ~ 고마이 ~ 대빈창 ~ 주문도선착장

볼음도선착장 ~ 물엄꽃 ~ 조개골 ~ 영뜰 ~ 거무골 ~ 요옥산 ~ 은행나무 ~ 진뜰 ~ 밭바위뜰
~ 갯눈뜰 ~ 당아래마을 ~ 볼음도 선착장

용총궁 ~ 청하동 약수터 ~ 남장대 ~ 찬우물약수터 ~ 철종외가

구간마다 가게가 없는 곳 도 있어서 생수와 도시락은 필요하다. 구간마다 미끄러운 구간도 있어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강화나들길(032-934-1906) 강화관광개발사업소(032-930-4331) 강화터미널 관광안내소(032-930-3515)

• 숙박

강화도는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은 펜션이 많다.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기 힘들다. 강화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음식

강화꽃게집(032-933-2010)은 꽃게탕 전문점으로 직접지은 농산물로 밥과 찬을 만든다. 김정콩을 직접 갈아 만든 손두부와 직접 쑨 고구마묵은 사철 제공되는 찬이며 그 외 제철 해산물을 서비스해 올린다. 꽃게탕/찜 소 4만원부터 특 7만원까지 간장게장은 1인분에 2만원

• 주변관광명소

오상리고인돌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5개의 고인돌군 중 하나이다. 고려산(海拔436m) 서쪽 낙조봉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강화아트미애월드는 강화약쑥 테마공간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주목9000주로 만든 온세미로공원과 악쑥을 이용한 요리와 체험장이 마련 되어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괴산 산막이옛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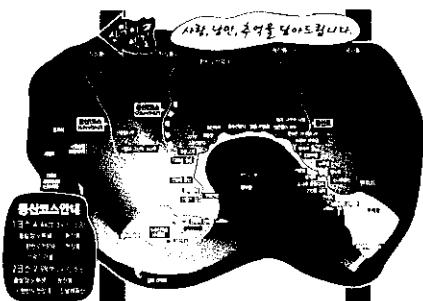
녹색생태관광사업단
원광희 · 박광석 · 김여림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됐던 총 길이 10리의 옛길로서 흔적처럼 남아있는 옛길에 덧그림을 그리듯 복원된 산책로이며 옛길 구간 대부분을 나무방 침(데크)로 만드는 친환경 공법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살아있는 자연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뿐만 아니라 산막이옛길을 따라 펼쳐지는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은 괴산의 백미로 꼽을 수 있는 곳이다.

지난 1957년 초 순수 우리 기술로 최초 준공한 괴산댐은 이 지역의 상징적인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댐 주변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생태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더욱 값진 곳이며, 친환경 공법으로 괴산댐을 끼고 조성된 산막이옛길은 괴산댐 호수와 어우러지며 한국의 자연미를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산막이 옛길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이곳에 반하게 된다.

괴산 지역은 어디를 가나 싱그러운 바람과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계곡이 많아 괴산만이 갖고 있는 자랑이다. 그것은 청정 괴산을 대표하는 트레이드마크로 생각할 정도로 청정과 자연의 수려함이 극치를 이뤄 전국 최고라는 것이 괴산에 와본 사람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괴산에 산막이옛길이라는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하였다.

수풀냄새 싱그러운 산바람과 산들거리며 불어오는 강바람이 만나는 그 길을 걸어보면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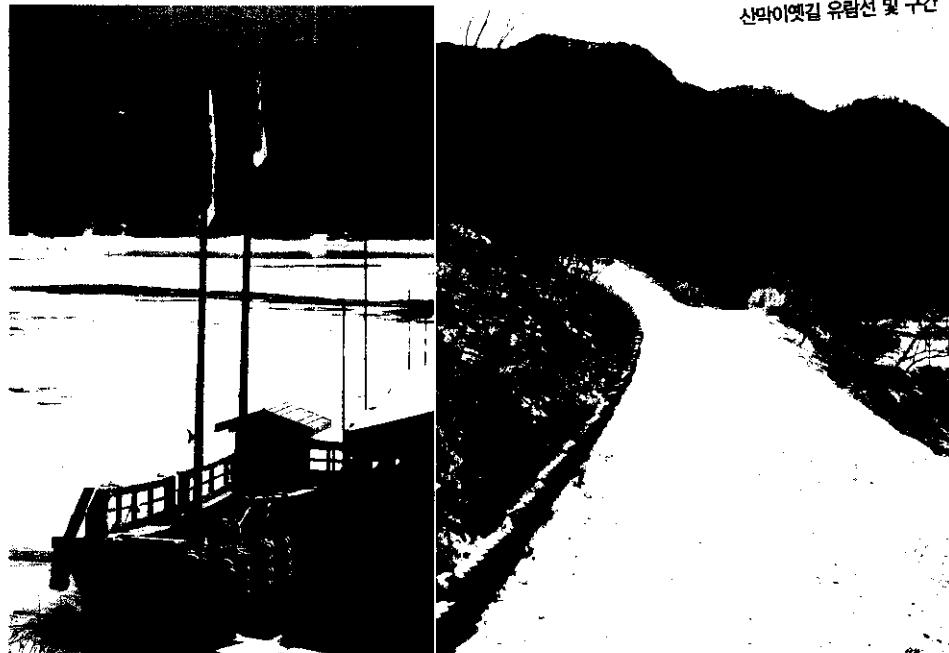
연인과 함께라면 열려있지만 자연이 펼쳐주는 둘만의 데이트코스가 되고, 친구나 가족들과 걸으면 맞춰지는 발걸음에 마음까지 버무리게 될 맞춤길이기도 하다.

현재 산막이옛길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주말에는 1일 방문객이 약 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어디를 가나 싱그러운 바람과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계곡이 많아 괴산만이 갖고 있는 자랑이다. 그것은 청정 괴산을 대표하는 트레이드마크로 생각할 정도로 청정과 자연의 수려함이 극치를 이뤄 전국 최고라는 것이 괴산에 와본 사람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괴산에 산막이옛길이라는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하였다.

수풀냄새 싱그러운 산바람과 산들거리며 불어오는 강바람이 만나는 그 길을 걸어보면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괴산의 자연병풍 산막이옛길

산막이옛길 유람선 및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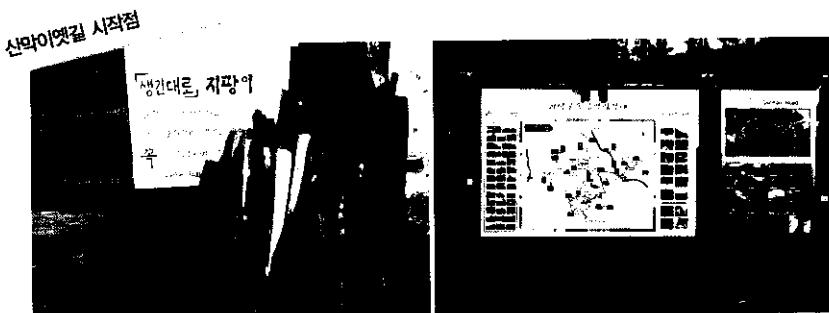
산막이옛길은 농촌마을개발종합사업으로 십리옛길을 복원해 하늘과 땅, 산과 강 바람, 바위와 소나무, 산새와 들꽃이 조화를 이루며 도보여행자들에게는 남녀노소 누구더라도 어렵지 않은 완만한 경사로와 지루하지 않도록 곳곳에 재미를 심어 흥미로운 길여행을 선사하고 있다.

구간 또한 육로만으로의 여행은 최대 3시간, 육로와 뱃길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산 깊숙한 곳에서 장막처럼 주변 산들이 둘러쌓여 있어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산막이라 하여 불리우고 있으며 고산호를 배경으로 전경을 살펴보면 자연이 허락하는 병풍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산막이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승선하고 산막이옛길의 전경을 바라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다.



7월 1주 20일 일정

구간 또한 육로만으로의 여행은 최대 3시간, 육로와 뱃길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산 깊숙한 곳에서 장막처럼 주변 산들이 둘러쌓여 있어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산막이라 하여 불리우고 있으며 고산호를 배경으로 전경을 살펴보면 자연이 허락하는 병풍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산막이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승선하고 산막이옛길의 전경을 바라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여행자를 위한 P

1. 산막이옛길이 시작되는 곳인 관광안내소에서는 등산스틱을 구비하지 못한 도보여행객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손수 제작한 지팡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 후에는 다음 여행객들을 위해 반납하여야 한다!
2. 관광안내소에서 차들바위 선착장으로 약 50m정도 이동하게 되면 화장실이 위치해 있다. 산막이옛길 코스 전 구간에 공용화장실은 단 두 곳으로 도보길이 시작되는 곳인 차들바위 선착장과 종료되는 곳인 산막이 선착장에 위치해 있다. 도보길 코스 중에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반드시 이 두 곳에서 해결해야한다!
3. 간단한 식사나 간식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매점 또한 도보길이 시작되는 곳과 종료되는 곳에 위치되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추억과 만나는 숨수는 산악의 옛길

선착장을 지나 작은 언덕을 따라 걸어 올라간다. 처음 만나게 되는 명소는 고인돌 쉼터와 연리지이다. 고인돌 쉼터는 고인돌형태의 바위들이 주변에 돌무지와 큰 뽕나무, 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옛날 사오랑 서당이 여름철 무더위 시 야외 학습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연리지는 뿌리가 서로 다른 나무의 가지가 한 나무처럼 합쳐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래서인지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거나 소망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의 나무 판넬이 걸려있다.

발길을 옮겨 바람에 묻어오는 솔향기를 맡으며 소나무 동산에 들어오자 괴산호가 눈에 들어온다. 경치와 어울리는 시가 전시 되어있고 곳곳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벤치가 자리 잡고 있다.



고인돌 형태의 바위들과 벤치에서 바라본 괴산호



산이 내게 올라

– 김문구

눈꽃 피어나는 골짜기

빈 지게지고 굽이굽이

당신을 따라 오르던 옛길

얼어붙은 강물아래

나뭇짐지고 다가서는 당신 모습 보인다

노루샘에 엎드려

허기진 땅방울 씻어내고

산이 일어선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한 끼 생계 짊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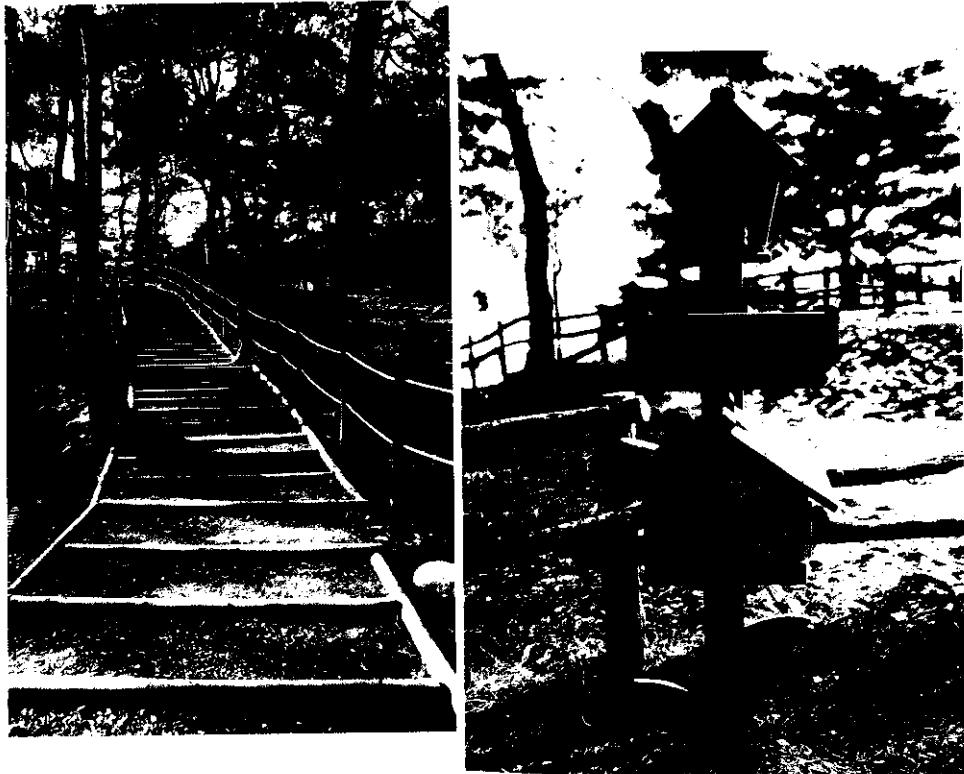
산이 걸어온다

빼곡하게 들어 찬 나무숲에

바람으로 머물다 가는 아버지

가쁜 숨 소리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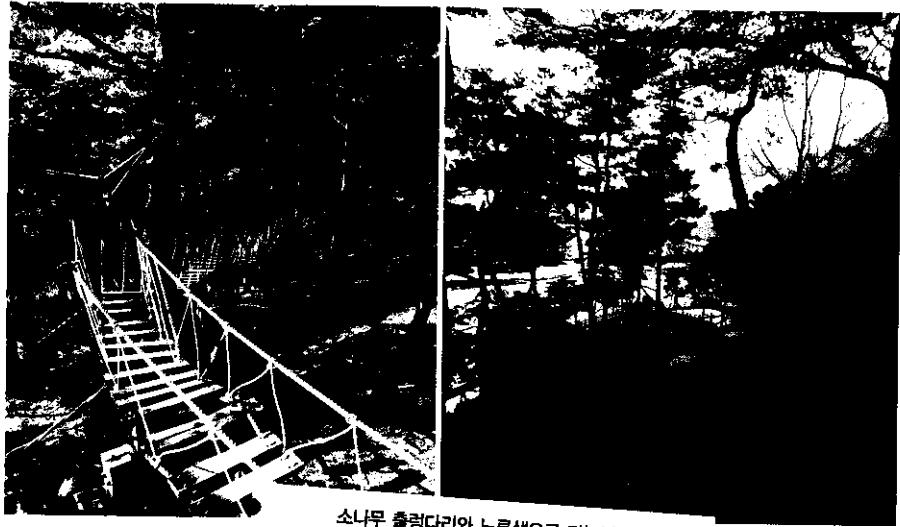
시를 감상하고 몇 발짝 안가서 우체통 하나가 눈에 띈다. 엽서를 써서 이 우체통에 넣으면 소중히 전달해 준다고 한다. 멋진 풍경을 보면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지는데 스마트폰으로 찍고 SNS를 통해 손쉽게 보낼 수 있게 된 요즘 손으로 쓴 엽서를 보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누군가 보면 뭐 이런 수고스러움을 할까 싶지만 무조건 쉽게 보낸다고 해서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쉽게 보내진 추억은 그만큼 금방 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느리게 걸으며 엽서 하나 보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소나무 동산 오르는 계단과 엽서를 보낼 수 있는 우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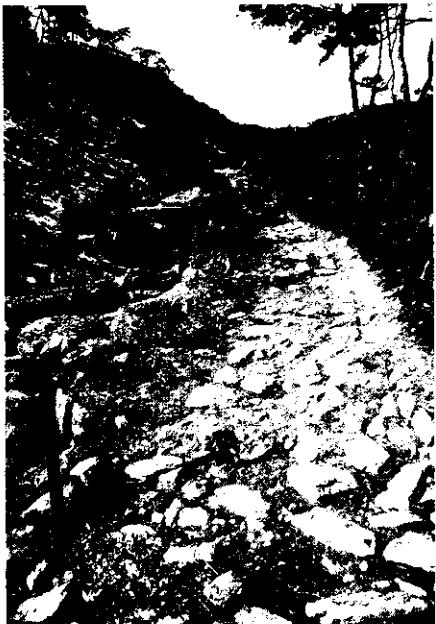
출렁다리와 양세루

소녀의 감성으로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면 소나무와 소나무를 연결하여 만든 소나무 출렁다리를 걸어가면서는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출렁다리는 괴산 산막이 옛길의 대표적인 명소 중에 하나이다. 길이가 50m나 되는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 시작점에 올라서면 두려움이 앞선다. 그러나 중반쯤 갔을 때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자신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만큼 재미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줄지어 건너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산책로라고해서 좋은 공기 마시며 좋은 경치 보며 걸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출렁다리 하나로 길 자체가 주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출렁다리를 건너 조금만 걸어가면 노루, 토끼, 펭 등 야생동물들이 지나 다니면서 목을 츄이는 노루샘 옆으로 등산로가 보인다. 언뜻 보기에도 가파른 등산로 옆으로 자그마한 계곡물이 흐른다. 등산로는 2개의 코스로 나누어져있고 1코스는 4.4km(3시간 소요)의 길이로 노루샘을 출발해 등잔봉, 한반도 전망대, 천장봉, 산막이 마을로 내려오는 코스다. 2코스는 2.9km(2시간 소요)구간에 내려오는 길만 진달래 등산으로 내려온다. 등산로도 험하지 않고 괴산호를 위에서 바라 볼 수 있어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소나무 출렁다리와 노루샘으로 가는길

연화담은 산막이 마을 사람들이 벼를 재배하던 곳으로 강물을 끌어다 쓸 방법이 없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의존하여 모를 심었던 곳이다. 길을 조성하면서 새로이 연못을 만들고 연꽃을 심어놓았다. 연화담을 지나 호수 쪽으로 가면 망세루라는 정자가 나온다. 남매바위라 불리는 바위 위에 정자를 만들어 비학봉, 군자산, 옥녀봉, 아가봉과 좌우로 펼쳐진 괴산호를 볼 수 있는 정자다.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잊혀지고 자연과 함께 평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등산로 시작점과 망세루

1. 출발지로 되돌아와야 하는 산막이 옛길은 등산로, 산책로, 유림선등 다양한 코스가 있어서 길의 선택이 가능하다.
2. 소나무 출렁다리는 나무판이 띠엄띄엄 있어서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12세 이하 아동은 이용이 금지되고 교차가 되지 않아서 시작점에서 이용해야한다.
3. 이용자가 많을 시에는 혼들림 현상이 있어서 앞뒤 간격 5m 이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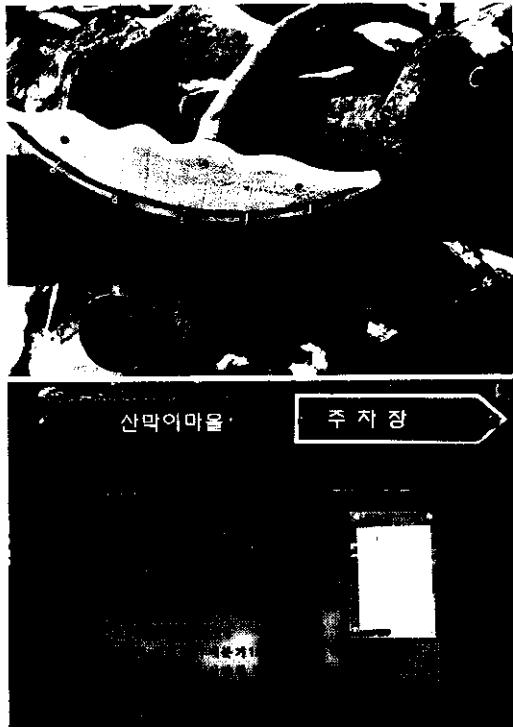
값은방 10약수와 호수전망대

이 지점에서부터 친환경 공법으로 만든 데크길이 시작된다. 어린이나 노약자도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끝나는 지점까지 조성되어있다. 이런 인공적인 길은 자칫 지루하거나 심심할 수 있는데 산막이 옛길은 스토리텔링사업을 통해 걸어가는 내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1968년까지 호랑이(표범)가 실제로 드나들었다는 굴 안에는 모형 호랑이가 떡하나 안주면 잡아먹을 기세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금방이라도 하늘을 날아오를 것만 같은 매의 형상을 하고 있는 매 바위, 산막이를 오고 가던 사람들이 여우비와 여름 한낮에 더위를 피하며 잠시 쉬어가던 바위굴을 지나가다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엉덩이를 내밀고 있는 형상을 한 참나무가 지나가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대부분 자연보호를 위해 나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지만 미녀 엉덩이 참나무 살짝 만져보셔도 돼요 라는 안내판이 흥미롭다.



호랑이굴, 옷 벗은 미녀 참나무, 매바위

목이 마를 때 쯤 앉은뱅이 약수라는 명소가 나타난다. 앉은뱅이가 이곳의 물을 마시고 벌떡 일어났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참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사이로 물이 흘러나온다. 한겨울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여행자에게 먹는물을 제공하는 길은 등산로가 아니고서야 자주 볼 수 없는데 산책로에서 만나니 더 반가웠다. 물이 흐르는 길은 호수로 바로 흘러나갈 수 있게 나무수로를 통해 길을 가로질러 내려간다. 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지나갈 수 있어서 이름다웠다.



50
51

앉은뱅이 약수는 과산군에서 자정 관리하는 깨끗한 물이다.

산막이 옛길 중간지점인 호수전망대에 도착하면 좌우로 전개된 괴산호를 바라보며 쉬어가기 좋다. 전망대에는 데크 사이로 자라고 있는 나무가 일품이다. 나무를 자르지 않고 데크를 잘라 주위에 벤치와 테이블을 놓았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길을 걸으면서 많이 눈에 띄었다. 산막이 옛길은 바위가 유독 많은데 낙석주의, 머리조심 이란 안내표지판과 곳곳에 부착된 안내표지판이 산막이 옛길을 사랑하는 애정이 담겨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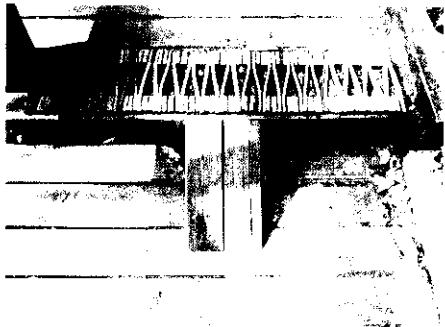


호수전망대에서 바라본 괴산호와 여행객을 배려한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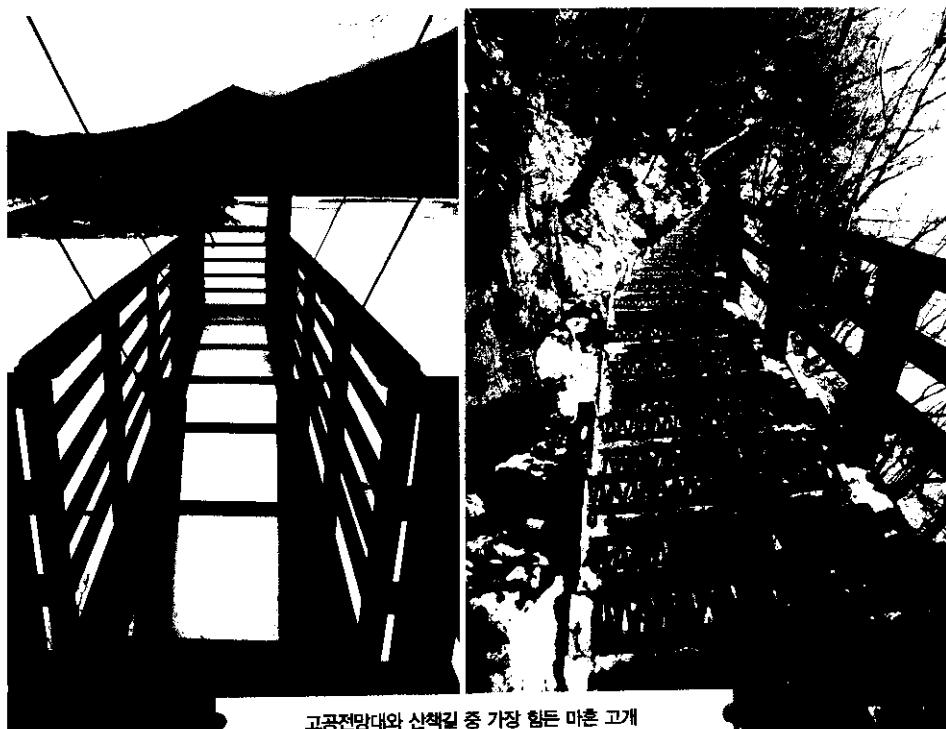
여행자를 위한 Tip

1. 산막이 옛길은 자전거여행자를 위해서 계단이 나올 때마다 경사로를 마련해 두었다.
2. 매 바위를 볼 때 발바닥 표시가 있는 부분에 서 위를 올려다보면 매의 형상이 더 잘 보인다.



40m 절벽 위 고공전망대

발길을 옮겨 오르락 내리락 언덕을 넘어 걷다보면 뾰 산자 형상을 한 괴산바위가 나온다. 자세히 보면 모양만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해독할 수 없는 상형문자가 신비롭게 새겨져 있다. 괴음정과 고공전망대는 괴산호를 아찔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다. 괴음정은 느티나무 위에 전망대를 만들어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호수가 운치를 더하고 있다. 고공전망대는 깍아지른 40m 절벽위에 세워진 망루로 청산 속 공중 떠 있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게다가 바닥이 투명해서 호수를 바로 내려다 볼 수 있다. 수몰이 된 뒤에 이슬아슬 바위 벼랑길을 걸던 사람들이 한눈을 팔다가 떨어져 죽기도 했던 위험한 길이 지금은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고, 고공전망대라는 이름으로 여행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전망대에서 호수를 내려 보았다면 데크 구간중 가장 높은 40계단으로 이루어진 마흔 고개에서는 데크를 걸어 올라가면서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호수와 바위절경을 만나 볼 수 있다. 산책길 중 가장 높이 힘든 구간이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선물해준다.



고공전망대와 산책길 중 가장 힘든 마흔 고개

등산로와 합쳐지는 진달래 동산은 산막이 옛길이 거의 끝나는 지점으로 소나무 숲 아래 진달래 군락지로서 꽃이 피는 시기에는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위는 푸른 소나무, 밑은 붉은 진달래가 장관을 이루게 된다. 기자연못 다리를 건너 걸어가면 선착장이 보이고 산막이 마을에 도착이다. 산막이 마을 안에는 주민들이 살면서 만박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산책을 마치고 간단히 막걸리와 빈대떡을 먹고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는 길이 지루하다면 유람선을 타고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걸어갈 때와는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산막이 옛길의 다양한 표정을 볼 수 있다.

산막이 마을 선착장 화장실





여행자를 위한 Tip

1. 괴산바위는 금방 뒤 산 자를 찾기 어렵다. 제일 잘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바위의 왼쪽 편에서 볼 때 제일 잘 보인다.
2. 괴음정 이용시에는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3. 산막이 선착장에서 운행하는 유람선은 두 척이다. 비행봉호는 차돌바위선착장까지 편도 유람선 이용이 가능하다. 운항시간은 am9:30 ~ pm5:00 요금은 어른 5,000원, 어린이(13세이하) 3,000원이다. 문의(010-6229-0346 비행봉호 선장님) 대운호는 산막이선착장에서 새뱅이(회향)어를 거쳐 차돌바위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인데 길로는 갈 수 없는 괴산호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어른 10,000원 어린이(13세이하) 5,000원이다. 문의(080-200-6745 무료전화) 두 척 모두 동절기(12월 ~2월)에는 운항하지 않는다. 호수가 얼기 때문이다.

• 가는 방법

자동차 : 괴산IC로 나와 19번 국도와 525번 지방도를 이용해 칠성 소재지까지 간다. 괴산댐, 칠성면 외사리 방면으로 5분 거리이다. 위치는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546-10이다. 네비게이션에 입력하면 주차장까지 안내해준다.

버스 : 괴산행 시외버스를 이용한다. 괴산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수전가는 버스는 1일 8회(6:30, 7:50, 11:10, 12:30, 14:00, 15:10, 17:10, 17:50) 운행된다.

• 코스 정보

난이도 : 하

산책로 : 4km(3시간 소요)

등산로 : 1코스 4.4km (3시간소요), 2코스 2.9km (2시간소요)

준비물 : 산책로라면 가벼운 운동화도 괜찮고, 등산로는 등산화, 스틱이 필요하고 등산복은 착용하는 것이 좋다. 등산객은 생수 한 병 필요하지만 산책로 여행객은 중간에 약수터가 있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 칠성면사무소(043-832-5301)

• 숙박

맑은 공기와 새소리, 벌레소리를 들으며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산막이 마을에 있는 민박집을 이용하기 추천한다. 비학봉마을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도 있다. 예약 가능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043-832-3527)

• 음식

우리매운탕(043-834-0006)은 충북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매운탕 집이다. 1급수에 만 산다는 쏙가리와 동자개를 넣고 끓여낸 매운탕이 일품이다. 괴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서울식당(043-832-2135)에서는 30년전통 괴산의 별미 올갱이해장국을 맛볼 수 있다.

• 주변관광명소

쌍곡구곡은 조선시대 수많은 유학자와 문인들이 쌍곡의 산수경치를 사랑하여 이곳에서 소요하였다 고 한다. 문의 속리산국립공원 쌍곡분소 043)832-5550 산막이 옛길 인근에 위치한 칼론계곡은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거침없이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는 자연의 신비를 새삼 느끼게 하는 곳이다.

남해바래길은 삶의 길이다.



남해바래길 문 찬 일

남해바래길은 예로부터 이어져온 남해인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삶을 고스란히 담고 남해만의 천진한 역사를 느끼며, 남해군의 아름다움과 남해인의 애잔한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다듬은 이야기 있는 도보여행길이다. 남해바래길은 2010년,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에 선정되어 8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총 120km, 40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제1코스는 평산향에서 사촌해수욕장을 거쳐 가천 다행이마을로 이어지는 남해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척박한 생활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지겟길을 통하여 우리 선조들의 억척스러운 삶을 느낄 수 있다. 각종체험(다랭이 논 만들기, 어촌체험 등)과 동돌해변의 파도를 연인삼아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제2코스는 빼어난 해안선과 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촌마을들의 인심과 맛을 느끼며, 고려시대 때부터 군마를 기르던 지역으로 현재 유적 등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말발굽모양의 지형과 적량성터를 통하여 선조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제3코스는 고사리밭 길이란 이름처럼 산과 밭으로 거미줄처럼 이어진 고사리밭길을 통해 아름다운 해안과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선사시대의 공룡발자국화석을 따라 걸으며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길로서 창선동대만 휴게소까지 이어지며, 국사봉 자락에 고사리가 많아 고사리밭길로 명명되었다. 창선 동대만은 생태계의 지표인 진지리(수중식물)가 많아 '진지리길'로 명명된 제4코스는 생태계가 잘 보전된 바다를 가지고 있다. 바닷가 미을인 곤유, 당항, 냉천어촌체험마을을 경유하면서 갯벌체험 등을 통한 자연학습을 겸할 수 있는 길이며, 창선 대교타운과 창선~삼천포 대교관광을 겸할 수 있는 길이다. 제4코스까지는 2010년에 조성된 코스이고 2011년 조성된 총 4개의 코스는 앵강 다숲길, 구운몽길, 섬노래길, 화전별곡길 이 있다.

앵강 다숲길은 지중해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조용한 호수 같은 앵강만을 중심으로 남면, 이동, 상주면을 걸쳐 9개의 마을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길이며, 각 마을마다 방포림을 조성하여 농토 보호와 쉼터로 활용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고향 같은 길이다.

구운몽길은 현재 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인 길로, 서포 김만중 선생의 유배지로 유명한 노도와 벽련마을을 시작으로 여러 유배객들의 문학작품의 바탕이 된 직한 금산과 상주 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구운몽의 성진이 팔선녀와 한바탕 꿈을 꾸는 듯하고 신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젖게 하는 남해 바다의 절경들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구운몽길을 통해 만끽할 수 있다.

섬노래길은 남해안의 어업전진향인 미조향을 중심으로 송정솔바람해변과 각가지 동물의 모양을 한 다양한 섬들의 이야기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걸을 수 있으며, 특히, 미조활어위판장과 미조향의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 이 구간은 전 구간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다.

화전별곡길 금산 자락으로 둘러싸인 내산을 중심으로 천하동돌해변에서 심동 봉화마을로 이어지는 바다, 산, 강, 들판을 두루 접하면서 자암 김구 선생의 화전별곡의 유유자적한 삶의 느낄 수 있으며, 내산의 편백 숲과 꽃내(화천)의 맑은 물, 원예예술촌, 독일마을, 물건방조어부림을 통해 편안한 휴식과 웰빙의 고장으로 화전(花田) 옛 이름의 본뜻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

남해의 어버이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바다를 생명으로 여기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둘째에 맞추어 소쿠리와 호미를 들고 갯벌과 갯바위에서 해초류와 해산물을 담아 왔던 행위를 “바라”라 하였다.

오로지 성공과 성취를 위한 뜨거운 열망이 아니라 척박한 자연환경에 스스로를 길들이며 살아온 남해인의 모습에서 ‘산다는 일’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가파른 산기슭에 계단식 다랑이 논과 밭을 일굴 수밖에 없었고, 추우나 더우나, 바람 부나 눈이오나 바다로 나가야 했던 척박한 환경의 산물이며 엄숙한 삶의 상징이 남해바래길에 담겨있다.

남해바래길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사부작사부작 걸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고 성찰할 수 있으며, 걸으면 걸을수록 편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바르면 빠를수록 삭막해진다”

“느리면 느릴수록 행복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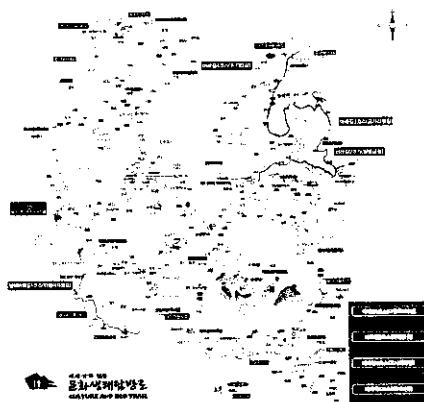
“남해바래길은 삶의 제안이다”

“남해바래길은 남해인의 삶을 체험하는 길이다”

남해바래길의 주제곡은 동요 “섬집아기”이다.

동요를 들어 보면 남해바래길의 모습과 의미가 그대로 전달된다.

남해바래길 안내도



남해 바래길 지도와 바래하는 모습



남해바래길은 어떻게 걸어도 상관없다. 어제와는 또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느린 걸음으로 걷던, 퍼질러 앉아 놀던, 아장아장 걷던, 성큼성큼 걷던, 빠르게 걷던... 마음 가는대로 자유롭게 걷다보면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는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이 전부 내 것이 되는 자유를 누린다.

작은 풀한 포기, 보일 듯 말듯한 야생화 꽃한송이, 갓 피어나는 연약한 가지의 새순에서도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감동을 받으며, 내가 어디에 있던, 그것이 무엇이던 마음이 열려있는 넉넉한 이에게는 축복이 되는 남해바래길이다.

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남해바래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편안하고 포근한 품 속 같이 부드러운 치맛자락을 닮은 보물섬 남해군의 해안을 걸으면서 여태까지 살아 온 수많은 지난날들 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남해군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는 모순의 착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남해군의 아름다운 속살을 보여주고 싶었다.

타 지역에서는 전혀 느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남해바다와들과 산이 만나는 풍경, 그리고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을 정답게 만날 수 있는 곳, 오랜 역사를 걸쳐서 바다가 만든 조약돌과 뭉돌, 모래를 먼저 보고 걸으면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남해군을 자랑하고 싶었다.

남쪽바다를 끙땅 다 담고 있는 남해바다와 땅 끝이 만나는 해안 끝자락을 따라 걸으며 신선한 바닷바람, 신선한 갯내음, 신선한 바다 빛깔, 신선한 파도 소리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 온 일상의 삶에 여유와 휴식을 주는 남해바래길을 꿈꾸고 있다.

남해지역민이 삶을 위하여 만들어졌던 길, 학교 다니던 길, 논밭으로 오가던 그 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길이 숲에 묻히고, 잡초에 덮여 있던 길을 “보물찾기”를 하듯이 찾고 들추어 이어낸 남해바래길을 사부작사부작 걸으면서 아름다운 풍광에 취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뿌듯한 보람으로 충만 되어 짜릿한 흥분까지 느낀다.



각양각색의 빛깔을 담은 다랭이지길

남해바래길 1코스는 각양각색의 빛깔과 색상과 모양을 담고 있다.

남해군의 해안은 남성스런 기상을 닮은 웅장하고 거대한 갯바위의 절벽이 펼쳐지는 동해와 저녁놀을 붉게 물들이는 일몰을 감상할 수 있고 은빛모래가 발을 간질이는 모래사장과 파도를 만나 교향곡의 하모니를 이루는 조약돌과 뭉돌을 만나는 서해를 다 담고 있다.

요염한 자태를 뽐내는 처녀의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걸으면 아기자기한 해변에서 만나는 다양한 풍경은 매력적으로 여운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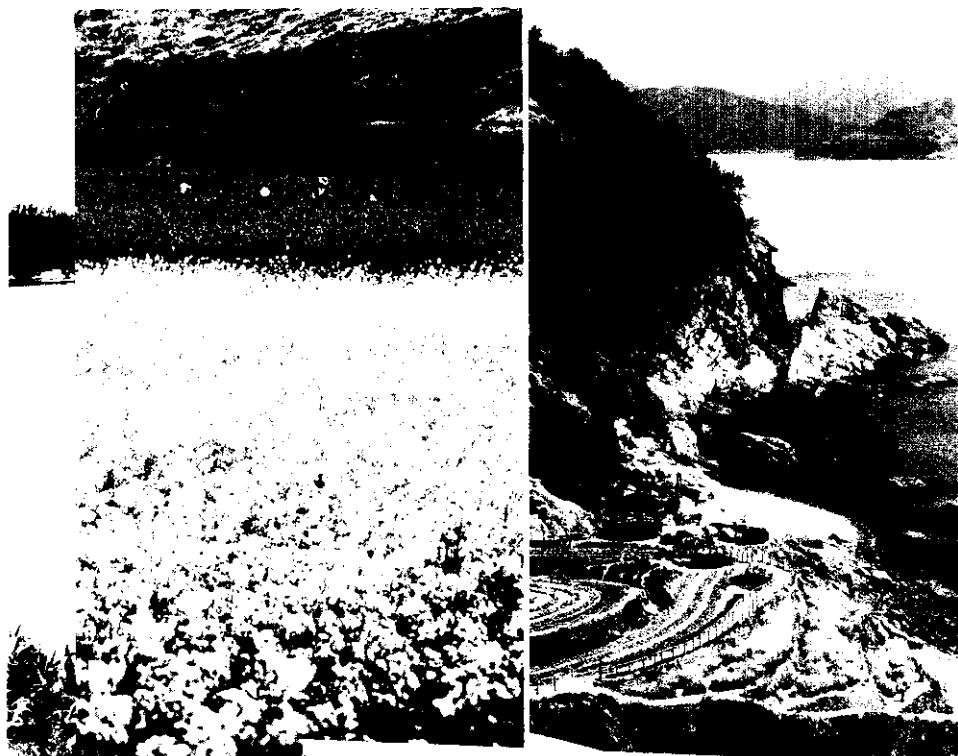
1코스에서 바라보는 남해바다

굽이굽이마다의 고개 언덕에서 펼쳐지는 호수같은 남해바다의 빛깔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 달리지며 걸음을 따라온다.

숲속을 오르기도 하며 나무 사이로 파도소리를 듣기도 한다.

무릉도원이다. 봄이면 유채꽃이 들판에서 노랗게 피어나 파란 마늘과 어울려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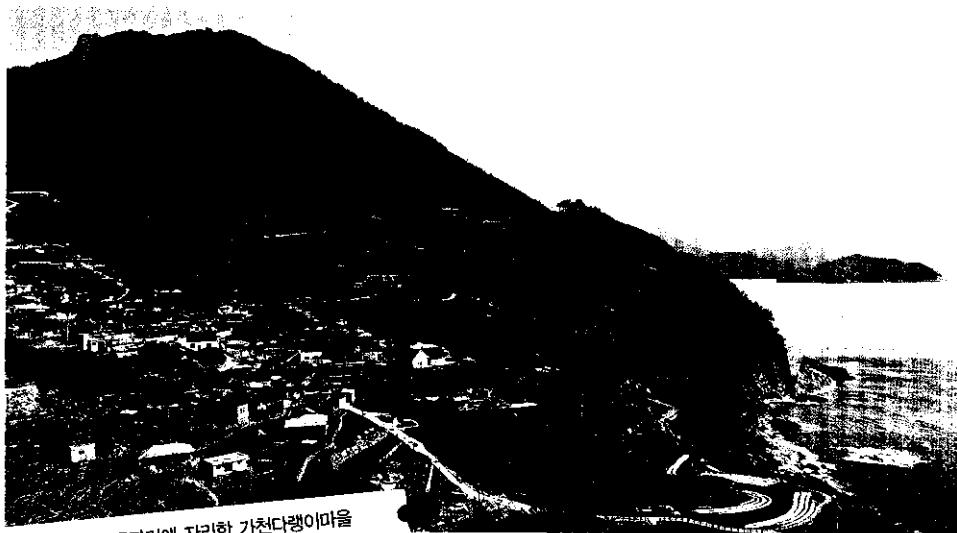
남해하면 이러한 자연풍경도 멋지만 즐길 수 있는 음식들도 매우 다양하다. 사시사철 싱싱한 생선회를 맛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젓갈과 마늘장아찌, 해초나물, 어패류를 이용한 탕국, 화전한우 요리는 맛의 고장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준다.



불이면 남해의 피란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유채꽃

특히 남해에서는 죽방령이란 원시어업을 통해 잡은 멸치가 특산물이다. 물살이 좁은 바다 물목에 대나 무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방식인데 이렇게 잡은 멸치로 막걸리를 식혀서 만든 재래식 식초를 사용하여 독특한 맛을 낸다.

이외에도 남해는 지리적 여건상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생선미역국, 물메기탕, 생갈치호박국 등 탕과 국이 발달 되어 있다. 그 중 물메기로 불리는 바다메기를 말려 된장을 발라 찐 메기짬은 개불과 함께 겨울철의 별미이고, 전어밤을 잘 식혀 담은 전어밤젓은 일년내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옛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급격한 경사를 이룬 끝짜기에 자리한 가천다랭이마을

남해비래길 1코스 다랭이지겟길은 남해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척박한 생활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비탈을 깎아 만든 논과 밭으로, 바다로 다녔던 지겟길을 통하여 우리 선조들의 억척스러운 삶을 느낄 수 있으며, 각종체험(다랭이 논 만들기, 어촌체험 등)과 몽돌해변의 파도를 연인삼아 남해군 남면 평산항에서 사춘해수욕장을 거쳐 명승 15호인 가천 다랭이마을까지 해안을 따라 걷는 16Km, 5시간이 소요되는 코스이다.

삶의 흔적을 걸는다

시작점인 평산항은 고려시대부터 왜구를 물리치기 위한 평산진성이 위치했던 지역으로 현재는 장군당 이란 작은 사당이 있다. 평산항에는 활어 위판장이 있어 어부들의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1.5km를 걸으면 화장실과 식수대가 마련된 평산쉼터가 있다. 마련된 의자에 앉아 건너편의 죽도를 바라보는 여유를 누리고 있다 보면 속삭이는 듯 한 파도와 함께 김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바다와 물이 만나는 해안지락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교감이 이루어진다.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남해바다가 만든 납작한 돌멩이는 남해의 보물이다.

작은 언덕을 따라 올라 밭뙈기를 지나고 농로를 걸으며 조망하는 바다의 풍경은 울망졸망하여 편안함을 준다.

남해바래길 1코스 다행이지겟길은 남해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척박한 생활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비탈을 깎아 만든 논과 밭으로, 바다로 다녔던 지겟길을 통하여 우리 선조들의 억척스러운 삶을 느낄 수 있으며, 각종체험(다랭이 논 만들기, 어촌체험 등)과 몽돌해변의 파도를 연인삼아 남해군 남면 평산항에서 사촌해수욕장을 거쳐 명승 15호인 가천 다행이마을까지 해안을 따라 걷는 16Km, 5시간이 소요되는 코스이다.



— 남해 바래길 —
64
65

여행자를 위한 Tip

범머리 자연전망대에 꼭 올라야 한다.
길어 온 길을 뒤돌아 볼 수 있고 남해
바다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발길을 따라 해안으로 내려가면 봉돌로 이루어진 아기자기한 해변을 만나게 된다.

예전 해안경계근무를 하던 초소 다니던 숲속을 지나는데 숲에서 보이는 바다의 풍경이 아름답다. 숲길을 지나면 갯바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바다가 맞닿아 위험하기도 하지만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삼여도 모래사장을 만난다.(화장실이 있다)

진달래 군락지인 동외 곁의 횡토길을 지나고 바닷가 숲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바닷바람에 맘을 식힐 수 있다. 이어지는 유구의 큰설징이라는 조약돌 해안을 따라 남해바다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다.

유구의 작은 설징이의 모래사장 곁에 있는 작은 산에는 진달래꽃이 군락을 이루고 장관을 연출하여 몸과 마음을 진한 분홍색으로 물들인다.

유구의 큰 설징이는 파도가 만든 조약돌이 모여 파도와 함께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하여 잠시 발걸음 멈추고 귀를 기울여도 좋다.

내 걸음 밑으로 조약돌이 사그락거리는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감흥이 되어 이대로 안주하여도 좋을 것이다.



조약돌이 사그락거리는 큰실장

하얀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시촌해수욕장에 조성된 소나무 숲에서 잠시 여유를 즐겨도 좋다. 모래가 좋고 강물이 맑고 깨끗하여 마을의 옛 이름이 “모래자”라고 불리워지던 곳이다. 이곳에 화장실이 있으니 들리길 바란다. 여름이면 사촌해수욕장의 숲에서 남해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유와 휴식이 되어 일상의 스트레스는 느낄 수 없다. 남해바다는 여름이면 절정이다.

남해바래길 전체가 모두 바다 곁으로 이어져 있어 그 어느 곳에서도 피서를 즐기며 다양한 바다체험을 할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는 따뜻한 지역이라 스포츠 선수들에게 각광 받는 전지훈련장이기도 하다.



사촌해수욕장과 유구길

사촌해수욕장에서 개울을 건너 언덕을 올라 선구 당산나무에 도착하면 지나온 발자취가 한 눈에 조망되며 남해바다의 아름다움에 또 한번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잣나무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포구라서 한때는 백림으로도 불렀다고 한다. 옛 전설에 따르면 신선이 놀던 곳이라 하여 선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옥녀는 산봉우리에 하강하여 놀다가고 백림에는 신선이 놀다 갔다는데 그때 신선이 모기를 쫓아 지금도 이 마을에는 모기가 적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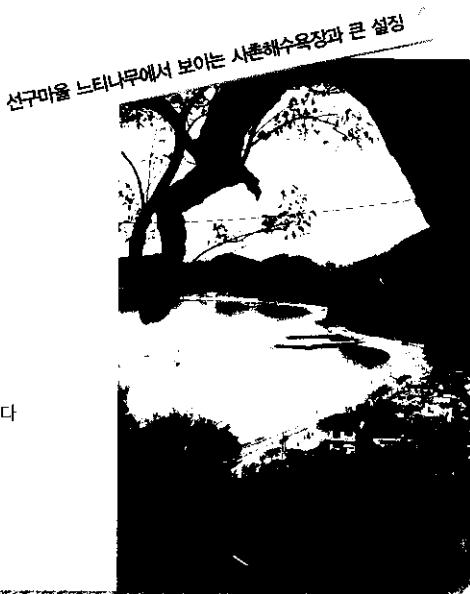
선구마을의 보건진료소를 지나고 직진하여 왼쪽길로 접어들어서 언덕을 따라 가면 초소를 만나게 되는데 남북 분단의 비극을 체험하게 된다. 잠시 건너편에 보이는 항촌마을의 전경을 감상하고 좁은 길을 내려서면 선구마을의 몽돌해변이 펼쳐지는데 파도가 치匯하고 몽돌들이 화음을 이루는 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

몽돌은 지금 있는 곳에서 살아야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잣나무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포구라서 한때는 백림으로도 불렀다고 한다. 옛 전설에 따르면 신선이 놀던 곳이라 하여 선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옥녀는 산봉우리에 하강하여 놀다가고 백림에는 신선이 놀다 갔다는데 그때 신선이 모기를 쫓아 지금도 이 마을에는 모기가 적다고 한다.

선구마을의 보건진료소를 지나고 직진하여 왼쪽길로 접어들어서 언덕을 따라 가면 초소를 만나게 되는데 남북 분단의 비극을 체험하게 된다. 잠시 건너편에 보이는 항촌마을의 전경을 감상하고 좁은 길을 내려서면 선구마을의 몽돌해변이 펼쳐지는데 파도가 치匯하고 몽돌들이 화음을 이루는 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

몽돌은 지금 있는 곳에서 살아야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여행자를 위한 Tip

선구마을의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사촌해수욕장을 내려다보는 풍경은 제1코스의 가장 멋스런 장소이다.

선구몽돌해변을 지나면 작은 조약돌로 이루어진 항촌해안(항촌마을)에 조성된 숲에서 묵여 있는 배들
의 한적한 어촌의 풍경을 마음에 담고 바닷가를 따라 오른쪽으로 걷다가 축항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항촌초소 가는 길을 이어낸 항촌 전망대로 오른다.

항촌전망대에서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동해와 같은 느낌을 담은 남쪽 해안을 내려다 보면 깍아지른 절
벽으로 남해바다의 파도는 하염없이 하염없이 해안포말을 일으키며 갯바위에 부딪치고 있다.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전망대를 내려 와 오른쪽 숲으로 들면 작은 오솔길을 만난다. 돌담으로 이어
진 전형적인 농촌의 논과 밭이다. 바다가 인접해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작은 오솔길을 지나 항촌마을 안길을 오르고 아스팔트 도로를 횡단하여 전원마을을 거쳐 숲길을 만난
다. 밤아래 펼쳐지는 바다가 가까이 다가 와 있어 갯바위에서 낚시꾼들의 순맛까지 느껴지는 듯하다.

선구마을과 항촌마을의 몽돌해변



향촌 전망대



계속하여 걸으면 펜션단지를 만나고 1코스 종착지인 가천다랭이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설흘산 자락을 돌아내려 펜션이 소복 모여 있는 마을을 뒤로 하면 가천 다랭이마을이다.

남해바래길 1코스가 끝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2코스를 시작하는 곳이다. 옛날 다랭이 마을의 조상들이 자개를 지고 멀감과 곡식을 나르던 길이라고 해서 '다랭이 지게길'이란 이름이 붙었다.

명승 15호인 가천다랭이마을은 태평양에 맞닿은 망망대해와 깎아지는 절벽이 장관을 이룬 해안도로 굽이 길을 돌다보면,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급격한 경사를 이룬 소울산(망산) 응봉산 골짜기에 음쪽하니 들어 앉아 있다.

가천마을의 유래는 대대로 마을에서 살아온 김해 김씨, 함안 조씨 가(家)에 전해오는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신라 신문왕 당시로 추정되어지고 있다. 미륵전설과 육조문에 대한 전설이 고려시대 이전에 삽이 시작되었고, 400여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 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설흘산 봉수대(烽燧臺)는 이미 그전에 이곳 가천마을에 집단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전해오는 마을의 옛 이름은 간천(閭川)이라 불리어 왔으나 조선 중엽에 이르러 가천(加川)이라고 고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설흘산이 바다로 내리지르는 45°경사의 비탈에 석축을 쌓아 108층이 넘는 계단식 논을 일구어 놓은 곳으로 조상들의 억척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옛날에 한 농부가 일을 하다가 논을 세어보니 한 배미가 모자라 (여기서 배미는 이곳에서 논을 세는 단위이다.) 아무리 쫓아도 없길래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삿갓을 들었더니 그 밑에 논 한배미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삿갓배미에서 300평이 족히 넘는 큰 논까지 있는 다랭이논 마을이다.



바다를 끼고 있지만 배 한척이 없는 마을로 마늘과 벼가 주 소득 작목이다. 최남단에 위치해 한겨울에도 눈을 구경하기 어려운 따뜻한 마을로 쑥과 시금치 등의 봄나물이 가장 먼저 고개를 내미는 곳이며, 해풍의 영향으로 작물의 병해증 발생률이 낮아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마을이다. 아직도 개울에는 참게가 살고 있고, 얼레지나 용담, 가마우지 등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여건을 지닌 마을이다.

가천마을을 답사한 우리문화유산연구소 이형권 소장을 비롯한 문화전문가들은 "민초들의 고단한 삶이 예술로 승화된 계단식 다랭이 논, 억겁의 세월 바닷물에 말끔히 씻겨 눈처럼 새하얘진 바위와 쪽빛 바다가 이룬 풍광이 정말 멋스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마을 안에 있는 암수바위 또한 보존해야 할 훌륭한 문화자산이라 남해에서는 관광휴양지로 개발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적극 추천한다.

주 소득 작물인 마늘밭



가천다랭이마을은 삶이 어떨지 예술의 경지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마을 가운데 돌담에는 밥 무덤이 있다. 제삿밥을 얹어먹지 못하는 혼령들을 위한 곳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동체를 지내며 풍작을 기원한다. 이들에게 밥은, 흔히 '밥벌이'를 위해서 못할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밥'이 아니다. 이들의 밥은 목숨이고 순결한 영혼이다. 가천마을의 문화자산 가운데 첫번째로 꼽히는 것은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룬 최고의 예술품인 계단식 다랭이 논. 주민들은 바다로 내리 지르는 소울산 응봉산 비탈을 깎아 논을 만들었다. 삿갓을 씌우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논이라 하여 삿갓배미라 부르는 달갱이로부터 봇물이 실한 세 마지막 기웃 논까지 100종이 넘는 논배미들이 충게를 이룬 모습은 침밀로 장관이다.

천수답이 아니더라도 위에서부터 물을 대야 고루 물을 댈 수 있다는 슬기로 척박한 비탈에 석축을 쌓아 논을 만들고, 그 석축은 한뼘이라도 더 땅을 넓히려는 주민들의 집념으로 안으로 기운 것 없이 바짝 곤추 섰으며 그 석축을 따라 농군의 심성을 닮은 듯 유연한 곡선을 그린 논두렁이 이룬 장관은 한 폭의 그림이다.

남해 가천다랭이마을(가천마을)은 다랑이 논으로 유명하지만 이제 벼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다. 마늘 밭이 주를 이룬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민박으로 생계용 직종을 바꾼 지 오래됐다. 얼핏 마을에서 민박을 놓지 않는 집을 찾기 힘들 정도다. 관광객들이 몰려든 지 수년째, 마을은 갈수록 좀더 깔끔해지고 과거 오지마을의 느낌을 벗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가을이면 이곳이 떠오른다. 먼 옛날 농토 한 뱜이 아쉬워 산비탈을 깎아 만들었다는 계단식 논과 마을의 풍광은 여전하고, 남쪽 바다는 변함없이 새파랗다.

여행자를 위한
TIP!

1. 선구마을과 향촌마을 앞 해안에 쌓인 몽돌과 조약돌은 남해군의 보물이다.
2. 가천마을의 입구에 자리한 몽돌해안 생태체험장을 빠뜨리지 마시길. 기파른 절벽에 계단을 마련하여 절경을 감상하기기에 충분하다.



• 가는 방법

① : 남해고속도로 진교IC로 나와 1002번 지방도를 이용해 남해대교까지 간다. 남해읍 방면으로 계속 운행하여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 1672-1번지 네비게이션에 입력하면 주차장까지 안내해준다.

② : 남해군까지 시외버스를 이용한다. 남해에 도착해 가천방향(상가, 남면, 통현, 무지개) 버스를 탑승하고 12개정류장 이동 후 홍덕 버스정류장에서 가천방향(이동, 당향, 남면, 오리, 향촌) 버스로 환승한다. 4개의 정류장 이동 뒤 평산 2리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1코스 시작점 평신향이다.

• 코스 정보

제1코스 : 다행이 지겟길 16Km/ 5시간

평신향 → 유구 범머리 전망대 → 사촌해수욕장 → 선구몽돌해변 → 향촌몽돌해변 → 향촌전망대 → 가천다랭이마을 → (구) 가천초교

제2코스 : 말발굽 길(15Km, 소요시간 – 5시간)

제3코스 : 고사리밭 길(14Km, 소요시간 4:30시간)

제4코스 : 동대만 진지리 길(10Km, 소요시간 – 3시간)

준비물 : 가벼운 운동화도 괜찮지만 등산화가 좋고, 생수 한 병과 간식, 중식이 필요하다.

문의 : 남해바래길 사무국(055-863-8778)

• 숙박

명승 15호로 지정된 가천다랭이마을에는 민박이 활성화 되어 있어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해안의 마을에는 펜션과 민박이 많으니 마을 주민에게 문의하면 해결된다.

예약가능여부를 확인한다.(가천다랭이마을 055-863-3427)

• 음식

가천다랭이마을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향촌마을과 선구마을 평산마을에 횟집이 있다.

• 주변관광명소

가천다랭이마을 안에 있는 양수비위는 보존해야 할 출중한 문화자산이며 남해에서는 관광휴양지로 개발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이다.

가천마을의 문화자산 가운데 첫번째로 꼽히는 것은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 최고의 예술품인 계단식 다행이 논. 주민들은 바다로 내리 지르는 소울산 응봉산 비탈을 깎아 논을 만들었다. 삿갓을 씌우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논이라 하여 삿갓배미라 부르는 달갱이로부터 봇물이 실한 세마지기 가웃 논까지 100층이 넘는 논배미들이 총계를 이룬 모습은 참말로 장관이다.

소백산 아래 구비 도는 열 두 자락, 사백 리 길



(사)영주문화연구회 김 덕 우

소백산 남북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있다. 하나는 서울을 지나 서해로 가고, 다른 하나는 구비구비 흘러 남해로 간다. 그래서 소백산을 머리에 이고 흐르는 이 두 강은 바로 만날 수는 없다. 단지 두 물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산자락을 끼고 돌며 거슬러 올라 소백산에서 만날 뿐이다. 결국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끈은 소백산인 셈이다.

끈은 고개로 이어진다. 죽령, 고치령, 마구령, 민너미재, 늦은매기……. 이 고개를 넘나들며 수가 틀리면 쌍박질도 했겠지만, 고개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통로였다. 고개 너머에서 어물도 오고, 양식도 갔지만, 더 소중한 것은 등 너머에서 오는 소식들이었다. 이 고개를 넘어가며 마을과 마을을 이어준 길이 '소백산자락길'이다.

소백산자락길은 열 두 자락이다. 400리 길에는 자락마다 우리나라를 이끈 성현이나 이름 없는 춘부나 아낙의 흔적이 있다. 이 길은 2009년 문화관광부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출범하여, 2011년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었다. 한국 관광의 명소로 모두가 자랑해야 할 대한민국의 길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자원인 것이다.

• 아직 옛사랑을 물길 속에 담아내는 “첫자락”

100살은 족히 넘어 보이지만 선비의 곧은 마음만큼이나 한결같은 소수서원의 소나무숲(학자수)길에 서 첫 자락이 시작된다. 조선 500년을 관통하는 유학 이념이 곳곳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모여들던 선비들이 한번쯤 지나쳤을 법한 이곳은 아직도 깨마득한 숲길이고 지금도 옛날처럼 흙길로 보존되어 있다. 옛 선비가 된 듯 이 길을 지나칠 땐 되도록 '선비걸음'으로 천/천/히 걸으며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해야 한다.

소수서원 옆으로 죽계가 흐르고, 그 죽계 건너에 선비촌이 있다. 그리고 청다리, 금성신단, 압각수….
청다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본다. 이 어디쯤에 인향이 살았고, 안죽이 죽계구곡으로 노래했던 고을,
30리길을 처마 밑으로 가며 비를 피했다는 영남 제1의 영화를 누렸던 순흥도호부 한 가문데이다.

550여 년 전,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던 정축년, 금성대군이 순흥으로 유배되어
온다. 영월과 순흥, 빠른 걸음이면 하루 만에 오갈 수 있는 바로 접해 있는 고을에 유배 온 금성대군
은 어린 조카를 위해, 아니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복위운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곳에 금
성을 유배시킨 것은 계략이었다. 세조에 저항하는 올곧은 영남의 선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는
술수였다. 그래서 거사를 미쳐 시작도 하지 못한 체 발각이 되고, 죽음으로 항거하던 선비들의 피는
죽계를 따라 흘러 심리 밖인 피끌미을까지 흐르게 된다.

해마다 정월 보름에 순흥에서는 큰일을 치룬다. 하나는 순흥도호부 시절부터 행해 오다가 일제 때
멈추었던 순흥 큰 줄다리기의 재현이고, 또 하나는 금성대군을 받드는 두레꼴 서낭제이다.

우리나라 어느 마을에서나 보름놀이가 있지만, 순흥에서 하는 행위는 놀이가 아니고 일이고 의식이
다. 정축년 거사뿐만 아니라 구한말 의병운동으로 이어졌던 순흥 사람의 올곧은 정신은 일본제국주
의자들에게 저항이 가선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순흥은 순흥부에서 순흥군으로 되었다가 영
주군으로 편입되어 순흥면으로 전락되고, 줄다리기도 사라진다. 일제 시대에 없어졌던 줄다리기 행
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2000년쯤이다. 서낭제와 함께 이제 제대로 된 보름날 의식을 갖추게 된 셈
이다.

“청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어릴 때 많이 들어 본 말이다. 그런데 이 말 뒤엔 순흥의 슬픈 전설이 물
어있다. 단종복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단종복위에 동조했던 순흥의 수백명 선비들과 그 가족들
이 희생되었다. 그때 눈물겹게 살아남은 어린 아이들이 청다리 밑으로 숨어들게 되었는데, 이를 기업
게 여긴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청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전해온다.

청다리에서 서서 북서쪽으로 보면 멀리 국령봉이 보인다. 소백산자락길은 이 죽계를 거슬러 소백산
속으로 들어간다.

정축년 사건 이후 역모(逆謀)의 고을로 버려졌던 순흥. 순흥을 사랑했던 주세봉도 가고 이황도 갔지만
순흥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은행나무가 다시 살아나면 순흥이 회복되고, 순흥이 회복되면
노산군도 복위 된다.”는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은행나무는 소수서원 앞으로 지나는 국도 건
너편에 있다. 순흥의 충신들이 죽는 날 함께 죽었던 나무가 숙종7년 밀동부터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폐부된 지 228년만(숙종 9년)에 순흥부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압각수(鷗脚樹)란 이름까지 하
사(下賜)받고 이제 1,200년의 수령을 자랑한다.

압각수와 함께 명예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금성신단(錦城神壇)이다. 압각수 바로 아래에 설치된 금성
신단에서 전국에서 모인 유림(儒林)들은 봄·가을로 금성대군과 당시 순흥부사 이보흠, 그리고 정축
년에 희생된 의사(義士)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두레꼴서낭제가 초군청을 중심으로 민중들이 받드는
제사라면, 이곳은 유림의 제사이다. 금성대군은 그렇게 순흥 사람들에게 신양적 대상이 되었다.

암각수에서 중촌들과 순흥저수지를 지나면 삼고정이다. 여기서부터 구곡길이다.

삼고정은 세 그루의 느티나무이다. 이 느티나무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긴 팔을 벌려 우리에게 그들의 사랑을 베풀다. 삼고정 안에는 조그만 비석이 있다. 배순정려비이다. 아직까지 이 마을의 수호신이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삼고정에서 배점학교를 돌면 죽계구곡이 펼쳐진다.

죽령의 남쪽과 영가의 북쪽 그리고 소백산의 앞에.

천 년을 두고 고려가 홍하고, 신라가 망하는 동안 한결같이 풍류를 지닌 순정성 안에,

다른 데 없는 취화같이 우뚝 솟은 봉우리에는, 왕의 안태가 되므로,

아! 이 고을을 중흥하게끔 만들어준 광경. 그것이야 말로 어떻습니까? – 죽계별곡 1장 중에서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했던가. 소백산 근산 아래 순흥땅에 많은 인물이 나고 또 생활했다. 부석사를 지은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뜻을 펼쳤고, 이곳 출신 안향은 중국에서 주자학을 가져와 연구와 전파에 여생을 바쳤다. 또 안향을 이은 안축이 성리학 연구에 깊이 몰두해 순흥을 성리학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한다. 이 학풍은 영주 출신의 정도전에게도 영향을 주어 조선을 성리학의 나라로 만들게 한다. 그래서 안향과 정도전의 고향인 영주를 해동(海東)의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고 하지 않던가.

주의 학풍을 처음 소개한 곳도, 그 이념을 가장 충실히 실천한 곳도 순흥이었다. 조선에서 주자학의 성지였다. 그래서 조선 지식인들은 이곳을 주자가 만년(晚年)에 정사(精舍)를 새우고 거처한 무이산(武夷山) 지역으로 다시 만들어보려고 하였다. 그들은 소백산을 중국의 무이산이라 여기고,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 때 국망봉 아래로 흘러내리는 죽계의 곳곳에 죽계구곡(竹溪九曲)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죽계구곡 한 가운데엔 초암사(草巖寺)가 있다. 초암사는 의상대사가 소백산 아래 첫발을 디딘 곳이다.

법당 앞으로 죽계가 흐른다. 죽계를 따라 산 속으로 100m쯤 가다보면 죽계구곡 중 첫 번 째인 제1곡을 만날 수 있다. 너럭바위 위로 물이 예쁘게 흘러 금당반석(金堂盤石)이라고 한다. 물길이 언덕은 만나면 폭포가 되고, 또 폭포는 소(沼)를 만든다.

물에 밭을 담근다. 여름에도 밭이 시리다. 물길 속으로 밭을 옮기다가 반석 위로 서성거리는 의상의 모습을 본다. 이 바위 위에 앉았다가, 물길 속으로 밭을 담갔다가, 건너편 언덕 아래에 서서 허공에 글자를 새기고 있다. 그의 손끝으로 어떤 글을 썼을까? 화엄에 대한 글이었을까? 고구려, 백제 아니 신라는 글자였을까? 의상이 이곳에 온 것은 왕명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이곳에 화엄종찰을 만들고, 그 절을 중심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에 화엄십찰(華嚴十刹)을 세워 고구려 백제의 모든 백성을 신라 속으로 끌어안는다는 큰 뜻이었다고 한다. 결국 삼국의 격전지였던 소백산에 들어와 초막을 얹고 소백산 자락을 살피다가, 마침내 봉황산 기슭에 부석사를 짓게 된다.



제1구곡

퇴계는 풍기군수로 재직하며 소백산을 오른다. 초암사에서 하룻밤 그리고 석륜사에서 이틀 밤을 자며 소백산을 기행한다.

대의 북쪽에 두 봉우리가 동서로 마주 서 있어 기 빛이 흰데, 이름이 없기에 내가 그 동편 것을 백학(白鶴), 서편 것을 백련(白蓮)이라 해서 백설봉(白雪峰)과 함께 백(白)으로 했다. 백이 많음을 마다 않은 것은 실상 소백(小白)이란 이름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 소백유산록(小白游山錄), 퇴계 이황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애정의 표현이다. 어린 시절 삼촌의 손을 잡고 영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장가를 들고 후손까지 얻게 한 영주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니 그보다 순홍의 문풍을 이어가는 즐거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소수서원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제자를 가르치고….

이 길을 그 때 퇴계가 지났던 길이다. 달밭골은 소백산의 가슴골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그 속살은 부드럽고 푸근하다. 이 골에서 시작한 물길은 항상 필요한 만큼 흘러 낙동강을 마르지 않게 한다. 달밭골은 '달'은 원래 暮에서 온 산(山)의 고어이다. 달때기만한 밭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달밭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곳은 옛날 화랑도들이 무술을 익히던 훈련장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산수를 즐기며 호연지기를 기르던 화랑들에게는 최고의 자리로 손꼽혔을 것이다. 현재엔 요양하는 사람이나 무속인들이 머무르고 있다. 순종 달밭골과 풍기 달밭골 사이의 '성재'라는 고개엔 옛 성터가 있다. 성재에 오를 때까지 계속 물길 따라 간다. 그래서 전국에서 음이온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인 모양이다. 계곡으로 흐르는 물소리를 함께 즐기며 오르는 이 길은 다른 곳과 또 다른 맛이 있다.

성재를 넘으면 풍기이다. 이제 비로사까지는 계속 내리막이다.

약속의 땅, 기회의 터 “2자락”

2자락은 소백산자락길 탐방로 중 유일하게 기차역이 통과하는 코스로 열차를 이용한 길손들이 탐방하기 좋은 곳이다.

조선시대 정감록의 십승지 중 제1승지로 손꼽히는 이곳은 오/감/만/족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자연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풍광을 보며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만드는 2자락의 매력은 풍부한 먹거리, 놀거리, 체험거리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인삼재배지로 유명한 풍기에서 맛깔스런 음식, 인삼재배체험, 사과따기 체험 등의 다양한 농촌체험, 전국에서 으뜸가는 유황온천인 풍기온천체험까지 다양한 팔색조 매력을 가진 자락이다.

삼가리는 달밭골과 정안동계곡, 그리고 금계리로 가는 세 길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정안동계곡은 비로봉과 연화봉 사이에 있는데, 지금은 산채나 약초를 캐는 사람마저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으스스한 계곡이다. 워낙 깊은 협곡일 뿐만 아니라 기도원에서 통제를 하기에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학교길은 삼가리에서 금선정까지다. 주차장에서 길 따라 굽이굽이 돌아 마을을 지나면 오른쪽 산 위로 금계바위가 보인다. 옛날 이 바위 가운데 부분에 많은 금이 있었고, 눈이 되는 부분에 보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가 그 보석을 빼려고 올랐다가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려 바위가 두 쪽이 나게 되어, 지금은 바위의 형태가 닭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더욱 신비롭다.

학교길엔 이제 학교가 없다. 예전엔 삼가분교가 있었지만, 농촌의 인구 감소로 1996년 폐교가 되었다. 달밭골, 당골, 청안동, 삼가리 학생들이 책보를 둘러메고 옹기종기 모여서 꿈을 키우며 다니던 그 길도 아젠 아스팔트로 덮여 있다.

이 길에선 요즈음 조금씩 새로운 모습을 본다. 옛날 이차돈이 공부를 했다는 곳에 새로운 절이 지어지고, 금선정 주변에 거처를 마련하는 예술인이 늘고 있고, 곳곳에 예쁜 집들이 지어진다. 하지만 이 곳을 찾은 것은 십승지를 찾아나서는 도피의 개념만은 아닌 것 같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 아닐까?

고통편이 발달하지 않았던 20여 년 전 이곳은 희방계곡과 함께 영주 최고의 명승(名勝)이었다. 길게 이어진 노송 아래로 저마다의 모양을 뽐내는 기암괴석(奇巖怪石)과 그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의 조화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풍기군수를 지내던 퇴계선생도 이곳에서 절경을 노래했었다.

신선 될 재주 없어 삼신산을 못찾고

구름 경치 찾아 시냇물을 마셔 보네.

얼씨구 풍류 찾아 떠도는 손아

여기 자주 찾아 와서 세상 시름 씻어 보세.

이 절경에 세워진 정자가 금선정(錦仙亭)이다. 금선정은 그 물가에 병풍처럼 드리운 바위 위에 선녀처럼 앉아 있다. 원래 이곳은 금·계 황준량(黃俊良)이 즐겨 가닐던 곳이라 한다.

퇴계의 제자인 그는 퇴계보다 일찍 타계한다. 퇴계는 “하늘이 이 사람을 어찌 그렇게도 빼앗는가. 참인가. 꿈인가.” 하며 제자의 행장을 손수 썼다고 한다. 그 아픔은 안연의 죽음에 “하늘이 망쳤다. 하늘이 나를 망쳤다.”며 통곡했던 공자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금선계곡을 벗어나면 넓은 들이다. 비탈진 땅은 과수원이고 편한 땅은 인삼밭이다. 승지마을이다. 십승지란 천지개벽이 일어날 때 재앙을 피하기에 좋은 10군데를 말한다. 십승지는 비결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어느 책이든 그 첫 번째로 풍기 금계촌을 꼽는다. 그래서 예부터 비결을 쓰는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모여들었다. 그 핵심 자리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지만, 돌과 바람이 없어야 하고, 큰 길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 조건에 만족한 곳이 바로 현재 금계동으로 불리는 임실(任實)이다. 또 금계라는 지명은 ‘닭이 일을 품고 있다.’는 금계포란(金雞抱卵)형에서 비롯됐고, 임실이란 지명도 임신(妊娠)과 뜻이 통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승지로 꼽힌다.

또 이 마을은 인삼 시배지로 유명하다. 조선 중종조 주세붕은 인삼재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이곳을 지목하고, 채취한 산삼종자로 인삼을 처음 재배하였다 한다.

여행자를 위한 Tip

예전에는 풍기 읍내 골목마다 인조견 공장이었다. 골목을 다니며 철꺼덕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었었다. 그 소리는 풍기의 맥박이었다. 그 맥박이 뛰게 된 것은 1930년대 초 평북 출신의 전입자들에 의해서라고 한다. 풍기IC에서 풍기읍으로 들어서기 전에 인조직판장 상기가 밀집해 있다. 갖가지 의류와 이불 등 각종 생활용품으로 개발된 상품들이 많다. 여름에도 서늘한 감촉을 느끼는 건강 옷감이다.



금선정

— 소백산 자락길 —

80

81

방천길은 유다리에서 시작한다. 이 다리가 희방사의 연기설화 속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이다. 화강석재를 길게 잇대어 걸쳐놓은 이 유다리의 잔해가 아쉬운 대로 아직도 다리 구실을 하고 있었다.

유다리에서 남원천으로 나가 방천 따라 오르다 보면, 좌우 펼쳐지는 소백산맥이 늠름하다. 멀리 산허리를 파 놓은 듯이 질록한 죽령이 보인다. 죽령을 향해 둑길 따라 5리쯤 가다보면 칠방의 표지석이

나온다. 여기서 풍기온천을 이용하려면 오른쪽으로 400m쯤 가야 한다.

창락 마을은 옛 순흥도호부의 관역인 창락면의 중심지로, 영남 11개 출방역의 하나인 창락역이 있던 곳이다. 이 마을 큰길 옆에는 출방들의 기념비로 짐작되는 여러 개의 비석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광복 후에 모두 없어지고 그 중 하나만 있다. 현종 8년(1667)에 건립한 출방 안 모 씨의 선정비다.

고거와 현대가 함께 넘나드는 죽령 “3자락”

3자락은 옛 서민들의 애환 서린 전설이 흐르는 길이다.

예로부터 죽령을 '아흔아홉 굽이에 내리막 30리 오르막 30리'라고 했다. 한양과 영남을 잇는 최단 경로인 탓에 사람들은 힘들어도 이 고개를 넘었다. 그래서 이곳은 1910년대까지만 해도 사시사철 번잡했다. 청운의 꿈을 품고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하는 선비, 허리춤에 짚신을 차고 봇짐과 행상을 진보부상, 부임한 임지를 오가는 관리 등 길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재촉하며 숨 가쁘게 걸었던 천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죽령 명승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죽령옛길은 소백산역(희방사역)에서 죽령마루까지가 계속 오르막이라지만 최단거리여서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주변을 출기다 보면 그 시간으로 어림없다. 국가명승길로 지정될 정도라면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할까?

소백산역이 있는 마을은 예로부터 '무쇠다리'로 불려 왔다. 마을에 무쇠로 놓은 다리가 있어서 마을 이름이 된 것이다. 희방사 계곡 물과 죽령쪽 물이 바로 마을 위에서 합쳐져서,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견딜 수 어려운 형편이었다. 영조 때 엮어진 옛 순흥지에 '옛날에는 무쇠를 부어 만든 다리었으나, 지금은 판자다리'라고 했다.

예전엔 제법 큰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철도가 통과하면서 소백산역이 마을 중앙을 차고 앉아 철로를 산처럼 높여 놓아, 마을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었고, 그 모양도 불편이 없어져 버렸다. 옛 모습을 더듬어 새롭게 단장하였지만 어림없다. 그 유명하던 무쇠다리도 지금은 그 터마저 희미해졌고, 동구의 고목들도 사라졌다. 다만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고 새겨놓은 암벽의 각자와 비석 두 개만 역 건너편에 남아있을 뿐이다.

옛길의 자취는 중앙고속도로 아래를 막 지나 죽령기슭 산자락에 접어들면서, 죽령터널 입구 오른편으로 다시 나타난다. 여기서부터 고갯길에 들게 된다. 과수원을 지나서 낫물을 원편에 끼고 산모퉁이를 돌아 오르면 길이 나무들의 터널을 이루어 햇볕이 내려 쪼이던 평지의 길과는 달리 시원한 길이 운치 있게 펼쳐진다. 이름 모를 산새들의 울음소리와 더덕 냄새에 취하다 보면, 갑자기 골짜기가 제법 넓게 열린다. 주막거리이다. 여기에는 두어 집 주막이 있었을 것 같다.

냇물을 끼고 둘길을 따라 오르며 두어 굽이 모퉁이를 돌면, 양편 산언덕이 차츰 멀찍이 물러서면서 골짜기가 훨씬 시원히 트인다. 고갯마루 턱밑 어디쯤 죽령을 개척한 죽죽사당이 있었다는 얘기에 주변을 다시 돌아본다.

완만했던 경사가 주막터를 지나면서 갑자기 가팔라진다. 눈앞에 죽령루가 보인다. 벌써 죽령마루이다. 누각 전면은 죽령의 대표적인 지명을 따라 '죽령루(竹嶺樓)'라 하고, 후면은 충북에서 고갯마루를 넘으면 영남의 첫 관문이므로 경상도의 옛 지명인 교남의 역사적인 지명에 근거해 '교남제일관(橋南第一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죽령마루는 주차장이다. 전통주막과 휴게소가 있지만 길옆에 있는 조그만 공간일 뿐이다. 죽령 주막 옆에 장승공원이 있다. 예로부터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전해 내려오는 장승은 이 밖에도 지역 간의 경계표 구실, 마을 이정표 구실 또한 묵묵히 해오고 있다. 죽령장승공원에서는 익살스러운 표정의 장승부터 근엄한 표정의 장승까지 다양한 장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개에서 내려서면 버들마, 셋마가 차례로 나타난다. 죽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예사롭지 않은 산마을을 지나 멋쩍게 큰 불상이 서 있다. 보국사 절터이다. 보국사는 보곡사(保谷寺)·보국사(補國寺)·보국사(報國寺)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며, 신라 때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절터는 약 660m²(200평)에 이르는데, 경작지로 사용되어 훼손된 곳이 많다. 큰 불상은 장육불상이다. 조각 수법이나 기와에 새겨진 무늬, 일부 남아 있는 축대의 구조 등으로 미루어 9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연화문(蓮花紋), 대좌(對坐), 죽절문간식(竹節紋竿石), 연화문식판(蓮花紋石版), 주초석(柱礎石), 기와조각 등을 볼 수 있다.

용부원리 쪽 죽령터널 입구 부근에서 철로 건너편에 단아한 폭포가 하나 숨겨져 있다. 단양 제2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죽령폭포이다. 심산유곡의 청정한 숲과 어우러져 비경(秘境)을 연출하며, 울창한 산림 속에 10여m의 암반 위로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높지만 소백산국립공원 관리소가 비지정됨방로 및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장림말길에서 옛길 찾기란 광화문에서 6조거리를 찾는 격이다. 국도, 고속도로, 철도가 뒤엉켜 옛길을 그 흔적만 기늠할 뿐이다. 하지만 한 자리에서 그 길들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죽령은 길의 백화점이다. 옛길, 신작로, 철길, 고속도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933년 신작로가 열리고, 그 밑으로는 죽령터널(4.5Km)을 뚫어 1941년 중앙선 철도를 잇는다. 그리고 2001년에는 중앙고속도로가 터널(4.6Km)을 뚫고 개통한다. 두 터널은 모두 철로와 도로 중에는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이다.

'죽령(竹嶺)'이라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곳에는 대나무가 많아야 한다. 하지만 길을 걷고 또 걸어도 대나무는 쉽사리 찾아 볼 수 없다.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 조목 선생은 대강면 장림에서 죽령 고개를 넘으며 "장림 무장림, 죽령 무죽령이라 읊었는데, 이것은 장림에는 긴 숲이 없고 죽령에는 대나무가 없음을 노래한 시다.

중앙고속도로 관리사무소 옆을 지나 국도로 접어들면 길 한편에 다자구할머니 비각이 있다. 신신당은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다자구할머니당'이라 칭하고 있다. 다자구할머니와 산적 이야기는 이 길이 얼마나 외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웠던 길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¹¹⁾

소백산 기슭에 위치한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는 바로 죽령 어귀에 위치한 마을로, 옛부터 나그네들이 높고 험준한 죽령을 넘기 전에 하룻밤을 쉬면서 짚신을 고쳐 신고 말을 갈아타던 마방(馬房)이 있었다. 여기에 객고(客苦)를 달래주던 주막거리가 변창했음은 물론이다. 지금도 이 마을에 가면 '소백산 술도가'라는 양조장이 있다. 70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술도가로 전통을 이어가는 술맛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의 술은 지난 1994년 한국문화재단이 주최한 전통주류품평회에 충북 지방 대표로 초대되어 우수 민속주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가리정마을옛길 “4자락”

4자락은 꼬불꼬불 굽이굽이 할머니가 품은 추억의 이야기길이다.

고수, 노동, 마조지역 등 옛 단양사람들이 이 옛길을 이용하여 죽령을 넘어 풍기장을 보러 다닌 옛길이다. 농촌풍광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당시에 길은 마조지역 주민과 수촌지역 주민이 서로 왕래 하던 길로 훠손되지 않고 자연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기차도 힘이 들어 또아리로 넘던 죽령

가리점 마을 옛길 오늘도 숨이 찬데

마조리 아픈 역사가 오미자로 붉는다

절에도 산이 높아 하얗게 빛바래고

농무(濃霧)는 길을 막아 속내를 숨기는데

나그네 한 점 밭자국 또 하나의 길을 낸다. – 이무식

4자락은 대강면 당동리에서 출발한다. 입구는 중앙고속도로에서 단양IC로 진입하는 교각 아래에 있다. 입구로 접어들자마자 오르막이고, 바로 철길 아래로 난 터널을 지난다. 그리고 오르다 보면 또 철도를 만나는데 이번엔 그 철길이 굴속으로 들어간다. 전국에서 유일한 또아리굴이다. 그리고 길은 임도(林道)를 따라 굽이 틀며 계속 높아진다. 길옆으로 유달리 붉은 농토가 펼쳐진다. 밭 모양이 색다르다. 길보다 낮을뿐더러 밭 한 편에 깔때기 같이 오목하다. “돌리네”라고 하는데 우리말이 못밭이다. 또 지나다보면 크고 작은 암석들이 산비탈을 꽉 채우고 있다. 너털지대이다. 여긴 지리교과서를 들고 다니면 공부가 될 것 같다.

노루고개를 넘어 장현리로 가는 길도 옛길 그대로이지만 멀리 보이는 밭아래의 풍경은 길의 높이만큼 세상과 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조리에서 길이 갈라진다. 걷는 이들은 재 너머 수촌리로 가야 한다. 이 길은 회색빛 콘크리트에 짙증난 여기에서 도회지사람들은 소박하면서도 아늑한 농촌 풍과 훠손되지 않고 원시적으로 남아있는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마조리에서 안내판은 소박하지만 재미있다. 지렁이, 지개, 참새집… 하나도 지나칠 수 없다. ‘마조리’라는 명칭은 소백산 자락의 마지막 마을이라는 데서 ‘마’와 마을 양 옆으로 계곡이 흐르다가 마을 입구에서 만나는 모양이 조리 모양과 같다하여 ‘조리’를 합성하여 ‘마조리’라는 마을 명이 생겼다는 설과 예전에 마을에서 나무를 갈아 향지 등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여 갈마(磨)자에 지을 조(造)자를 써서 ‘마조리’라는 마을명이 생겼다고 한다.

여행자를 위한 Tip

클레이 사격체험: 마조리에서 자전거길을 따라 기촌리로 가다보면 클레이 사격장이 있다. 17~18세기 유럽의 귀족들은 하늘에 비둘기를 날려 총으로 맞히는 게임을 즐겼는데 시간이 흘러 비둘기 대신 진흙으로 구운 전시를 표적으로 이용했고, 그것이 지금의 클레이사격의 유래가 되었는데 사격장에 들러 클레이 사격 체험을 할 수 있다.



가리점과 4자락 초입

황금구만냥길 “5자락”

5자락은 구만동의 황금설화를 간직한 오감만족 여행길이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촌체험마을, 한드미미을을 돌아오는 황금구만냥길은 구만동의 황금설화가 남아 있는 길로써 소백산의 당당한 위엄을 보며 걸을 수 있는 옛길이다. 이 마을에서는 연중 다양한 산촌 문화체험과 생태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동굴을 통해 소백산을 가로질러 순흥장을 봤다는 믿기 힘든 얘기도 들을 수 있다.

대대리 문필봉을 휘감는 야원 바람
슬그머니 현을 풍겨 허공을 비행하다
감추듯 날개를 접고 구만냥길 오른다.

끌이 깊고 산이 높아 빠리를 틀고 누워
설움도 다 말라서 엇박자로 퍼지는데
마른풀 빛바랜 향기 서성이is 보발재. – 황정희

기촌리에서 국제장애인문화예술원을 지나면 5자락의 출발점이 나타난다. 슬티천을 뒤로 하고 매남기재를 넘으면 대대리가 나온다. 마을 한가운데 조형물이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국 1호마을로 지정된 기념조형물이란다. 거기에서 마을을 보면 가운데 커다란 봉우리가 있다. 그 봉우리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어의곡 한드미와 새밭으로 가는 길이고, 소백산자락길은 왼쪽의 대곡분교 옆으로 간다. 길섶에 황금구만냥 전설이 적혀 있다. 구만동의 가난한 농부가 신선의 말대로 늙은 소나무 밑을 파서 황금 구만냥을 발견했으나 돌아와 보니 가족이 모두 죽어 있었다는 전설이다. 농부가 구덩이 속에서 길을 헤맨 것이 거의 반나절 정도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9일 동안을 구덩이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에 식구들은 굶어죽고 말았다. 농부는 대성통곡하며 식구들을 구덩이 속에 묻으며 황금도 같이 묻었다. 농부가 얻었던 금은 돈으로 따져 구 만량 정도가 되었다고 하며, 그래서 농부가 살았던 동네를 구만골이라고 하였다.

구만골을 지나 산길을 오르다 돌아서 보니 멀리 연화봉 천문대가 보인다. 한 모퉁이를 도니 한편으론 석회암 바위를 깎아 만든 절벽이고, 한편은 천길 낭떠러지이다. 낭떠러지 건너에 소백준령이 펼쳐진다. 비로봉과 국망봉을 찾아본다. 900m길에서 1400m 봉우리도 눈 아래로 보인다.
보발로 내려가는 길도 가파르다. 하지만 두메신골은 이 가파른 비탈도 언덕배기도 가만두지 않았다.
밭을 일구었다. 그래서 보발리에 사람이 산다.

보발분교 옆으로 595번 도로가 나 있다. 이 길은 이름다운 드라이브길로 소문이 나 있다. 길따라 보발재를 오르다가 묵호자를 생각한다. 놀지왕 때 신라에 불교를 전파한 묵호자는 향산사라는 절을 세웠는데, 그 절이 여기에서 남한강 쪽에 있다고 한다. 그 터는 400여 년간 폐허로 남아있고, 3층 석탑만이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소백산 너머 이차돈이 공부했다는 2자락길을 떠올려 본다.

이제 보발재를 넣으면 구인사에 이른다.



구만동길과 대대리마을

여행자를 위한 Tip

천동관광지와 천동동굴: 소백산 깊은 골짜기에서 내려온 맑은 계류와 물창한 숲이 청정한 기운을 뿜어 내는 천동계곡 주위로 원두막, 오토캠핑장, 취사장 등을 갖추고 있는 다목적 관광단지이다. 좀 더 자연과 가까워지고 싶은 이들은 소백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이용해 트레킹의 묘미를 만끽해도 좋다.



온달평강로맨스길 “6자락”

6자락은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애듯한 사랑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길이다.

산책로 아래 북쪽으로는 굽이치는 남한강의 아름다운 경치가 텁방객을 따라 다닌다. 산길을 걸으며 소백산 화전민의 삶을 엿볼 수 있고 강가에 피어나는 물안개가 운치를 더하는 6자락은 임산물 채취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전해오면서 붙여진 온달산성의 역사탐방과 온달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다.

6자락은 고드너머재(보발재)에서부터 시작한다. 보발분교에서 고갯마루에 오르기 직전 원쪽으로 난 임로이다.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바리케이트가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 길을 한적할뿐더러 우거진 숲 아래로 무성한 들꽃 때문인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청량한 공기가 절로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다. 긴 흑 숲 사이로 보이는 산자락 능선들이 칩첩히 겹쳐지는 모습은 파도가 치듯 밀려온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산길이 있는가 하면 치솟은 낙엽송 사이로 부드럽게 휘어진 길도 있고, 산중 마을의 목은 밭을 가로지르는 농로도 있다.

이 길의 뒷산을 계명산이라 하는데, 유운룡(서애 유성룡 선생의 형)의 호를 따서 겸암산이라고도 한다. 산중턱에는 옛날 화전민들의 애환이 담긴 화전민촌이 복원되어 있다. 이곳을 방같이 이득하다 하여 방터 또는 방대라 했으며, 꼭두방터, 중간방터, 아랫방터로 나뉘진다. 고구려 군사들의 숙영지였단다. 이곳에 옛 화전민들의 거처를 복원해놓고 휴양림처럼 숙박객을 받고 있다. 화전민촌을 벗어나자, 멀리 온달산성이 보인다. 나무사이로 쉬엄쉬엄 흘러가는 남한강이 보인다.

온달산성은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 온달장군이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 만든 성이다. 남한강변의 해발 427m 성산 위에 길이 682m 높이 7~10m의 석성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아직 애듯하다.

산성에서 내려오며 ‘성이 한강의 북쪽에 있지 않고 소백산 쪽으로 있다.’는 생각을 실마리를 잡아 본다. “계립현(鶴立峴)과 죽령 서쪽의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던 온달장군의 의지의 표현이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온달관광지다. 옛 궁궐의 모양으로 지은 드라마 세트장이다. 일만한 드라마 속의 배우 사진들이 관광지를 도배하고 있었다. 얼른 내가 좋아하는 배우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온달관광지가 6자락의 끝이다.

여행자를 위한 Tip

구인사와 최가동마을: 구인사는 한국불교 3대 종단인데, 관광단지에서 보발재 쪽으로 가다보면 바로 보인다. 그리고 보발재를 오르기 전, 최가동마을 입구가 있다. 원 화전민들이 살던 곳이다. 지금은 없지만 비탈진 경사면에 펼쳐진 밭은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한다. 해마다 봄이면 주민들이 소를 몰고나와 생기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구인사와 운달서성당

시승지의 풍경 “7자락”

7자락은 정감록 십승지의 하나로 소개 된 색다른 산골마을이다.

고려시대부터 소금을 운반하던 염로였고, 베를재 아랫마을인 의풍리에는 정감록 십승지를 찾아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남한강가에 깎아지는 석벽이 병풍처럼 늘어 서 있는 장관을 구경할 수 있는 길이다.

단종의 슬픈 역사 어래봉에 묻혀있고
남한강 구비 돌아 씻어내는 그 정한을
배흘재 떡가래처럼 허리 접고 바라다.

구어중 삼풍지간 정감록 예언 따라
삼도팡 사람들이 정겹게 모여 살고
옛부터 소금장수들 넘던 길을 나도 간다.

7자락은 영춘면사무소에서 출발해 동대리를 거쳐, 의풍옛길을 따라 베틀재를 넘는 구간이다. 면사무소를 옆에 두고 오른쪽 길로 접어들며 마을 가운데를 돌아가다 보면 어느새 인적이 없다. 그리고 산비탈로 난 임도(林道)쪽으로 동대리로 가는 이정표가 있다. 동대리엔 용소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재미있는 두 개의 전설이 전해진다. 하나는 하늘로 오르던 이무기가 떨어지며 갈긴 오줌이 못을 만들었다는 용소의 내력에 관한 얘기이고, 또 하나는 백성의 바람으로 세상에 나왔다가 비운으로 간 아기장수의 슬픈 이야기이다. 말등바위, 베틀마을, 거무실, 점터, 회실… 동대리 주변의 마을 이름이 용소리의 이야기마냥 골짜기에 잘 어울린다. 아마도 이 어디쯤이 10승지 중에 한 마을이 아닐까? 동대리를 지나면 베틀재로 오른다. 고개를 넘으면 의풍이다. 베틀재는 충북과 경북, 강원 등의 삼도를 잇는 고개이다. 한 때 봇짐장수들은 구절양장의 이 길을 따라 소금짐을 지고 넘어다녔다. 베틀재에 오르면 아래산(御來山) 삼도봉(三道峰)이 눈앞에 꽉 찬다. 소금장수들은 마포에서 한강 따라 운반해온 소금을 용진마루에서 내려, 등짐을 지고 이리 넘었다고 한다. 그 장꾼들은 여기에서 앞으로 갈 길을 가늠하며, 예전에 이곳에 오셨던 임금께 그 산길에서 무사함을 기원했을 것 같다. 의풍리는 근래에 문명의 손길이 닿았지만, 여전히 육지 속의 섬처럼 고요하다.

여행자를 위한 Tip

김삿갓 마을: 의풍 사거리에서 마흘천 따라 5리쯤 내려가면 김삿갓묘와 유적지가 나온다. 이 계곡은 김삿갓이 생전에 "무릉계"라 칭했을 만큼 빼어난 경치를 자فت다. 오염이 안 되고 보존이 잘 되어 청정지대임을 자랑한다. 그리고 산소에서 10리쯤 미대산 안으로 들어가면 김삿갓 옛집이 있다. 영월군은 이 일대를 김삿갓면으로 면 이름을 바꾸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아름다운 산수 속에서 김삿갓 시를 음미하며 여유를 찾을 수 있다.



베틀재와 의풍옛길

『마을안 알고 있는 강추진기』 8자락

8자락은 영월군 김삿갓묘역에서 단양군 의풍리, 영주시 남대리를 거쳐 봉화군 생달마을로 이어지는 3도 4개 군을 연결하는 삼도 화합의 길인 8자락은,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명과 평화의 길이다. 조선후기의 방랑시인 김삿갓(김병연)의 웃음소리가 영남지방에서 한강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물인 마흘천(馬屹川)에 아직 흐르고 있다.

점경길은 의풍에서 삼도점경공원까지이다. 행정구역과 말씨(사투리), 생활권은 달라도 한 지붕 세집 살림을 사는 곳이다.

같은 평坦하지만 사방을 둘러보면 산밖에 없다. 남쪽엔 태백산에서 소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북쪽은 백두대간 선달산에서 갈라져 나온 어래산과 삼도봉이, 그리고 서쪽은 백두대간 형제봉에서 갈라져 베를재와 마대산으로 이어진 줄기가 에워싸고 있어 지도를 들고 찾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숨은 곳이다. 그래서 정감록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일대를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 중의 하나로 정하기도 하였다.

이 골짜기엔 선달산에서 발원한 마흘천(馬屹川)이 흐른다. 남대리에서 시작한 이 시내는 김삿갓계곡을 거쳐 영월 하동의 옥동천과 합류하고, 영월에서 동강과 만나서 남한강이 된다. 경상도에서 유일한 한강 수계이다. 예전에 한양의 임금께서 경상도의 물을 먹고 싶어 소백산너머에 남대리를 경상도 땅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정말일까? 마흘천은 아무 말도 없이 한강으로 흘러간다.

남대리는 남대궐이란 말에서 유래가 된다. 어래산 기슭에 임금이 오셨기에 남대궐인 것이다. 그 임금이 후삼국 시대의 왕건이 되기도 하고, 고려의 공민왕 혹은 조선의 단종이 되기도 한다. 소백산 쪽에 진을 친 견훤의 군사와 대치하면서 머물렀던 왕건과 흥건적의 난에 부석사로 봉진하며 이곳에 머물렀다는 공민왕의 이야기도 있지만, 단종의 얘기가 더 슬프다. 서울에서 영월까지 천리가 되지 못하여 단종이 이곳까지 둘러 가며 천리를 채웠다는 이야기이다.

이곳 사람들은 단종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다. 그것은 단종이 사약을 받게 된 정축지변 때에 이곳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기에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순흥으로 귀양 온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위해 이곳에서 자주 밀사를 모의하였으나 실패하자 그를 애석하게 여긴 백성들이 이곳에 정자를 짓고 '남대궐'이라는 현판을 붙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지금 남대리엔 공사가 한창이다. 단종대왕비가 만들어지고, 조그만 연못도 만들고 있다. '남대궐을 꾸미는 것일까?' 하며 비(碑)를 만지며 어래산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 만들어 질 때에 장꾼들도 힘을 많이 보탰을 것 같다는.

원래 보부상들은 마을과 마을로 이어진 길로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베를재부터 8~9자락의 분기점인 주막거리까지 2차선 도로로 확포장 되어버려, 일제시대에 만든 산판길 따라 자락길이 이어져 있다.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 물 건너 소백산 아래로 붙어서 자락이란 이름에 걸맞고, 거의 물길 옆으로 나 있어 물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자를 위한 Tip

현정사: 현정사가 있는 '종마' 혹은 '종리' 마을은 예로부터 스님들이 많이 살았다고하여 '중마을'이라 불렸으며 나중에는 '종마'로 바뀌어 불리어졌다고 한다. 지난 2001년 경북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에 국제선원으로 창간된 현정사는 미국 예일대에서 문학과 철학을 전공했고,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을 전공하던 중, 1989년 송산 스님을 만나 이듬해 출가한 현각(玄覺)스님이 잠시 주지로 있던 곳이다. 현정사는 불교도인 정광명장(법명)이 사재를 털어 스님들의 참선수행을 돋기 위해 만든 사찰로 유명하다.



김삿갓박물관과 현정사

내륙과 해안의 소식 | 전달되던 장돌배기길 9자락

9자락은 저잣거리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보부상들이 걷던 길이다 걷다가 물기에서 밥을 해 허기진 배를 채우고, 가끔 고등어 간을 짉으며, 슬쩍 한 토막을 불에 그슬려 먹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소금을 찍어 먹으며, 힘겹게 고갯길을 걷던 보부상들. 그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9자락은 한평생 등짐과 봇짐을 진 선조들의 눈물이 스며들어 있는 길이다.

마을마다 주위 담은 구수한 이야기보따리를 집집이 날라주며 따뜻한 인방에 웃음을 전하던 방울할매의 입담 따라 만들어진 길이다.

방울길은 주막거리에서 시작하여 마흘천을 거슬러 오른다. 주막거리는 마구령에서 남대리로 넘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전에 강원도, 충청도에서 사람들이 부석에 소를 팔러 오다가 주막에 들렀는데 이곳에 주막이 많다하여 '주막거리'라고 부르고 있다.

마흘천은 계절마다 새롭다. 봄이면 갖은 들꽃들이 반기고, 여름이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인

생을 잊게 한다. 그리고 가을이면 단풍과 낙엽이 덮고, 겨울이면 꿩꽁 언 시내 위로 얼음을 지칠 수 있다. 겨울은 더 별나다. 흉내풀이 드리워진 나뭇가지 사이로 난 훌뿌려진 눈이 숲을 흑백사진처럼 만든다. 가끔 작은 골짜기를 만나면 뜻밖의 경험을 한다. 소백산 골짜에서 흘러내린 물이 겹겹이 쌓여 얼음 언덕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엉덩이를 내밀고 곡예를 할 수밖에 없다.

마흘천은 아직 방문도 나서지 않은, 아니 겨우 이불 속에서 어깨를 내미는 정도이다. 아직은 누구의 손도 미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이다. 물이 흐르는 대로 둑을 만들어 길섶을 드러내게 한다. 이제 이 물은 동강에서 남한강에서 여러 물과 만나며 먼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물 따라 만든 길 따라 인간은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 그렇게 한강에서 여기까지 온 징꾼들은 이 개울 옆에서 짐을 내려놓고 마흘천 맑은 물에 목덜미를 씻으며 삶의 짐까지 내려놓았을 게다.

큰 바위 옆을 지난다. 마흘천이 굽이 틀게 한 바위다. 바위틈에 겨울을 나는 벌통들이 정답다. 벌통을 보다가 물길을 잃어버렸다. 다시 마흘천 바닥을 찾다가 늦은목이까지 와 버렸다. 늦은목이라는 이름은 고갯길이 느릿느릿하게 길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그래서 고개에 오르는 것도 느끼지 못했나 보다. 고갯마루에 샘이 있어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은 낙동강이란다. 한강과 낙동강은 한 이불 속에서 잔 형제처럼 여기에서 그렇게 먼 길을 나선 것 같다.

늦은목이엔 이정표도 참 많다. 백두대간 능선길 안내판부터 지명 안내까지. 그 중 눈에 띠는 것이 외씨버선길 안내판이다. 외씨버선길은 청송·영양·봉화·영월군을 잇는 길이다. 이름은 조지훈의 시 “승무”에서 따 왔다고 한다. 이 길은 여기에서 선달산-어래산의 능선으로 김삿갓묘역까지 간다고 한다. 봉화와 영월은 자기네 땅 안으로 길은 내다보니 그렇게 된 모양이다. 소백산자락길과는 늦은목 이부터 오전댐까지가 겹쳐지는 구간이다. 그래도 그나마 만나니 좋다.

계단을 내려와서 건너편 산의 능선을 본다. 옥돌봉과 문수산 사이에 조그만 고개가 보인다. 주실령이다. 외씨버선길도 저 고개를 넘어왔겠지만, 예전엔 울진에서 내륙으로 넘어오는 보부상길이었다. 심이령을 넘어 어물을 짚어지고 온 이들은 물야 후평장에서 한강에서 온 소금장수와 영남 내륙에서 온 곡물장수들과 만났다고 한다. 물야(物野)라는 지명을 생각해 본다. 글자 그대로 물질이 풍부한 뜻이 아니었을까?



상신기갈대밭과 늦은맥이

속속에 가득한 웃는 소리, 10자락

10자락은 혼자 걸으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산골 마을길이다.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10자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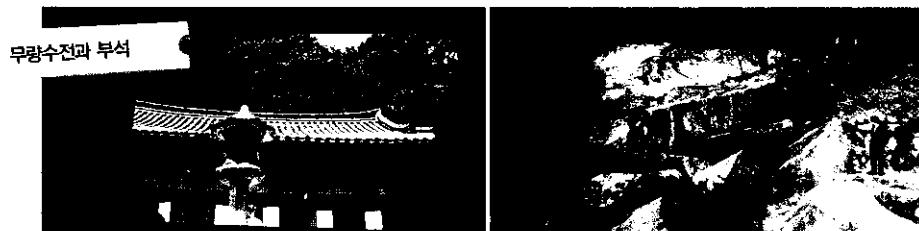
생달마을에서 호수 원쪽으로 난 큰 길로 나서면 오전약수터로 갈 수가 있다. 소백산자락은 호수의 오른쪽으로 난 오솔길이다. 여기서부터 10자락의 출발이다. 호수가 만들어지면서 물야면에서 조성하였다고 한다. 오솔길에서 보이는 건너편의 풍경도 아름답지만 호수에 어린 풍경은 더 예쁘다. 물속에 있었던 마을을 떠올려 본다. 댐 아래 마을길 따라 집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집들이 마주보고 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장터가 아니었던가 싶다. 큰 장이 아니더라도 백두대간 한 가운데 장이 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길이란 걷는 길밖에 없었던 예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 장은 없어졌을 것이다. 또 장 이름도 후평장(後坪場) 즉 뒤틀장터 이니 더 재미있다.

여기가 물에 잠긴 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다. 그 이전에도 장이 서는 것을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지금 그 장터의 흔적을 댐 아래 마을에서 볼 수가 있다. 두어 채 남은 마주 보는 가게의 모습이다. 그 집 앞에 서서 옛 모습을 추리하며 돌아서다가 흙벽돌로 지어진 우사(牛舍)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분명 소들의 숙소는 아니었을 것 같다. '여행자 숙소는 아니었을까?' 하다가 길을 재촉한다. 누구도 얘기해 줄 사람이 그 집에는 없었다.

오전학예관에서 서북쪽을 바라보면 봉황산이 보인다. 부석사의 뒷산이다. 장꾼들은 여기서 그 산 아래 부석사 조음을 향해 합장했을지도 모른다. 가족의 안녕도 빌었겠지만, 여기서 바꾼 새 짐을 지고 자신이 왔던 그 길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빌었을 것이다.

소풍길은 봉황산을 바라보며 길을 재촉하면 된다. 죽터(竹基)를 지나며 깊은 골에 놀라고, 그 골마다 집이 들어 서 있다는 것에 또 놀란다. 또 마을과 마을을 구분하는 봉황산 줄기는 길기도 하지만 솔숲도 장관이다. 이곳 사방 백리 안의 주민들은 모두 신도라고 할 만큼 자주 부석사에 오른다. 예전 오전초, 물야초 학생들도 이 솔숲을 헤아려 가며, 고개 넘듯이 부석사로 소풍을 다녔다고 한다. 그들에게 이 길을 1년에 한번 당연히 가는 큰 나들이였을 것이다.

과수원 사이에 목이 없는 불상이 보인다. 가까이 가보니 철재 울타리까지 있다. "유형문화재 154호 오전리석조아미타여래좌상"이다. 봉황산 아래 참 양지바를 곳이다. 절 자리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부석사의 경계가 어디쯤일까 생각해 본다. 어쩌면 저 산을 볼 수 있다면 거기도 부석사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불상 너머로 봉황산을 다시 본다. 저녁 햇살을 받은 산이 마치 광배처럼 빛난다. 부처님의 광영이 부석사로 내리는 것 같다.



걸고 또 걸어도 부처님의 그늘, 11자락

11자락은 녹음 짙은 녹색길이었다가 온 누리가 온통 빨개지기도 하는 예쁜 길이다.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하늘이 소백산에 내린 특별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영주 '사과'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사과를 수확하는 철에는 곳곳이 온통 달콤한 사과 향으로 가득하여 빨갛게 익은 사과로 장관을 이룬다. '하나, 둘…' 부석사에 오를 때마다 숫자를 센다. 하지만 이내 그 숫자를 까먹고 만다. 계단과 계단 사이로 미련하게 살아 온 날들도 끼어들고, 축대의 바위틈으로 천년을 지키며 머금었던 옛 사람의 향기가 다시 흘러나와 우리를 훈들어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석사를 찾아온 사람은 계단을 오르며 갈팡질팡 하다가, 안양루를 지나며 속세를 잊고, 무량수전 안에서 불국정토로 들어가게 된다.

아미타불을 외며 무량수전을 둔다. 돌다보면 선묘낭자도 만나고, 낭자가 용이 되어 세 번이나 들어 올렸다는 부석(浮石)도 볼 수 있다. 의상을 사모한 선묘낭자의 끝없는 사랑이야기가 봉황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들린다. 당나라에서부터 따온 선묘낭자는 아직 부석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단다. 무량수전 안 아미타불 밑에서 석등 아래까지 등지를 틀고 석룡이 되어 부석사를 지키고 있단다. 석등 앞에서 안양루 기둥 사이로 소백산을 본다. 산줄기들이 길게 누어 저마다 자태를 뽐내면서 손짓을 한다. 저 산자락에 초암사도 있고, 성혈사도 있다. 어쩌면 의상대사가 저 산자락을 둘며 이 자리로 들어섰을 것 같다. 소백산 너머로 내뿜는 붉은 기운 속으로 이곳을 찾아 산자락을 넘나드는 대사의 웃자락이 보이는 듯하다.

어떤 사람이 부석사가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고 물었다.

"신록이 한창일 때, 갖은 꽃과 함께 어우러진 안양루와 무량수전이야 말로 최고죠!"

"글쎄요. 저녁 해가 소백산을 넘어 갈 때, 배흘림기둥에 기대어서 바라보는 낙조가 기가 막혀요."

"아니, 가을 은행잎이 떨어질 때 모습은 어떻고요. 모두가 부처님의 세상이 아닌가요?"

그러자 한 스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비가 올 때, 한 번 와 보신 적이 있나요? 모두가 절절로 부처님이 된답니다. 부처님의 은덕이 내리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 11자락 —
— 94 —
— 95 —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그 모습을 보셨을까? 그리고 정토를 생각하였을까? 문득 순흥청다리가 생각이 난다. 청다리의 청(淸)은 무량청정(無量淸淨)이 뜻하는 세계가 아니던가. 그래서 예부터 그 다리를 지나면 불국정토로 들어선다고 했다.

11자락은 부석사에서 시작한다. 부석사 주차장에서 부석면 소재지로 200m쯤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자락길이 이어진다. 눈앞은 온통 사과밭이다. 여길 지날 때마다 이 사과 또한 부석사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곳 사과가 다른 것보다 맛이 달고 깨끗한 까닭은 부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산자락 길보통이 / 꿈이 맺는 가지마다 / 봄바람에 수줍어서 / 몰래 웃던 꽃망울

한나절 / 감아온 햇살 / 풋과일로 맛한다.

수정 알 맑은 이슬 / 안으로 받아 채워 / 한 알 한 알 익어가는 / 빛 고운 부석 사과

온종일 / 꿀벌 사랑이 / 달콤하게 영근다. – 박근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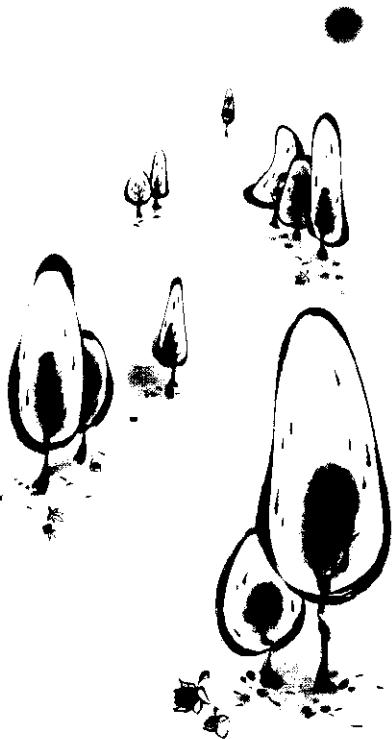
영주 사과 생산량이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이야기가 실감이 난다. 눈이 닿는 곳까지가 모두 사과밭이다. 사과밭 사이로 몇 구비를 돌다가 고개 마루에 올라 다시 돌아본다. 아직도 봉황산이 보인다. 멀리 보아도 포근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미로에 빠진 것처럼 사과밭을 사이를 한참 헤매다가 지칠 즈음이면 멀리 고갯길이 나타난다.

사그레이마을을 지나면 양지마~남절~원통이라는 작은 마을들이 생명을 잇는 실픾줄처럼 올망졸망 이어진 작은 마을길이다. 주민들은 한밤중에도 들을 지나고 고개를 넘어 마실을 간다. 여기에서 신촌 마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예전엔 그렇게 다니던 지름길이었지만,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요즘엔 더 멀어진 길인 셈이다. 단산면에 종학교가 없던 시절 학교를 다니던 길이어서 그 때 학생들에게 물어물어 찾아낸 길이다. 양지마에서 남절로 넘어가는 고개엔 무덤이 참 많다. 이젠 이승과 저승의 집을 이어주는 종교적 삶의 길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원통에서 좌석, 시거리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단산지를 옆에 두고 자개봉을 돌아간다. 지금은 단산지가 만들어져 댐이 되었지만 예전엔 단산천으로 흘러 피끌마을에 이르러 국당봉에서 발원한 죽계천과 만난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단산지는 여름에는 농토에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겨울에는 빙어를 선물하여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다.

단산천 주변 마을에는 천도를 선물받은 효성어린 선비의 얘기가 두 집이나 있는데, 그 중 천도복숭아 씨를 아직 가보로 보관하고 있는 집도 있다. 그 천도를 얻은 무릉도원으로 들어가는 석문이 자개봉 그 어디쯤에 있다고 전해진다.





• 자작펴나지 못한 금성대군의 발걸음, 12자락

12자락은 단종과 금성대군의 한이 서린 길이다.

탐방로 대부분 국립공원지역으로 생태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다. 옛 모습 그대로의 서낭당, 심마니들이 잠시 머물던 산막터, 충신 배순이 운영하던 대장간 터를 볼 수 있다. 구불구불 시골길을 마주하게 되는 소백산자락길 12자락의 마지막 길이다.

작석에는 두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고치재로 가는 길이도 또 하나는 자작재를 넘는 길이다. 자재기 길을 걷기 위해 자작재로 간다.

고치재를 넘으면 마락을 지나 소백산자락길 8자락을 만난다. 고개 마루에 산령각이 있는데, 두 분의 신령을 모시고 있다. 한분은 단종이고, 또 한 분은 금성대군이다. 여기 사람들은 단종은 태백산신이 되었고, 금성은 소백산신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월에서는 단종이, 영주 쪽에서는 금성이 신격화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서낭당이 두레골서낭당이다.

자작재에 오르기 전 큰 바위가 멀리 보인다. 미을 이름의 유래가 된 앉은 바위(坐石)이다. 옛날 마귀 할멈이 소백산에서 반지를 잃었는데 그 반지를 찾으려고 산을 파 내려가 골짜기가 생기고, 땅 속에서 나온 큰 바위가 골짜기를 굴러 내려오다가 지금의 자리에 멈추어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이 바위를 중심으로 윗마을은 상좌석(上坐石), 아랫마을은 하좌석(下坐石)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재기란 말은 자작자작 걸어서 넘는다는 뜻이다. 소백준령을 넘는 고치재에 비해 훨씬 낮은 고개임을 암시해 주는 말이다.

자재기길과 서낭당길은 장안사에서 만난다. 새로 지은 절집이어서 보기보다 조용하다.

장안사 맞은편에 두레골서낭당이 있다. 행정구역은 단산면이지만 순흥면 사람들에게 소중한 공간이

다. 해마다 정월 보름에 순흥 사람들은 큰일을 치른다. 하나는 순흥도호부 시절부터 행해 오다가 일제 때 멈추었던 "순흥큰줄다리기"의 재현이고, 또 하나는 금성대군을 받드는 "두레골서낭제"이다.

1990년 두레골서낭제를 취재한 적이 있었다. 정월 열나흘 새벽, 서낭당 앞에서 얼음을 깨고 목욕을 했다. 70고령의 어른들과 함께 24시간을 지내며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금성대군을 보았었다. 200년 가까이 지내오는 제사였다. 새미을운동이 한창이던 그 때, 미신이다 뭐다 하며 서낭당을 부수던 그 때에도, 누가 뭐라고 하던 묵묵히 이 일을 지켜온 분들이었다. 정월 첫 장날 소(牛)를 한 마리 사서 제삿날까지 정성을 다해서 먹이고, 마을에서 가장 정결한 사람을 선별해서, 열흘 가량 합숙을 시켜가며 몸을 정갈히 하여 보름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리고 제를 올리며, 나라님(대통령)부터 미을의 집집마다 복을 달라고 금성대군에게 빌었다. 뱃사람처럼 삶의 터전에 생사를 걸어둔 것도 아닌 산골에서 까다로운 의식을 지켜가며 이 일을 해 온 그들의 삶은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의 의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다.

장안사 앞을 지나 바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 다시 소백산 속으로 들어간다. 두 사람이 겨우 비켜 지날 정도의 길이 보기 좋게 이어져 있다. 운이 좋으면 산짐승들의 배설물을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세계이다. 너무 조용하다. 가끔씩 펭이 놀라 날아가면 그 소리에 더 놀란다.

점마에서 덕고개라는 덕현마을을 지나면 마을 어귀에 덕고개서낭당이 모셔져 있다. 서낭당 옆에 돌무더기가 있다. 이 앞을 지나는 길손들이 치성을 드리며 쌓은 돌일 것이다. 서낭당은 소나무숲 속에 있다. 나지막한 고개와 솔숲 그리고 벼랑 아래로 흐르는 시내,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별하는 장소로 적당한 예쁜 곳이다. 서낭당 옆에 성혈사 이정표가 있다. 성혈사로 가려면 이곳에서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 한 1km쯤 사과밭사이의 비탈길을 계속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배점 마을을 지나면 소백산자락길의 끝이다. 마을 뒷산에 배순의 대장간이 있었다. 아직도 불에 그을린 돌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배순은 행실이 착하고 효도가 자극하기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는 이곳에 대장간을 차려 놓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주변에 공급하며, 소수서원에 들러 늘 퇴계(退溪)의 강의를 문 밖에서 엿들었다고 한다. 이를 안 퇴계가 직접 불러 제자로 삼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 후 퇴계가 타계하자 무쇠로 상(像)을 만들어 놓고 삼년복(三年服)을 입었으며, 선조대왕이 봉어(崩御)하시자 매달 3년 동안 삽당(朔望)에 장만한 음식을 들고 국망봉에 올라 북쪽 궁성(宮城)을 향해 곡제사(哭祭祠)를 지냈는데, 그 슬픈 소리가 궁성에까지 들려 나라에서 정려를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국망봉이란 산 이름도 그 전설 때문에 생겨났고, 배점이란 마을 이름도 "배순의 무쇠점"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여행자를 위한 Tip

성혈사(聖穴寺): 이곳은 소백산에서 의상대사가 두 번째 인연을 맺은 곳이다. 이름이 '성혈(聖穴)'이라 불리운 것은 남쪽 300m자점에 있는 동굴 때문이다. 옛날에 그곳에서 성현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요즈음 사람들은 오히려 장차 성현이 나온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한동안 고시준비생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성혈사가 유명한 것은 나한전 때문이다. 나한전은 1985년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꽃살 창호(窓戸) 때문이다. 빗꽃살, 국화 창호, 그 중 하나가 특별하다. 문짝 하나에 자라, 물고기, 물새, 연꽃, 연잎, 계, 개구리, 그리고 용과 새들을 조각해 넣었다. 마치 연못 속과 그 연못에 비쳐진 세상이다. 불국정토를 문살 속에 담고 있는 듯하다. 오랜 세월에 씻겨 단청이 모두 벗겨져 있는 문살은 세상이 어둑해져서 어느 정도 무채색이 될 때, 그 감상의 맛이 더 할 것 같다.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은 많이 닳아 있다. 내 손이 가면 더욱 닳을 것임을 알면서도 손이 저절로 올라간다.



산신당과 절마길

• 가는 방법

자동차 : 서울에서 떠날 때는 경주고속도로를 타고 출발해 영동고속도로로 갈아탄 다음 남원주IC에서 중앙고속도로로 진입한 후 풍기IC로 나간다. 931번 도로를 따라 순흥방면으로 가다보면 소수서원이다.

버 스 :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영주까지 1일 30회의 시외버스가 있다. 영주에서 부석사행 시내버스는 풍기를 경유해서 가는데 1일 15회 40분 소요된다.

열 차 : 청량리역에서 풍기, 영주 가는 새마을 무궁화호가 1일 10회 있다.

— 소백산 자락길 —

98

99

• 코스 정보

1자락 12.6km/ 4시간 30분

소수서원→금성신단→삼괴정→죽계구곡→초암사→달밭골→비로사→삼가리

2자락 15.6km/ 4시간 20분

삼가주차장→삼가호→금선정→정감록촌(금계)→풍기소방서→풍기온천→소백산

3자락 11.4km/ 3시간 20분
소백산역 → 죽령옛길 → 죽령마루 → 용부원리 → 대강면 (11.4km, 3시간 20분)
4자락 11.7km/ 3시간
당동리 → 문안골 → 마조리 → 금곡교 → 기촌리 (금곡초) (11.7km, 3시간)
5자락 15.8km/ 3시간 55분
기촌리 → 매남기재 → 대대리 → 구만동 → 보발분교 → 보발재(15.8km, 3시간 55분)
6자락 13.8km/ 3시간 25분
보발재 → 방터 → 온달산성 → 온달관광지 → 영춘면사무소 (13.8km, 3시간 25분)
7자락 18.2km/ 4시간 30분
영춘면사무소 → 동대리 → 의풍옛길 → 베를재 → 의풍리 (18.2km, 4시간 30분)
8자락 6.5km/ 1시간 50분
의풍분교 → 삼도접경공원 → 마흘천 → 현정사 → 남대분교 → 주막거리
9자락 7.2km/ 2시간 5분
주막거리 → 상신기마을 → 늦은목이재 → 생달마을 → 오전댐 (7.2km, 2시간 5분)
10자락 7km/ 1시간 50분
오전댐 → 뒤텔장터 → 봉화학예관 → 죽터 → 땅골 → 부석사 (7km, 1시간 50분)
11자락 13.8km/ 3시간 45분
부석사 → 속두들 → 소백산예술촌 → 숲실 → 사그레이 → 양지마 → 남절 → 모산 → 단산지 → 좌석(시거리)
12자락 8.0km/ 2시간 25분
좌석(시거리) → 자재기재 → 두레골(장안사) → 점마 → 덕현 → 배점 → 배점주차장
준비물 : 등산코스와 겹치기 때문에 가벼운 등산화가 좋다. 생수 한 병과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문의 : 길안내 (054-633-5636/ 010-9744-4545), 영주시청 관광산업과 (054-639-6062)

• 숙박

대청마루에 기대앉아 첨첨 산줄기를 바라보며 자연의 소리에 묻혀 도시에서의 지친 몸과 마음을 씻어내고 싶다면 선비촌 한옥 숙박체험을 추천한다. 위치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57 문의 054-638-6444, <http://www.sunbicho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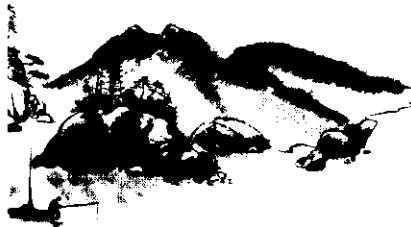
• 음식

선비촌종가집(054-637-9981)은 쇠고기국밥과 떡갈비정식이 주 메뉴로 맛이 깔끔하고 담백하다. 풍기인삼갈비집(054-635-2382)은 갈비탕에 풍기특산물인삼을 넣어 맛과 영양을 함께 넣은 음식이다.

• 주변관광명소

부석사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인 무량수전을 비롯해 많은 문화재가 있다. 무엇보다 배흘림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 앞에서 바라보는 가을 풍광이 장관이다. 위치는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문의는 054-633-3464, <http://www.pusoksa.org> 로 하면 된다.

소통의 미학 '여강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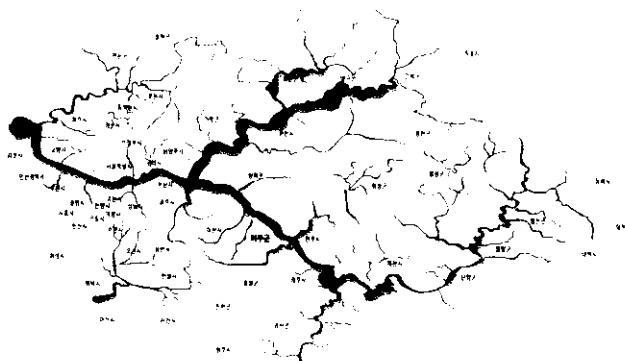


여강길 박희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여강길'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트레일이다. 여주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다. 여주사람들은 이 강을 남한강이라 부르기보다 '여강'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여강이란 명칭은 고려시대 학자인 목은 이색 선생의 '여강미회(驪江迷懷)'라는 삽귀에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여강이라 불리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여강길이라는 트레일명에서도 알 수 있듯 '여강길'은 여주에 위치한 남한강을 따라 걷는 길을 말한다.

여강길 걷기는 개발된 길과 달리 월 수 있으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길을 찾아 걷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여강길은 여주 땅을 가로지르는 여강을 중심으로 서울처럼 강남과 강북, 강동과 강서로 구분되어 있다.

자연의 길을 걷는 여강길은 3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3코스를 모두 완주하면 동서남북에서 남한강의 수려함을 두루두루 훑어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서울은 강남의 땅값이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싼 데 여주도 강남 쪽이 더 비싸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흘러오던 강물의 흐름이 강북 쪽 보다 강남 쪽이 더 완만해서 인류의 주거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한강수계의 여주구간

여강길을 따라 걷다보면 여주의 문화유적을 많이 볼 수 있다. 청동기 시대의 탄화미가 발견된 흔암리선사주거지, 고려시대부터 여강에 모습을 비추고 있는 천년고찰 신륵사, 많은 이들의 삶의 애환을 서려있는 조선시대 16개의 나루터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이 여강을 따라 걷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2009년 '여강길'이 문화생태탐방로로 지정된 후에는 걷는 이들이 강과 습지의 생태를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되어 활성화 반응이 좋다. 수려하게 펼쳐진 여강길을 걷다보면 고라니가 힘차게 뛰는 모습, 강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단양쑥부쟁이, 갈대와 물억새가 강가에 하얗게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 등이 걷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곤 했다. 강과 숲을 따라 걷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던 여강길은 현재 4대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강의 생태적 가치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하지만 장구한 세월을 묵묵히 흘려온 여강은 여전히 문화와 문명, 과거와 현재,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고, 서로의 발걸음이 교차하면서 연결되는 여강길에서는 사람과 자연의 소리 없는 소통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매달 2째 주 토요일, 4째 주 일요일에 정기걷기행사를 진행중이다.. 여강길 추천코스를 중심으로 걷고, 여강5일장 터길 등 장터를 돌아보는 길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군 관광안내소에 있는 여강길 리플렛을 참고하거나 다음 카페나 블로그에 여강길을 검색하면 여강길과 걷기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여강길 걷기 전에 사전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여강길의 재발견 구석구석마을여행



여주는 경기도 31개 시, 군중 인구 11만 규모의 군이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 자연적인 모습이 살아있는 곳이다. 경기도의 쌀특구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마을의 전형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여강길을 걸으며 지나치는 곳곳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자연부락이다. 여강길을 걸으며 다양한 농촌 생활 체험이 가능하다.

요즘은 지방마다 걷는 길이 활성화 되면서 여가생활로 각 곳의 길을 찾아 걷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길을 걸으면서 자연에 몸과 마음을 맡기다 보면 쌓였던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상쾌한 공기를 맘껏 들이 마시며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가족단위의 도보인들은 지속적으로 걷는 것만을 즐기지 않고 도보이후 가족이 함께 무엇이든 체험 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 여주는 농촌 마을이 활성화 되었기에 가족단위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고, 화목한 정을 돋독히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가족 단위의 트레킹에는 여강길이 제격이다. 자연친화적인 농촌마을을 따라 여강길을 걷다보면 마을마다 고유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을의 특색에 따른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여강길을 걸으며, 체험을 하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강과 숲길 걷기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곳이 바로 여강길이다.

2코스 시작점인 도리마을은 명성황후로 유명한 여흥 민씨의 집성촌이다. 옛날부터 수많은 전란이 여주 곳곳을 휩쓸었어도 도리 마을은 워낙 요새같은 지형에 앉아있어 전란이 도리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둑단배 모양을 한 도리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한 곳이다. 도리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은 도로 들어왔던 그 길로 되돌아 나가야하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돼래'에서 '도리'라 되었다고 한다.

도리마을을 지나가면 삼합리 마을에 도달한다. 삼합리는 경기도 여주, 강원도 원주, 충청도 충주가 인접해 있는 지형적 특징으로 삼도가 합쳐진다는 뜻을 갖고 있다. 또한 남한강, 섬강, 청미천이 만난다고해서 삼합리라는 지명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세물이 합쳐져 삼합, 세도가 합쳐져서 삼합이라고 한다. 삼합리는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 모두 아름다운 풍경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기 혹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잠시 쉬어가기도 한다.



감자캐기 체험

걸으며 낭만주의 생태와 역사문화를 만나다

고려시대 학자인 목은 이색 선생의 여강미회는 잔잔히 흐르는 여강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을 글로 잘 표현하고 있다. 여강을 따라 걸으며 역시 강을 따라 흘러온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만나 보는 것도 역사인식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강미회(驪江迷懷) / 이색(李穡/1328~1396)

天地無涯 生有涯 (천지무애 생유애)

浩然歸志 欲何之 (호연귀지 욕하지)

驪江一曲 山如畫 (여강일곡 산여화)

半似丹青 半似詩 (반사단청 반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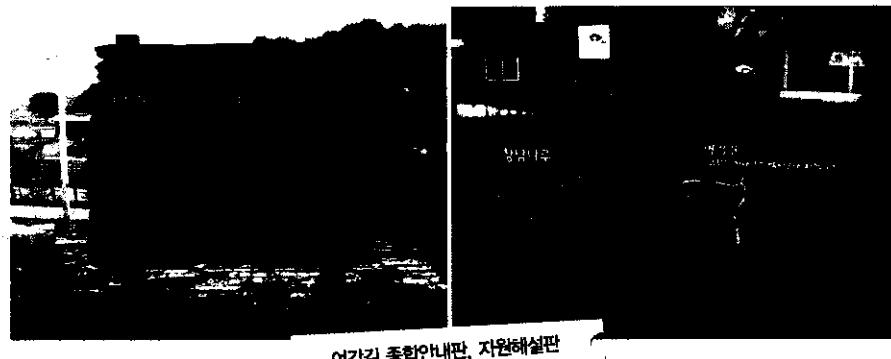
여강에 빠진 마음 / 이색

천지는 끝없고 인생은 유한하니

호연한 돌아갈 뜻, 어디로 갈까.

여강 한 구비, 산은 마치 그림 같은데

절반은 단청그림, 또 절반은 시 같구나



여강길 종합안내판, 자원해설판

여강길 1코스 '옛나루터길'에는 나루터마다의 고유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다. 마을의 출입구가 하나라서 도로 나와야 한다는 도리마을에서는 걷기에 힘들었을 다리풀을 쉬어가는 동시에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다.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했다는 구불구불 아홉 고개 아홉사리길을 걸으며 내려다보는 여강의 물길은 가히 일품이다. 나무들 사이로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은 은어떼들의 움직임처럼 찬란해 걷는 이들의 발걸음을 자주 멈추게 할 만큼 매력적이다.

2코스 '세물머리길'에서는 3도가 합쳐지는 곳에 위치해 이름 지어진 산합리, 청미천을 끼고 도는 중군이봉, 한지체험학교로 다시 살아난 안평분교, 법이 샘처럼 솟는다는 뜻의 고려시대 절터 법천사지, 조선시대 세곡을 모아두었던 창고 총원창, 해 뜨는 모습이 아름다운 해돋이산길을 만날 수 있다.

3코스 '바위늪구비길'에서는 용이 되기 직전의 이무기가 살았다고 전해 내려오는 바위늪구비, 옛날 여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여성생활사박물관, 대감이 다섯 명이나 살았다는 오감도토리마을, 불교에 관한 자료가 가득한 목아불교박물관, 산속이 아닌 강가에 위치해 있어 여강의 물결을 마주 할 수 있는 천년고찰 신륵사를 만날 수 있다.

여강길은 1,2,3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5Km이다. 여강길은 탁 트인 강 주변 풍광의 수려함으로 인해 계절에 상관없이 걷는 동안 마음과 눈이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다. 여강길이라고해서 강길만 걷는 것이 아니다. 걷는 동안 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길이 중간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것이 여강길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산의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산의 둘레를 돌아 가기 때문에 걷는 길의 경사도 원만하여 남녀노소 누구라도 쉽게 도보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강을 따라 걷는 길은 그늘이 없어 여름에 도보하기 불편할 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늘이 없는 강길 대신 산길을 자선으로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여름에도 더위 걱정 없이 그늘에서 마음껏 도보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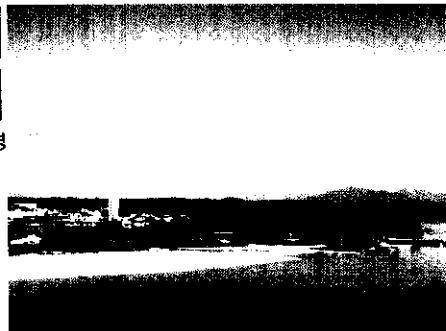
달을 맞는 누각과 황포돛배

여주터미널에서 출발하면 '달을 맞는 누각'이라는 영월루(迎月樓)에서 남한강(여강)을 볼 수 있다. 동산에 위치한 영월루에 오르면 달의 정기를 받는 여주 시내권이 한눈에 조망됨은 물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굽이치는 강을 볼 수 있다. 영월루에는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이 좋아 인근 지역사람들은 이곳에서 약수를 받아 마신다.

영월루를 내려오면 제방을 쌓기 전 모래에서 은빛이 난다고 해서 은모래금모래라고 부르는 강변유원지를 지난다.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들은 생각만 해도 아련한 동심을 느끼게 한다.



황포돛배, 명월루에서 바라본 전경



남한강과 연양천의 합수지점에서는 여강의 명물인 황포돛배를 탈 수 있다. 황포돛배는 누런 포를 뜻에 달고 바람의 힘으로 물자를 수송하던 배를 말한다. 고려 정종 때에는 충주 덕흥창과 원주 흥원창 등 전국에 12개의 창을 세우고 쌀을 운반하던 배 20척씩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돛배가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황포돛배는 한양과 중부권을 이어주던 수상교통 수단이었던 황포돛배를 재현한 것이다. 황포돛배를 타고 여강을 따라 유람하다보면 새삼 자연의 아름다움에 자질로 경탄하게 된다.

여주에는 수운이 발달했던 시대에 정류장 노릇을 하던 나루터가 많은데 그 중 이호, 부라우, 우만리 나루터가 있다.

여행자를 위한 Tip

황포돛배는 금은모래관광지 나루터에서 출발하여 소인 3,000원, 대인 5,000원 의 이용요금으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소요시간은 약 30분정도이다. 문의사항은 031-887-2866 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생야생화단지와 이호나루터

은모래금모래 강변유원지를 지나 강천보에 도착하기 전에 수생야생화단지를 볼 수 있다. 강변에 위치한 대규모 수생야생화단지에서는 여러 종류의 초본과 목본류를 만날 수 있다. 수생야생화단지는 인근 황학산수목원과도 이어져 있다. 수생야생화단지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입구와 출구가 다르기 때문에 도보로 이호나루터까지 갈 수 있다.

이호나루터는 강천면 이호리 배미마을에서 남한강 건너편 연양리를 연결하던 나루이다. 배미마을은 마을 앞에 배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배미라 불렸다. 이호나루터는 승용차를 나르는 배도 있었을 정도로 큰 나루였지만 현재는 나루터의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일제 강점기에는 기생집이 있었을 정도로 번창하여, 동네주민들은 “동대문 밖에선 여기가 살기 제일 좋았다”고 추억담을 말하기도 한다. 현재 이호나루터 자리에는 이호대교가 생겼으며, 다리가 생긴 이후 나루터의 기능을 잃었다. 이곳은 강의 제방위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걸을 수 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어 가슴까지 탁 트인 느낌을 주는 코스이다. 현재는 자전거 도로와 연동되어 있다.



수생야생화단지, 이호대교

붉은 바위에서 부러운 바위 - 부리우루터와 우만리

부라우라는 말은 외래어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순 우리말이다. 부라우나루터 주변 강변에 는 커다랗고 멋스런 바위가 강속에 자리잡고 있다. 오래 전,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가 유난히 붉은 빛이 많이 돌아 붉은 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붉은 바위는 계속 구전되어 오며 붉은바위가 북바우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부라우로 변화되어 마을 이름이 되었다. 이 나루터는 여주읍 단현리와 남한강 건너편의 강 천면 가야리 지역을 연결하던 나루이다.

부라우나루터는 강과 바위가 어우러진 모습이 절경이다.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을 만큼 큰 바위가 있고, 이 바위 위에 앉아 둘러보는 풍경이 이만저만 좋은게 아니다. 앞은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강이요, 뒤로는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숲이다. 바위 위에 앉아 쉬노라면 산과 강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길손의 송글송글한 땀방울을 부드럽게 닦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부라우 마을 고갯마루에는 당시 세도가인 민참판댁 외가가 있었다고 한다. 명성황후 생가가 있는 능 현리는 여종 민씨의 집성촌이었다. 부라우나루터에는 너럭바위가 있는데 너럭바위에는 육모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바위엔 육각의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 남아 있어 육모정터가 있었던 곳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너럭바위엔 단암(丹巖)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다. 단암이란 조선시대 인현황후의 친오빠인 민진원의 호다. 너럭바위에 새겨진 단암이라는 각자의 글씨체는 민진원의 친필이다.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을 여강이라 부르는데, 여강 중에서도 부라우나루터를 지나는 강을 조선시대에는 단암 민진원의 호를 따 단강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를 통해 그 당시 단암 민진원의 세도를 포함해 민씨 일가의 세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강과 산이 만들어낸 풍경과 그 안에서 오밀조밀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붉은바위, 단암으로 이어지니 이것이 부라우나루터의 스토리텔링이다.

부라우나루터에서 우만리나루터가는 길은 강을 끼고 있는 산길이다. 여름의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그늘 아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다. 4대강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이곳을 지날 때면 가슴까지 저며드는 강여울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현재는 공사로 인해 강이 막혀 여울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여울물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아쉬움이 큰 부분이다.

우만리나루터로 가는 길에 조용히 앉아 참선을 할 수 있는 너럭바위도 들렸다 갈 수 있다. 이 너럭바위 주변에서는 바위솔, 돌단풍 등을 볼 수 있다.

우만리나루터에는 300년가량 된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 나루에는 어느 곳을 불문하고 커다란 느티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데, 느티나무가 나루터의 이정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느티나무는 이정표 역할 뿐 아니라 나루에서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터를 제공하기도 했을 것이다.

여강길 1코스 시작점인 여주터미널에서 출발해 부라우, 우만리나루터를 지날 즈음은 점심시간이다. 강나루터에 둘러 앉아 상큼한 바람을 맞으며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 하면서 먹는 점심은 어느 호텔의 일품요리 부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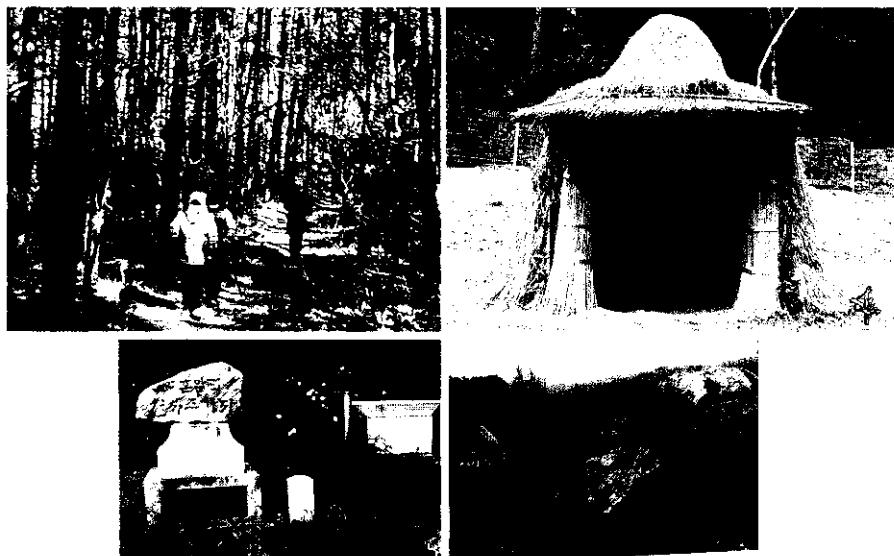


부라우나루터와 우만리나루터

흔암리나루터와 흔암리선사주거지

우만리나루터에서 흔암리나루터까지 가는 길은 선택해서 갈 수 있다. 길은 두 갈래로 마을길을 관통해 걷는 간선과 산길로 걷는 지선이 있다. 산길은 걷는 중간 중간에 나무들 사이로 푸르른 강이 조망된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강의 모습은 사계절 색깔을 달리해 언제, 어느 때 걷더라도 늘 색 다르다. 길은 높낮이가 있어 걷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내려다보이는 강물로 인해 즐겁게 도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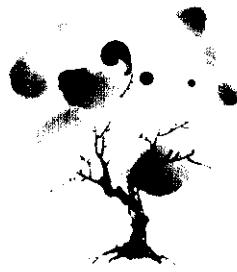
1코스 옛나루터길은 총 거리 15.4km로 나루터의 흔적을 찾아 가는 길이다. 특히 우만리 마을나루터에서 흔암리 옛나루터까지의 구간은 부드러운 솔길이 1km로 이어져 있다. 이 구간은 소나무가 즐비하게 들어섰고 안으로는 오솔길이 나있어 걸으면 걸을수록 솔향기에 흠뻑 취하게 되어 좀 더 걷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코스다.



흔암리오솔길과 선사주거지

흔암리라는 지명은 마을에 위치한 바위가 희기 때문에 흰바위, 흰바위라고 불러 흔암리라 한다. 흔암리나루터는 여주군 첨동면 흔암리의 흰바위마을에서 남한강 건너편의 강천면 굴암리를 연결하던 나루이다. 나룻배가 없어지기 전 까지 여름철이면 흔암나루에서 원주에 있는 개진나루까지 나룻배를 끌고 가서 배를 타고 내려오는 뱃놀이를 하였다. 뱃놀이를 할 즈음 마을 개천가에서는 웃말과 아랫말로 나누어 '흔암리쌍용거줄다리기'를 하면서 승부를 겨뤘다. 재미있는 것은 줄다리기를 할 때 사용하는 줄의 재료는 반드시 상대편 동네에서 훔쳐와 줄을 꼬았으며, 줄다리기가 끝난 후에는 '액막이'라고 하여 그 줄을 개천에 버렸다. 흔암리쌍용거줄다리기는 300년의 전통을 지닌 문화유산으로 1989년에는 전국민속문화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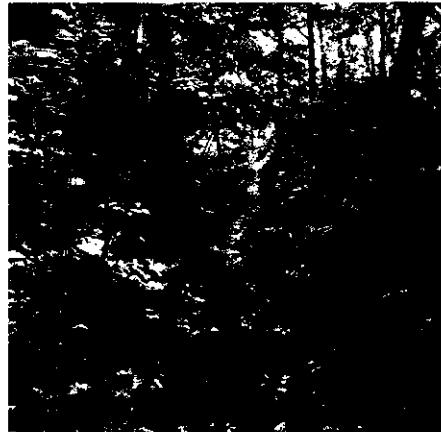
흔암리 마을을 지나면서는 흔암리 선사주거지를 볼 수 있다. 흔암리 선사주거지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이다. 이 시대는 석기시대와는 다르게 농경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낮은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밭농사가 이루어져 사냥이나 채집에 의해 식량을 의존하지 않고 경작과 불을 이용한 방식이 도입되어 농업시대를 열게 된다. 흔암리 유적지에서는 화덕자리와 토기 안에 탄화된 쌀을 비롯하여 조, 수수, 보리, 콩 등이 출토되었다. 여러 잡곡이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유적이다. 현재는 과거의 생활사를 움집 형태로 복원해 놓았다.



• 아홉사리과거길과 도리마을

아홉사리과거길은 혼암리와 도리를 연결하는 오솔길이다. 길이 좁고 험하기도 하지만 굽이굽이 아홉 구비를 돌아간다고 해서 아홉 사리이다. 또한 아홉 개의 봉우리가 국수사리처럼 돌돌 말려 있다고 해서 아홉사리라고도 한다.

아홉사리과거길은 소무산의 둘레를 걷는 형태이다. 경상도, 충청도에서 옛날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갈 때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도로가 발달하면서 사용하지 않아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여주장날이면 아홉사리를 넘어 여주읍내 장에 다녔다는 도리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50여 년전 까지 아홉사리 길을 이용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아홉사리과거길에는 현재 39종의 식물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특히 멸종위기2급 총층동굴레의 군락지가 발견되어 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이 아홉사리과거길을 많이 찾는다.



아홉사리과거길

옛날에 지방에 사는 선비들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했는데, 지역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 저마다 달랐다. 경상도 지역의 과객들은 꼭 문경새재를 넘어 한양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문경새재가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과거 시험에 꼭 붙어야 하는 선비들에게 죽령은 '죽죽 미끄러'지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곳이었고, 추풍령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서는 안될 길이었다. 그랬기에 선비들은 과거시험을 보러갈 때 멀더라도 문경을 선호했다고 하니 과거 시험 합격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선비들이 어렵사리 문경을 지나 강을 따라 올라 한양으로 가는 길에는 여주의 아홉사리과거길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선비들의 애환이 서린 아홉사리 고개는 매년 9월 9일 아홉 번째 고개에 피는 구절초를 꺾어 약으로 닦여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한 아홉사리 고개를 넘다 넘어지면 아홉 번을 굴러 야만 살아서 넘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홉사리 고개를 넘어 흔암리로 가는 길은 그 옛날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굽이굽이 길을 걸어 한양으로 가거나, 한양에서 돌아온 길에 목을 죽이던 주막자리로 인해 더욱 정취가 느껴지는 곳이다.

아홉사리과거길을 지나면 도리마을이 나온다. 도리마을은 청미천과 남한강이 합수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예부터 강의 지속적인 범람으로 인해 땅이 비옥해 농산물이 잘되는 마을이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어, 계절별로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두부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농산물 생산자와 직거래도 가능하다.

도리마을에서 1코스가 끝나면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터미널까지 갈 수 있다. 도리 마을과 터미널을 이어주는 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버스시간을 알아두고 도보를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여주 터미널까지 도착할 수 있다.

삼합리와 개치산루터

고즈넉한 건쟁이 마을까지 가는 길은 사진에서나 볼 수 있음직하게 고불고불 하다. 청미천의 조출한 여울을 건너, 크고 작은 강들을 보며 모랫길을 따라가면 청미천을 건너는 삼합교가 나온다. 삼합교를 지나면 닭이머리 마을이다. 닭이머리라는 지명은 마을의 모습이 닭의 머리를 닮아 닭의머리로 불리다 닭이머리가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닭이머리는 행정구역상 삼합 2리이다. 삼합은 말 그대로 세 곳이 합쳐짐을 이른다. 세강(남한강, 청미천, 섬강)과 삼도(강원, 경기, 충청도)가 한 곳에서 만난 것에 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삼합리에서 개치나루터까지 가려면 한티재를 넘어야 한다. 삼합리 예배당 앞으로 가면 고개 넘는 입구가 보인다. 그중 가장 낮은 봉우리를 건너면 충청남도 충주시 양성면 단암리이다. 낮은 봉우리를 건너는 길도 잊혀졌던 옛길을 발굴한 곳이다.

2009년 문화생태탐방로 지정시 개치나루까지 가는 코스는 삼합저수지를 지나는 길 이었으나, 차량 통행도 많고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이동 동선을 현재의 코스로 옮기게 되었다. 한티재의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가면 충주쪽의 남한강과 강원도의 부론면 소재지가 한눈에 조망된다.

개치나루터까지 가는 길은 온통 논밭이다. 푸른 잔디밭을 연상케 하는 여름이 지나 벼가 익어가는 가을이 되면 길 주변은 온통 황금물결이다. 바람결에 출렁이는 황금물결을 바라보면 걷는 기분은 가히 환상이다.

개치나루터에서는 복원해 놓은 황포돛배를 볼 수 있다. 개치마을은 법천리 남서쪽 안에 있는 부론면의 중심 마을로 행정구역으로 법천1리이다. 충북 충주시 양성면으로 통하는 개치나루터를 배경으로 발달된 마을이기도 하다.

경기도 여주에서 걷기를 시작해 충청도 충주를 지나 남한강을 건너면 강원도 원주다. 1시간 내에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삼도를 넘나드는 경험은 매우 특별하게 기억 될 것이다.

개치라는 이름의 유래는 '개'는 강이나 내에 물이 드나드는 곳, 포구를 말하며 '치'는 고개이므로 물이 드나드는 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개치에서는 신경림 시인의 '개치나루' 시를 읊어 보는 것이 제격이다.

이곳은 내 진외가가 살던 고향이다
그해 봄에 꽃가루가 날리고
꽃바람 타고 역병이 찾아와
마을과 나루가 죽음으로 덮이던 고장이다

다시 전쟁이 일어
내 외로운 친구 숨죽여 떠돌다가
저 느티나무 아래
몰매로 묻힌 고장이다

바람아 다 잊었구나
늙은 나무에 굵은 살구꽃이 달려도
봄이 와서 내 친구 꽃에 불어 울어도
바람아 너는 잊었구나 그 이름
그 한 그 설움을

이곳은 내 진외가가 살던 고향이지만
죽음 위에 꽃가루 날리던 나루이지만
원통하게 내 친구 묻힌 고장이지만

모두 다 잊어버린 장바닥을 돌아
한산한 대합실 나무의자에 앉아
읍내로 가는 시외버스를 기다린다
바람아 너는 잊었구나 그 이름
그 한 그 설움을

여행자를 위한 Tip

여강길의 사계절은 봄에는 연둣빛 풀잎이 돋아나는 생기 넘치는 강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여름 한낮에
는 강수욕을 즐기고, 가을엔 끝 간 데 없이 핀 물역세가 지평선을 만드는데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다.
눈 내리는 여강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철새들의 자태는 겨울철 여강길의 백미이다.

법천사지

법천사지는 법문이 샘처럼 솟는다는 뜻의 절터이다. 법천사지로 가는 길은 시골의 정취가 물씬 풍겨 도시에서 온 이들은 시골의 향취를 맘껏 느낄 수 있다. 여름에는 눕고 싶을 만큼 파란 벼를, 가을이면 황금물결 치는 벼의 모습을, 겨울이면 황망한 가운데도 눈밭에 뒤덮인 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계절별 모습을 달리해 작물이 지라나는 모습을 보며 걷다보면 법천리에 다다른다.

강원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이 되어있는 법천사지는 그 규모가 엄청나다. 절터로 짐작되는 곳만 어림잡아도 법천사가 과거 얼마나 대단한 가람이었는가를 가늠케 된다. 법천사지터 앞에는 최소 300년이 넘었을 거목이 있다. 이 거목 아래 서면, 거목에서 법문이 흘러나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만큼 신비로운 기운을 주는 나무다.

법천사 최초의 기록은 928년(경순왕 2년)으로, 신라 말기 이 지역의 대표적 사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천사지에는 국보 제59호인 지광국사현모탑비 외에 당간지주가 있다.



법천사지 당간지주, 지광국사현모탑비

속명이 원해린인 지광국사는 삼종대사·승통·왕사·국사의 칭호를 받았고 1070년(문종 24) 법천사에서 입적했다. 지광국사현모탑비는 고려시대의 양식을 특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으며 경복궁에 있는 국보 제101호 현모탑과 함께 우리나라 부도 중에서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지광국사현모탑비 뒷면에는 1,370여명의 국사의 제자 이름 및 인원수가 적혀 있다.

1085년에 세운 지광국사현보탑비의 윗부분에는 하늘을 나는 천녀, 해, 달 등과 함께 불교의 이상 세계인 수미산을 섬세하게 새겨 놓았다. 비석을 업고 있는 이수부분은 연꽃잎과 구름 속의 용을 조각하였다.

천년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들어 낸 법천사지는 사공을 뛰어 넘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불교의 이상 세계가 이름답게 조각된 탑비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불법을 전했을 지광숙사의 법문이 들려오는 듯 해 저절로 숙연해 진다.

이렇듯 길을 걷다 문화재를 만나면,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반면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아픔과 제 자리를 떠나 먼 이국땅에서 외롭게 서 있을 수많은 문화재의 한탄이 들리는 듯 해 가슴이 저려 오기도 한다.

홍원창과 자연

홍원창은 고려시대 13개 조창 중의 하나로 세곡을 모아두던 창고였다. 홍원창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충주의 가흥창과 더불어 남한강의 중요한 창이었다. 주로 평창이나 정선, 횡성, 원주와 같은 강원도 영서내륙지방의 세곡이 모이던 곳이다. 홍원창에는 세곡의 운송을 위하여 200석을 적재 할 수 있는 평저선 21척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당시에는 무척이나 컸을 홍원창은 현재 홍원창이라고 쓰여 있는 표석만이 이곳이 홍원창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홍원창에서 바라보는 남한강은 섬강을 받아들여 바다와 같이 드넓게 여주로 흘러 여강이 된다. 홍원창 맞은편으로 보이는 자산은 기암괴석으로 되어 있어 마치 한쪽의 잘 그려진 산수화를 보든 듯 풍광이 뛰어나다. 옛날부터 경치가 뛰어난 산은 신선이 사는 곳으로 신성시되어 왔다. 자산 또한 그림 속에서 나온 듯한 풍광으로 인해 예로부터 신선이 사는 곳으로 여겨져 왔다. 자산에는 신선들이 몸에 좋은 약을 제조할 때마다 불그스름한 구름과 같은 연기가 피어 오른다는 이야기와 함께 자산(紫山)에 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똑바위와 푸른 숲으로 어우러진 자산은, 자산 아래를 지나는 섬강에 모습이 비칠때면 마치 붉은 꽃을 피운 복승아나무가 가득 심어진 산으로 보인다고 한다. 신선들이 양식으로 삼기 위해 심어놓은 복승아나무들이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투명한 강물을 비치면서 복승아나무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이다. 신선들이 심어 놓은 복승아나무 때문에 물에 비친 온 산이 붉어 산 이름도 자줏빛 자, 혹은 신선들이 사는 집이라는 뜻의 자(紫)를 써서 자산(紫山)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늘 불로장생을 꿈꾸며 산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사람들은 어느 날 부터인가 자산에 있는 신선의 복승아를 따먹으면 자신도 신선이 될 것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겉잡을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물속에 비친 복승아를 따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들고 결국엔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자산이다. 자산의 전설을 통해 사람의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혀되고 부질없는지를 알 수 있다.

섬강에서 바우|늘 구# 까지...

섬강의 여울 물소리를 들으며 상류로 가다보면 강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여울가 소가 발달한 섬강은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잡힌다. 동공이 고양이처럼 열리고 닫힌다는 멸종위기어류 꾸구리도 섬강에는 많이 있다. 강가를 걸을때와 섬강교 위에서 강을 바라보는 것은 느낌이 참 다르다. 청각, 촉각, 후각, 시각을 다 열어 놓고 섬강가을 지난다면 이러한 이유로 그냥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해돋이 산길은 낮으막한 산길이다. 닷둔리와 강천리를 이어주던 옛길이었다. 교통이 발달로 마을들은 이길을 통해 왕래하지 않는다. 이 길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달지 않아 옛날 길을 지나던 사람들

을 떠올릴 수 있다. 이 산길에서 두 개의 계곡을 지나치네 계곡물이 맑고 깨끗해 가끔 목이 마를 때 면 목을 죽이고 지나칠 때도 많다. 30여분을 걸어 나오면 바위늪구비가 나타난다.

바위늪구비는 남한강의 물이 늘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늪이 였으나 지금은 샛강이 되었다. 굳센 바위와 검은 물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 여려워 그곳에 이무기가 산다는 전설이 전해졌으며, 전설을 들으며 자란 마을 사람들은 무서움 때문에 늪의 깊이를 재지는 못했다고 한다.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은행나무가 양옆으로 늘어서있는 길을 지나친다. 고운 모래 길에서 사각거리며 속삭였던 멀종위기 2급식을 단양쑥부쟁이는 바위늪구비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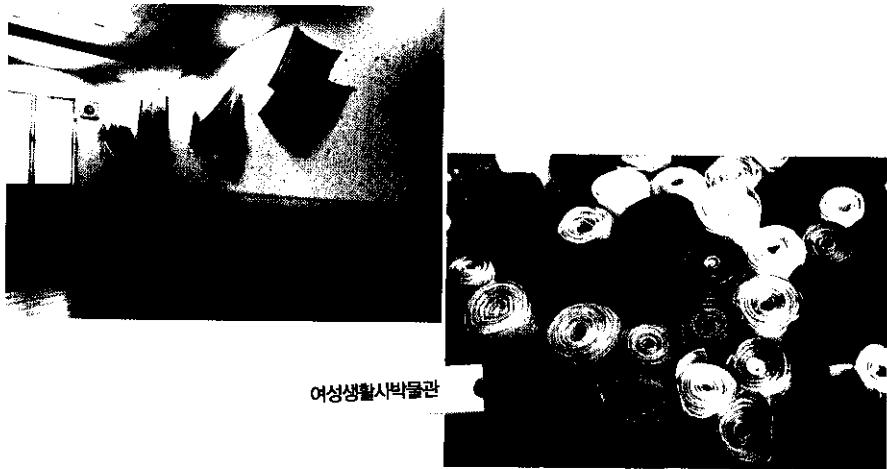


바위늪구비, 단양쑥부쟁이

서리가리와 불가리

강천면 굴암리에 위치한 강천초교 강남분교 폐교에 자리한 여성생활사박물관은 우리 선조들의 실생활에 이용되었던 생활용품 및 장신구들을 전시 하고 있다. 전시물들을 통해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다. 우리의 색을 찾기 위해 천연염료로 물들인 천으로 전통 의상을 만들어 전시한 것은 물론 방문객들이 천연염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여성생활사박물관은 잊혀져가는 고유의 민속 문화를 조사 발굴하여 연구하며, 자연 식물을 이용해 우리 고유의 빛깔을 만들어 낸다. 이를 문화교육 및 생활문화 전시로 재조명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문화의 마당으로 방문객들을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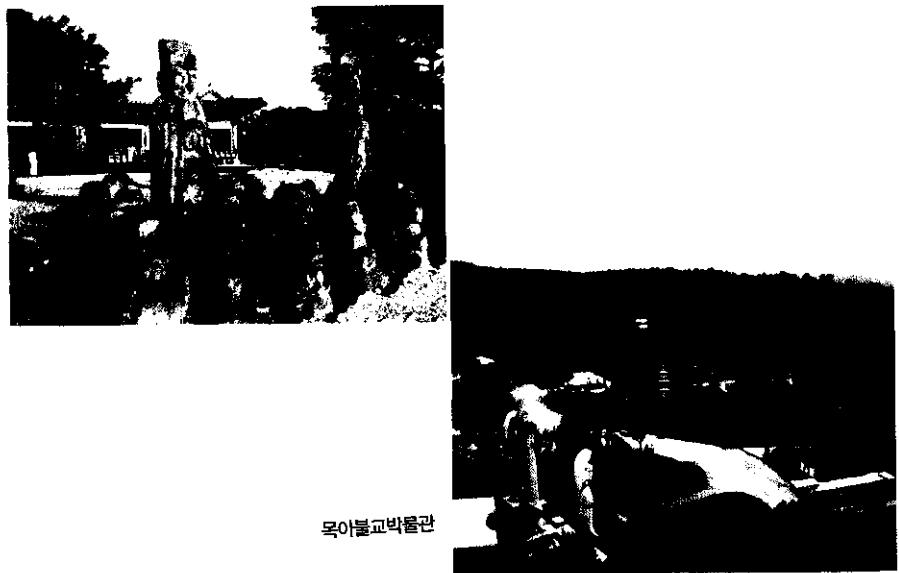


오감도토리마을은 고려 때 이 마을에만 다섯 명의 대감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한강 주변이라 땅이 비옥하고 풍경이 아름답다.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감자, 고추심기, 물고기잡기 체험이 가능하다.

목아박물관은 무형문화재 제108호인 목아 박찬수 선생이 설립한 동양 최초의 불교 박물관이다. 선생이 수집한 6,000여점의 불교 관련 유물과 자신이 제작한 작품들이 실내외에 전시되어 있다. 목아박물관은 전시와 문학공연을 통해 불교문화를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행자를 위한 Tip

1. 오감도토리마을에서는 도토리죽만들기, 도토리송편만들기, 제기만들기 황토염색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연중 진행되고 있다. 체험예약은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오감도토리마을 – <http://ogam.invl.org>
2. 목아박물관 관람시간은 3월~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11월~2월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 까지이다. 연중 개방중이고 입장료는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노인/어린이가 3,000원이다.



목이불교박물관

천년고찰 신륵사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강가에 위치한 사찰이다. 신륵사는 고려 우왕2년(1376년)에 나옹선사가 입적하면서 유명 사찰이 됐고, 조선시대에는 영릉(세종대왕릉)의 원찰이 되면서 증창의 기회를 맞았다. 신륵사 경내에는 보물로 지정된 다층석탑, 다층전탑, 보제존자석종, 보제존자석종비, 대장각기비, 보제존자석등, 조사당 등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남한강가에 나와 있는 멋진 건물이 나옹화상이 입적한 강월현이다. 신륵사 앞으로 조선시대에 4대 나루였던 조포나루터가 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 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나옹선사-



신륵사 다층전탑, 신륵사 강월헌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관광지도입니다.]

• 가는 방법

자동차 : 영동고속도로 여주IC에서 우회전한 후 37번국도를 타고 4km 직진한다. 터미널 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여주대교 건너기 전 상리사거리에서 우회전 1km 직진 삼거리에서 좌회전 101번 도를 타고 1km 가다보면 좌측에 위치한다.

버 스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에서 30~40분간격으로 여주행 버스가 있다. 여주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은모래금모래까지 5,000원 안쪽의 비용이 나온다.

• 코스 정보

1구간 옛나루터길 15.4km / 5~6시간

여주버스터미널 → 은모래금모래 → 부라우나루터 → 흔암리선사주거지 → 아홉사리과거길 → 도리마을회관

2구간 세물머리길 17.4km / 6~7시간

도리마을회관 → 중군이봉 → 삼합교 → 삼합리 → 개치나루터 → 흥원창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관광지도입니다.]

120

121

3구간 바위늪구비길 22.2km / 7~8시간

흥원창 → 닷둔리 해돋이산길 → 여성생활사박물관 → 목아불교박물관 → 신륵사/조포나루

준비물 : 여강길은 강을 따라 걷는 길이 있어서 그늘이 없으므로 선크림, 모자 등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용품은 필수이다. 생수 한 병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문의 : 여주 여강길 031-884-9089

• 숙소

도리마을체험관에서 시골마을 민박을 한다. 010-9353-0977 신륵사에서도 템플스테이를 운영중이다. 매주 주말 체험형과 상시 운영하는 언제나 휴식형중 선택가능하다. 신륵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참여신청 게시판에 문의 하면 된다.www.silleuksa.org/

• 음식

여강길은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이곳에서 자란 잉어·쏘가리 등 민물고기로 만든 매운탕이 뛰어나다. 여주쌀밥과 더불어 잉어도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했을 정도이다. 신륵사 관광지내 강 주변으로 매운탕집이 많다.

• 지역자원 및 축제

여주 5일 장터

여주는 크고 작은 마트와 대형 쇼핑몰이 많이 들어섰다. 그런데도 달력 끝자리 5, 10일(일명.오땡장)이 되면 어김없이 장이 서고, 여주장에는 사람이 붐빈다. 여주재래시장에는 전통먹거리와, 잔막걸리, 여주 토종상품이 나온다. 여주 5일장은 달라는 만큼 주는 경제성과 시골의 풍요로움이 있다. 장날이 곧 마을 잔칫날과 같다.

세종문화큰잔치

10월 한 달간 지속되는 축제다. 세종대왕의 능묘를 모신 영릉이 여주에 위치한 점에 착안하여,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며, 민족문화를 전통에 둔 축제이다. 많은 문화공연과, 백일장, 우리말활용능력 왕중왕 대회, 휘호쓰기 등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주도자기축제

흙과 불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는 신륵사 인근 도자기엑스포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축제기간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이며, 여주지역의 특산물인 도자기를 알리는 행사로 전시, 판매, 체험, 공연 등이 이루어진다.

여주진상명품전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진상미와 밤고구마, 땅콩으로 널리 알려진 여주군에서 진상의 전통과 우수한 여주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축제이다. 추수가 끝나는 10월에 일주일의 기간으로 진행된다.